금주의 법구–〈잡보장경〉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6월 19일)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7월 22일 전북 김제 금산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태공당 월주 대종사 영전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불교 발전 주역, 태공당 월주 대종사 원적

7월 22일 금산사서 입적…다비 · 영결식 7월 26일 엄수

조계종 17 · 28대 총무원장 활동
종단 행정 · 제도 · 교육체계 확립
10.27법난 피해자…자주성 강화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17대 · 28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원로의원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7월 22일 오전 9시 45분 전북 김제 금산사 만월당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납 67년 세수 87세. 대종사의 빈소는 금산사 처영기념관에 마련됐으며 영결식 및 다비식은 7월 26일 오전 10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금산사 분향소에는 불교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끝없이 이어지며 월주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3일 분향소를 찾아 대종사의 영전에 삼배의 예를 올린 뒤 "큰스님의 원적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반드시 극락왕생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추모의 뜻을 표했다. 이어 "큰스님을 여러번 뵙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며 "산중수행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늘 중생들의 고통해 함께했던 큰스님의 보살행과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월주 대종사는 한국불교현대사의 산 증인이다. 격동의 시기 조계종 수장으로 한국불교 발전의 토대를 일궜고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실천적인 롤모델을 제시하는 등 불교의 대사회적 저변을 확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특히 조계종 정화 불사와 통합종단 출범, 종단 개혁 등 격동하던 시대적 흐름을 이끈 장본인으로 평가된다.

1980년 조계종 제1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월주 대종사는 불교 자주화와 종단 운영의 자율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해 신군부에 의한 10.27법난으로 종단이 붕괴되면서 총무원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불교계가 군홧발에 유린당하는 모습을 목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월주 대종사는 다시 제28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대중선거를 통해 선출된 첫 총무원장이었다.

14년만에 다시 총무원장에 취임한 월주 대종사는 '개혁종단'의 수장으로, 무엇보다 종단을 둘러싼 안팎의 문제들을 타파하는데 공력을 기울였다. 종단 개혁의 완성은 물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됐다. 종단과 정권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쓴 것은 물론, 종단 운영체계를 다지고 승가교육의 기본틀을 정비했으며, 제도 개혁을 토대로 한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성과들은 종단 발전의 기틀이자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한 획을 그었다. 월주 대종사는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한데 이어, 그 실질적인 결실로 국제개발협력단체 지구촌공생회를 창립해 제3국가를 지원했고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집 설립과 운영을 이끌었다.

월주 대종사는 금산사를 중창한 주역이기도 하다. 금산사는 신라시대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사격이 기울었다. 1961년 금산사 주지로 임명된 월주 스님은 도량 재건에 나섰다.

신도 뿐 아니라 불자들과 국민의 정성을 모아내 수채의 전각을 신축하고 미륵전과 대적광전 등 전각을 해체복원했으며, 벽화 수장고와 템플스테이센터, 한국전통사찰음식체험관, 처영문화기념관 등 문화확산을 위한 건물도 추가로 건립했다. 현재 금산사는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하는 명찰로 우뚝 섰다.

월주 대종사는 1935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했다. 1951년 법주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1956년 화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1년~1974년까지 금산사 주지를 맡아 불사를 일궜으며, 전북 종무원장과 재단법인 불교전북교원 이사장, 금산상업중 · 고등학교 이사장, 대승학원 이사장,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제2~7대 중앙종회의원, 5대 중앙종회의장, 총무원 총무부장에 이어 제17 · 28대 총무원장 소임을 맡았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됐으며 2018년 조계종 대종사 법계를 품서했다.

한편 월주 대종사를 기리는 지역분향소는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보문사, 도선사, 영화사, 진관사,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 마련됐다.

섹션 추모특집 B1~8면

조계종 ㈜도반HC 자회사 합병·개편

합병 8월 1일 잠정 확정… 미디어 · 유통 통합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자회사 합병을 통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토대로 수익구조 확장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도반HC는 지난 6월 이사회를 개최해 도반HC 산하 자회사 일부에 대한 인수합병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6월 21일 주주총회를 거쳐 합병공고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반HC는 ㈜도반유통과 ㈜도반미디어, ㈜도반기획, ㈜조계종출판사 4개 산하법인과 이를 관리하는 기획경영실로 구성돼 있다. 합병 대상은 이 가운데 도반유통과 도반미디어로, 법인해산 절차를 거쳐 도반HC로 통합된다. 이후 도반HC는 달력사업부, 승소사업부, 디자인사업부, 영업부 4개 부서 체제로 개편되며, 기존의 기획경영실은 기획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총괄관리를 담당할 전망이다.

조계종 출판사와 도반기획은 주주 관계 및 운영 특성을 감안해 현재의 독립경영 법인으로 유지된다. 합병기일은 8월 1일로 잠정확정됐다.

기존 도반미디어와 도반유통이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상호 협조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합병을 통한 4부 체제로의 변화는 부서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반HC측은 이번 합병을 계기로 영업과 홍보, 기획, 회계 등 기존 자회사 별로 분산됐던 주요업무와 담당 인력의 통합 및 재배치 등 대대적인 조직구조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운영을 체계화해, 보다 합리적인 경영체계로의 체질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도반HC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도반HC를 구성하는 각 자회사들이 독립경영 체제의 법인이긴 하지만, 전문적인 경영이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주어진 상황에 의해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도반HC가 갖추고 있는 각 분야의 역량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할 필요성이 합병을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윤창묵 도반HC 상무도 "코로나19 이후 도반HC 경영에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직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합병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의 단일화를 꾀했고 각 부서별 전문영역을 구축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도반HC는 올 초부터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다각도의 노력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중 전문업체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도반HC 산하법인

전문분야별 4부서 체제로
합리적인 경영 구축 목적
조계종출판사 · 기획 제외

들의 세무, 회계 등 재정구조와 업무, 인사에 대한 총제적인 조사 · 분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효과적인 경영 대안으로 도반HC 산하법인들의 효율적인 개편 필요성과 합병을 통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자회사 일부 합병을 최종 결정했다.

도반HC 사장 주혜 스님(총무원 사업부장)은 "조계종 사업지주회사인 도반HC는 종단 수익구조 다변화를 토대로 사회공헌과 종단 목적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 확충이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이번 합병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가장 효과적인 경영방안을 모색해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圓

大韓佛教曹溪宗 第17代 · 第28代 總務院長
太空堂 月珠大宗師 宗團葬

寂

大韓佛教曹溪宗 第17代 · 第28代 總務院長을
歷任하시고, 現 元老義員이신 太空堂 月珠大宗師께서
世緣을 다 하시어 佛紀 2565(2021)年 7月 22日
(陰 6月 13日) 午前 9時 45分 全北 金堤 金山寺에서
法臘 68年, 歲壽 87歲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徒代表 道永 合掌

■ 焚 香 所 : 母岳山 金山寺 處英文化記念館
■ 地域焚香所 : 조계사, 봉은사, 보문사, 도선사, 영화사, 진관사,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 永 訣 日 時 : 佛紀 2565(2021)年 7月 26日(陰 6月 17日) 월요일 午前 10時
■ 永 訣 式 場 : 母岳山 金山寺 處英文化記念館
■ 茶 毘 場 : 母岳山 金山寺 蓮花臺
■ 連 絡 處 : 母岳山 金山寺 (063)548-4441

※코로나19로 인하여 숙박 및 공양을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大韓佛教曹溪宗 第17代 · 第28代 總務院長 太空堂 月珠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조계종 제5대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임명

"군승 처우 개선 최우선 과제로" 포부 밝혀

해군법사 역임, 인천포교 앞장
군승충원 등 종단과 협력 강화
원행 스님 "청년 포교 활성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7월 20일 제5대 군종교구장 선일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5대 군종특별교구장에 인천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선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최근 코로나19로 포교가 힘든데다가 청소년 학생법회가 사라지고 대불련을 위시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군에 있는 청년불자들을 포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신임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종단에서 군포교에 임하라는 부름에 마지막으로 갈음할까 한다. 1979년 해군법사로 임관해 군 포교 현장을 다니며 그 원력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군승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장병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 전임 교구장 스님이 했던 일들을 이어 계룡대 홍제사 불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으로 임명된 선일 스님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스님은 1976년 운기 스님을 은사로 대흥사로 출가,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79년 군승 포송 초기 군법사로 임관해 1986년까지 해군에서 군법사로 포교활동에 전념했다. 대위 전역 후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특별비구계를 받았다.

스님은 미국 봉황사 주지에 이어 현재 인천 법명사 부루나포교원 회주로 있다. 스님은 특히 부루나선행회를 구성해 지역포교에 힘썼다.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지역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 제공과 사랑의 연탄나눔봉사, 환경정화활동, 대학생 장학금 지원활동 등을 적극 전개했고, 인천불교총연합회를 이끄는 등 불교 교세가 약한 인천지역 포교를 일궜다.

스님은 군승 충원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종단 차원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선일 스님은 "가톨릭의 경우 16교구로 신부 수가 적지만, 한 교구에서 10명씩 의무화하여 군신부로 보낸다. 군승은 자원이 부족해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군승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임명식에서는 향후 교구본사회의 등에서 군승 충원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교구본사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로 논의됐다.

한편, 원행 스님은 4대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에게 "4년간 여러 군법당에 평화의 불을 밝히고, 홍제사 법당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노고가 크다"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선묵 혜자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 덕분에 군부대에 십선계 수계를 군에 정착시키고, 58곳 법당에 평화의불을 봉안했다. 홍제사 건립 후 평화의불 봉안 등 새로 임명된 선일 스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군포교에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재위촉

원행 스님, 7월 20일 위촉장
'생활찬불가 운동' 지속 노력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에 박범훈 현 원장이 재임명됐다. '생활찬불가 운동'을 통한 찬불가 활성화를 이끌어 온 박 원장은 불교음악 확산을 통한 대중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사진>

원행 스님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불교음악에 남다른 원력을 세우고 이끌어 온 것에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불교음악원장으로서 불교음악 발전과 대중화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범훈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은 있지만, 포교를 위한 '생활찬불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불교음악학회가 설립된 덕분에, 현재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연구 내용을 논문집으로 출판해 불교음악의 학술적인 이론 정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원장은 원행 스님의 조언을 토대로 "역대 조사 가운데 불교문화 및 불교음악 분야에 기여한 분들의 업적을 21세기에 맞게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작품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찬불가를 더 많은 불자들이 배우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원장은 "봉은사의 경우 사찰합창단만 찬불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법회 전 간단한 찬불가 강좌를 통해 모든 불자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찬불가 대중화를 위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도 "불교음악원 덕분에 봉은사에서 활동하는 합창단만 5개일 정도로 불교음악 및 찬불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며 "불교음악원의 노력과 함께해 불교음악 활성화를 일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행 스님은 "더욱 큰 원력으로 전세계적 음률을 아우르는 불교음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더불어 불교음악에 사용되는 악기 등을 연구, 고증하고 수집해 전시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지희 기자

"방역수칙 위반 물의 해남 사찰에 '참회'"

조계종, 7월 21일 입장문

해남 지역의 한 사찰 스님들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자, 조계종이 "전국 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며 보다 철저한 방역을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21일 '방역수칙 위반 등 관련 조계종 입장'을 발표하고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진상을 조속히 파악하여,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며 "나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계종은 "국민과 사부대중이 느꼈을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되돌리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지희 기자

해인사, 재적승 194명에 기초수행비 첫 지급

법계 중덕 · 정덕이상 재적승
신청 받아 심사 후 최종확정
재원 마련 위한 모연 진행도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재적승을 대상으로 기초수행비 지급을 시작했다. 첫 대상자는 분한신고와 결계를 필한 법계 중덕 · 정덕 이상 스님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194명으로, 1인당 15만원이 지급됐다.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는 최근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초수행비'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신청자 197명 중 194명의 재적승에게 각 15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기초수행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스님들은 비구스님 107명, 비구니스님 87명이다. 운영방침에 따라 신청자 중 '종단 미등록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소임자스님' 3명은 심사에서 제외됐다.

첫 지급대상자는 연령별 90대 1명, 80대 6명, 70대 15명, 60대 48명, 50대 88명, 40대 35명, 30대 1명으로 집계됐다. 50대 스님들이 가장 많은 비율(약 45.4%)로 확인됐다. 특히 매년 선원에서 수행 중인 스님들이 지급대상자의 약 44% 수준인 8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인사 측은 "매년 선원에서 안거 수행 중인 스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승려복지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인사는 매월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7월 13일 '해인사교구 재적승 기초수행비 지급 규정'을 제정, 이를 토대로 기초수행비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중덕(정덕) 이상의 기초수행비 대상자는 최대 500명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총 예산은 월 7500만 원, 연 9억 원 규모다.

본말사가 함께 재원 마련을 위한 십시일반 동참에 나선 것도 유의미하다. 해인사는 '기초수행비 지급'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교구종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결의하고, 이후 5개 권역별로 '해인사 말사 주지스님들과의 간담회'와 '산내암자 감원회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해인사 측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본말사가 함께 동참해 공의를 모은 결과, 기초수행비 지급에는 해인사 본사뿐 아니라 각 말사와 산내암자에서도 자율적으로 십시일반 동참이 이뤄지고 있다"며 "말사와 산내암자의 십시일반 동참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말사에서는 최대 5구좌(월 75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 소요 예산은 본사인 해인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해인사는 현재 '기초수행비 지급'을 위한 모연을 진행 중이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모연된 금액은 해인사교구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해 기초수행비 지급 용도로만 사용된다. (농협 351-1183-0408-53,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성운 스님, 백만원력불사에 1억원

7월 20일 원행 스님에 전달
"불교요양원 불사회향 발원"



조계종이 진행하는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각계 동참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이 7월 20일 1억 원을 쾌척했다.

서울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사진>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한국불교복지를 이끌어 온 선구자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앞선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여 불교복지를 일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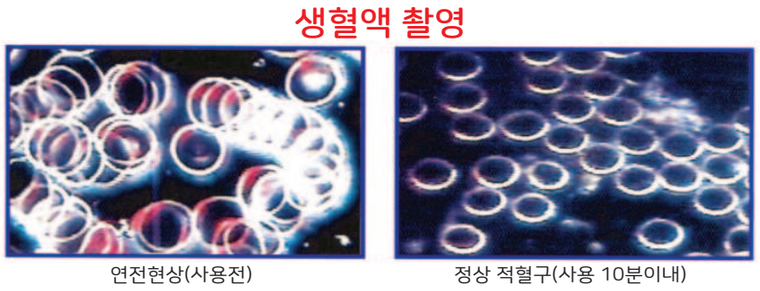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복지에서 종단을 대신해 큰일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위해서도 큰 성금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용기를 갖고 백만원력 불사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재직 시에 원만 성취하기를 기원한다. 불사 성만을 위해 능선에 오르게 하기 위해 이번에 기금을 내게 됐다"며 "백만원력의 의미가 숭고하다. 확고한 원력으로 불사를 성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성운 스님은 "백만원력결집불사 중 불교승려요양원 또한 불사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 승려요양 뿐만 아니라 승려 직계부모, 오랜기간 사찰에 종사한 종무원 등도 요양이 가능하도록 요양원 불사를 이끌면, 불교 교세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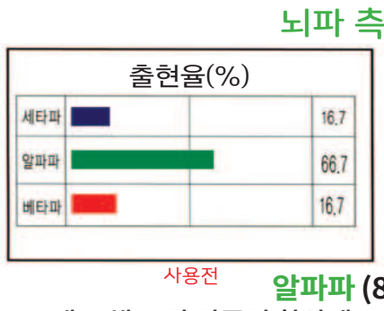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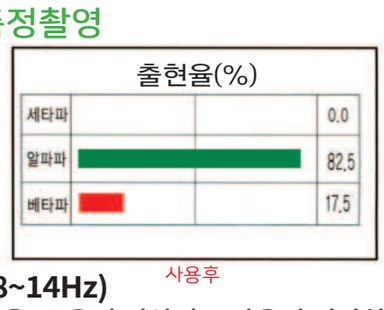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 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 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비누 : 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약 : 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100,000원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

‘만해대상’ 평화대상에 바렌보임 선정

동국대, 제25회 수상자 발표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 창단
음악 통해 팔 · 이 화합 주도

실천대상에 보각 스님 · 김하종
오정희 · 강수진 문예대상 선정
오는 8월 12일 만해축전서 시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다니엘 바렌보임


보각 스님


김하종 신부


오정희 소설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만해 한용운 스님의 뜻을 기리는 제25회 만해대상 평화대상 수상자에 다니엘 바렌보임이 선정됐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곽채기 · 동국대 교무부총장)는 ‘제25회 만해대상’ 수상자 선정 결과를 7월 21일 발표했다.

올해 평화대상은 세계적인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렌보임이 수상했으며, 실천대상은 자제공덕회 이사장 보각 스님과 성남 노숙자 쉼터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가 받는다. 문예대상은 소설가 오정희 씨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평화대상 수상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은 음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 세계적인 음악가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유대인 음악가로, 1999년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 영문학자 에드워드 사이드와 손잡고 ‘서동시집 오케스트라(West-Eastern Divan Orchestra)’를 창단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 음악을 통해 화합을 실천하도록 했다. 당시 바렌보임은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는 “무지(無知)에 대항하는 기획”이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무지로 인한 공포와 적대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보각 스님은 한국불교계 사회복지사업의 선구자다. 1970년대 조계종 스님 중 처음으로 대학교(상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1985년부터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해 2019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길러낸 제자가 1000여 명에 이른다. 전국불교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절반 이상이 그의 제자다. 보각 스님은 “사회복지는 그 자리에서 검증받는 현장 수행”이라며 “실천 없는 자비는 무자비와 같다. 부처님이 지금 시대에 오셨다면 사회복지사의 모습으로 출현하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대상 공동 수상자인 김하종(본명 빈첸시오 보르도) 신부는 경기도 성남 노숙인들의 대부다. 매일 성남시 성남동 성당 인근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 500~600명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의료지원을 돕고 인문학 강좌까지 개설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 뼈를 묻겠다’며 사후 시신과 장기기증까지 한 그의 바람은 “시설 책임은 한국인에게 맡기고 나는 봉사만 하고 싶다”는 것이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오정희 소설가는 “오늘의 한국문학에서 인간의 내면 탐구 소설에 관한 귀감으로 꼽히는 창작 세계를 일궈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68년 서라벌예대 문창과 재학 중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으로 이른 나이에 등단한 오정희는 서정적이면서 밀도 높은 문체의 미학을 빚어냈다. 한국 사회의 이면(裏面)에 숨은 보통 여성의 일상적 삶을 다루면서, 인간 존재의 보편적 근원과 심층을 섬광처럼 조명한 소설을 잇달아 발표했다.

함께 문예대상을 받는 강수진 단장은 1985년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옹이처럼 튀어나온 뼈, 뭉개진 발톱, 굳은살과 상처들이 그대로 드러난 그의 ‘세상에서 가장 못난 발’ 사진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강수진 단장은 국립발레단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 발레의 대중화라는 의무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찾아가는 지역공연’, ‘찾아가는 발레교실’ 등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만해대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리는 만해축전에서 개최한다.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뜻을 기리는 만해축전은 동국대와 강원도, 인제군, 조선일보,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유심작품상 시상식을 비롯해 학술행사, 문화예술 행사 및 경연대회, 지역대동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으로 故 무산 오현 스님의 주도로 제정됐다. 역대 수상자로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 라마, 정주영 前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前 대통령, 함세웅 신부, 마리안느 스퇴거 前 소록도 간호사, 조정래 소설가, 모옌 노벨문학상 수상자, 산학인 엄홍길 등이 있다.

금강 스님 · 장규언 교수 제36회 불이상 수상

불이회 7월 20일 발표


금강 스님


장규언 교수

해남 미황사 前주지 금강 스님과 장규언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연구교수가 불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이회는 “제36회 불이상 실천 분야 수상자로 금강 스님을, 연구 분야 수상자로 정규언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2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실천 분야 수상자인 금강 스님은 조계종 교육원 교육아사리, 교육위원 등을 거쳐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미황사 주지 소임을 맡아 미황사를 자연과 화합하고 한국의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는 불사로 가람을 일신했다.

금강 스님은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원광대 동양학대학원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승가대 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연구 분야 수상자 장규언 교수는 난해한 원측 스님의 유식학을 꾸준히 연구해 원측 스님을 신라를 뛰어넘는 전체 대승불교 내에서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규언 교수는 한국사상사학회 편집이사와 동국대, 금강대 등에서 HK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사상사학회 논문상(2014),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상(2016)을 수상했다. **신성민 기자**

“부산시, 폐기물매립장 사업 부결하라”

조계종 환경위, 입장문 발표
청정 지역 장안사 수호 촉구

최근 장안사 인근에 설치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 · 처리시설과 관련,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7월 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산시에 대해 “장안사 인근 폐기물 매립 ·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불자들의 반대 여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반대 결정을 내려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환경위는 “장안읍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 이후 원전밀집지역으로 기장군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서의 설움이 깊은 곳”이라며 “특히 천년고찰 장안사는 청정환경 사찰림과 수점의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는 등 뛰어난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이러한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운영에 수반되는 악취와 오염수가 주민들의 주거지와 장안사 계곡으로 흘러와 더 이상 기장군민의 정신적 휴식 도량으로 자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위는 “국가와 부산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 지역내 갈등과 불신을 종식시켜달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부산시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즉각 부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표명하며, 전문가 검토를 포함하여 지역 교구본사 및 사찰, 환경단체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부처님 가피로, 올림픽 선전을”

도쿄올림픽 23일 개막, 불자선수 선전 다짐

사격 진종오 · 펜싱 김지연 메달권
유도 곽동환 · 가라테 박희준 독실
총 70여 불자선수들 선전 다짐해

일본 도쿄올림픽이 7월 23일 개막한 가운데, 불자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불심으로 정신무장한 사격 진종오를 비롯한 불자 선수 70여 명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불자선수 중 메달 기대주로는 먼저 사격 간판 진종오 선수가 있다. 진종오 선수는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 올림픽 출전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양궁 김수녕 선수가 세운 역대 한국선수 최다 올림픽 메달 기록을 깨게 된다.

펜싱여제로 불리는 김지연 선수도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올림픽 무대에 오르며, 불자인 양학선 선수도 런던올림픽 이후 9년만에 나선다.

대표적인 메달권 선수들과 함께 선수촌 법당에서 명상 등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선수들의 선전도 기대된다. 유도 곽동한, 역도 김수현, 양궁 강채영, 펜싱 전희숙, 구본길, 배드민턴 채유정, 백하나, 김소영, 공희용, 전이주, 이세연, 카라테 박희준 등은 법회에 매주 참가하며 정신수양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창설된 종목인 가라테의 박희준 선수는 “어릴적부터 아버지따라 대전 고향에가면 사찰에 들렀다. 사찰에 모셔진 할머니를 보러간다는 마음으로 선수촌 법당도 찾았다”며 “법당에서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차분해진다. 그 차분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도 곽동환 선수도 “선수촌 법당에서 다른 종목의 동료선수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았다. 부처님 가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체육인전법단장 퇴휴 스님은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 불자선수들을 크게 보살피지 못해 미안함이 있다. 국난에서 항상 국가대표들이 선전하며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올림픽에서 상대에 주눅들지 말고 가진 실력을 모두 뽐내고 돌아왔으면 한다. 이미 메달 여부를 떠나 이들은 우리의 챔피언이다. 부처님 가피도 함께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조계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선전기원법회를 취소하고, 7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불교성전과 홍삼, 응원메시지 등을 담은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만해백일장 비대면 개최

대한불교청년회는 제41회 전국만해백일장 대회를 8월 예선과 9월 4일 본선으로 나눠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선은 우편접수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8월 7일 오전 10시에 시제를 발표하고 예선작품은 8월 12일 우편발송 소인분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면 취소된 만해백일장은 예선은 비대면, 본선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용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본선진출자는 8월 23일 발표되며 9월 4일 서울과 경북도청 등에서 본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불교 실천” 남해불교봉사단 최초 창립

남해군 불교봉사단 7월 18일 창립법회

53명 창립 봉사단원 모여 소외 이웃 위한 나눔으로 순수봉사단으로 활동계획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군불교봉사단이 7월 18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남해군불교봉사단’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봉사단이 출범해 눈길을 끈다. 경남 남해군에서 불교 봉사단이 최초로 창립됐다.

남해군불교봉사단(단장 이금숙)이 7월 18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남해군불교봉사단’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남해군불교봉사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비실천에 앞장서고 신행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로 정토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이다. 남해군불교봉사단은 먼저 ‘도피안(到彼岸)’이라 이름 붙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도피안 프로그램은 ‘소외 이웃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장애인 및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보살행을 목적으로 두었다.

도피안 프로그램을 위해 남해군불교봉사단은 세탁차를 운영하고 찐빵 나눔 등 소소한 즐거움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법회와 차 봉사, 알뜰 나눔 장터, 동지 팥죽 등 불교 포교를 위한 활동도 진행한다.

이금숙 남해불교봉사단 초대 단장은 “신행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무엇보다 실천하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며 “남해에 불교봉사단이 있기를 바랐는데 단원들과 합심해서 창립법회를 봉행해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해군불교봉사단은 화방사 주지 선문 스님과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며 봉사단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후 5월 30일에 화방사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수호 프로그램에 15명의 불자들이 모였고 봉사단 필요성을 함께 공감, 구체적으로 의견 모았다. 6월 6일 봉사단 설립을 위한 정관을 확정하고 창립법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월 10일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봉사단을 모집했으며 창립 단원 53명이 모집됐다. 6월 20일 정관을 최종 정립하고 단장과 부단장을 선임했다.

남해군불교봉사단 창립을 위해 화방사 선문 스님의 지도와 격려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문 스님은 “불교의 뿌리가 남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교봉사단이 없다는 것이 항상 아쉬웠다”며 “포교를 위해 창립하게 되었으며 불자들의 깨달음을 위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봉사하는 삶이라 생각한다. 불자들이 복을 짓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봉사단 창립을 축하하며 내빈들의 축사와 격려도 이어졌다.

보리암 주지 성조 스님은 “무더운 날씨에도 보살행 실천을 위한 불교봉사단 창립법회가 무엇보다 뿌듯하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지금 남해군민들에게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해불교사암연합회장 성각 스님은 “봉사단 창립을 축하하며 대승불교의 가치를 담은 봉사단 활동을 무엇보다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장충남 남해 군수는 “‘깨달음은 친절이다’라고 생각한다”며 “봉사단으로 인해 남해가 밝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립법회에는 보리암 주지 성조 스님, 남해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각 스님, 운대암 주지 도응 스님, 화방사 주지 선문 스님, 용문사 주지 지각 스님, 낙가사 주지 성준 스님, 장충남 남해군수, 이주흥 남해군의회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범어사 대웅전 장엄 세계 펼쳐지다

금정총림 포교사회, 7월 18일 노재학 작가 강연 열어



범어사(주지 경선) 금정총림 포교사회는 7월 18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범어사 대웅전의 장엄세계’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금정총림 포교사회 일요법회팀이 주관했으며 특강을 통해 범어사가 가진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불교 건축의 상징과 특색을 교육해 포교사로 활동하는 불자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강연에는 금정총림 포교사회 일요법회 회원들과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사찰 해설사 3기 생들이 동참했다.

노재학 작가는 먼저 대웅전의 특징을 설명하며 법당의 모범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노 작가는 “범어사 대웅전은 한국 전통 사찰 법당 가운데 고전주의 경향을 가장 많이 보여준다”며 “법당에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아주 예술적으로 표현했고 모범적인 형태로 전형화시켰다”고 정의했다. 한편, 노재학 작가의 특별강연이 한차례 더 이어진다.

금정총림 포교사회 일요법회팀은 8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범어사 팔상독성 나한전의 장엄세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정사 수진 스님, 동명대 장학금 전달

인재불사 위해 2000만원 후원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동명대에 장학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수진 스님은 7월 21일 동명대 동명관 4층 세계선센터에서 ‘동명대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및 불교동아리 로투스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수진 스님과 장재진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재학생 등 10여 명이 동참했다.

수진 스님은 “어려운 시기 학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장재진 교수는 “매년 장학금을 후원하는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스님은 인재불사를 위해 항상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지하고 후원해오셨다. 불교동아리 성장과 학생들을 위해 잘 회향할 것이다”고 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운곡 스님 선명서화 전시회 수익금 기부

선명서화 작품으로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운곡 스님이 전시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기부했다.

부산 을파소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은 7월 21일 해운대구청에서 ‘선명서화 전시 수익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운곡 스님은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에게 전시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금은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운곡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 가정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런 가운데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고 선명서화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영불교계, “미얀마 민주화 지지”

7월 20일 미얀마 상황 공유 및 민주화단체 후원금 전달


통영불교사암연합회는 7월 20일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통영시민 강연회’를 개최했다.

경남 통영시 불교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민주 항쟁에 대한 강연을 개최했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목)는 7월 20일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통영시민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통영불교사암연합회와 통영불교거사림, (사)나누우리, 보현사 신도회, 용화사 신도회, 통영생태문화시민학교, 통영소상공인회 등 많은 단체가 공동 주최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강연에는 통영사암연합회 회장 종목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쿳따우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고문, 권현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무국장, 안휘성 거사림회 회장, 심순자 용화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강연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획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50인 미만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쿳따우 미얀마 군부독재타도 고문이 담당했으며 ‘미얀마 민주화는 세계평화’란 주제로 미얀마의 현재 상황을 공유했다.

쿳따우 고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위한 염원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며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는 나라에서 살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얀마에서 확산된 코로나 상황을 공유하며 열악한 의료 환경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묵원 스님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 불교계는 이날 미얀마 민주화를 기원하며 후원금 300만 원을 후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비전사, 광주불교회관 기금 전달

비전사 1000만원, 신도모연 2916만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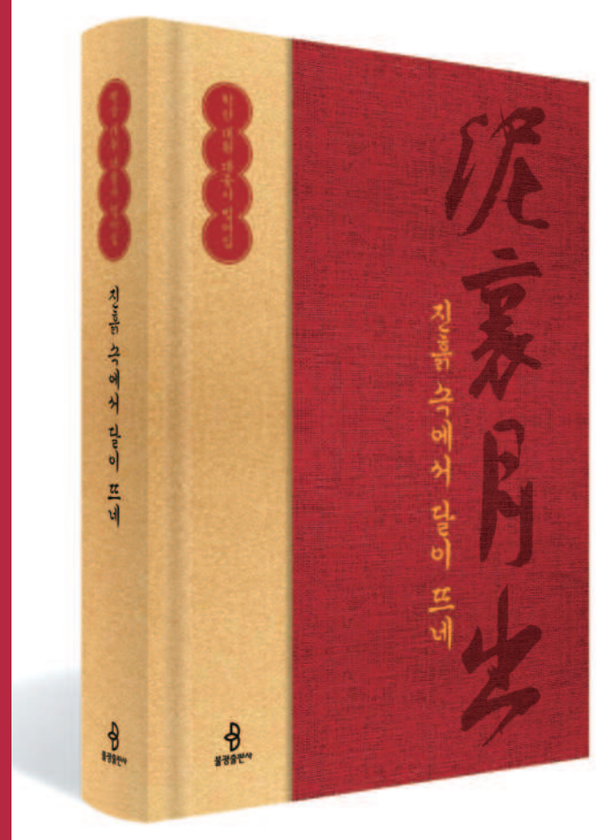


광주 광산구 비전사(주지 보혜)는 7월 16일 대웅전에서 광주불교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찰에서 마련한 1000만 원과 신도들이 모연한 2916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보혜 스님과 비전사 신도회,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광주불교회관건립 추진단장 도계 스님, 관음사 주지 소운 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 등 광주불교연합회 임원스님들이 참여했다.

보혜 스님은 “광주에서 불교회관은 미래 우리들의 후학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간이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신도들이 참여를 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더 모연을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계 스님은 “모연에 참여해 주신 주지스님과 신도회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학산 대원 지음
440쪽 | 양장본
29,000원

한국불교의 살아 있는 큰 스승

학산 대원 대종사의 삶과 수행
우리 마음의 어둠을 단박에 끊어내다!

고암, 전강, 성철, 향곡, 경봉 스님 등
근현대 고승과 나눈 불꽃 튀는 법거량의 기록!
그리고 현대인의 막힌 삶을 뚫는 시원한 일갈!

열네 살 출가 후 이어온 70여 년의 구도!
지금은 접하기 힘든 선문답의 진수와 행行으로써 드러난 대선사의 지혜.
그 향기로운 법어를 엮은 우리 시대 진정한 선승의 단 한 권의 책!

“현실에서 (마음) 공부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는 의미도 없고, 어떤 행복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학산 대원 대종사 鶴山大元大宗師
1956년 출가하여 오로지 구도求道의 길만을 걸어오신 우리 불교 대표 선승.
1986년 계룡산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다시 세울 때까지 제방의 선원을 돌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다. 그동안의 세월의 흔적이 무색하게 지금도 후학들과 나란히 앉아 용맹정진해 오고 계시는 큰스님은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하고 있다.



학산 대원 대종사 법어집
진흙 속에서 달이 뜨네
泥裏月出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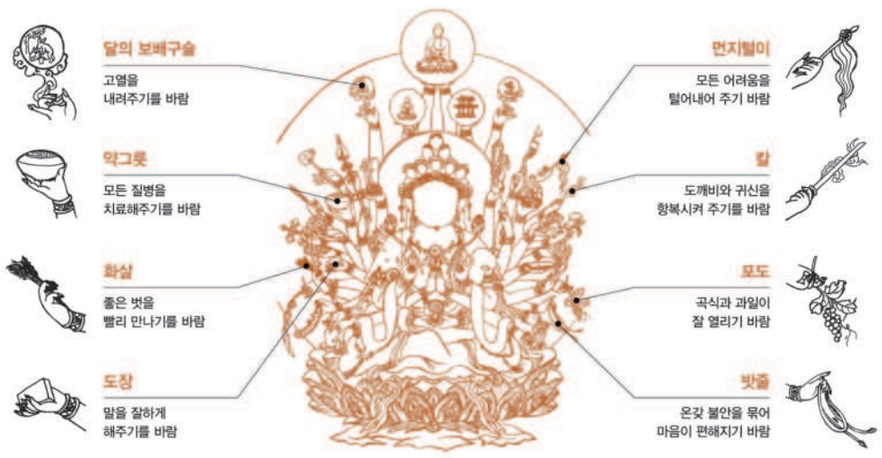
국보 제235호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의 변상도 부분. 세밀하고 정교한 고려사경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보물 제2015호 '천수관음보살도' (사진 위)와 적외선 촬영을 통해 확인된 밑그림과 손의 지물들을 설명한 그림.(사진 아래)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천수관음도상은 이 불화가 유일하다.


보물 제523-3호 〈석보상절〉 권11


보물 제935호 〈월인석보〉 권11


국보 제134호 '일광삼존상'. 삼국시대 금동불로 섬세함이 돋보인다.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아쉽게도 선재동자상이 훼손돼 사라졌다.

'이건희 컬렉션' 공개… '마스터피스' 성보 만난다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화실서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섬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삼국시대 금동불 '일광삼존상' 부터 고려불화 '천수관음보살도', 고려사경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까지 故 이건희(1942~2020)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했던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故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을 특별 공개하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故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개최한다"고 7월 20일 밝혔다. 전시실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에 마련됐으며, 전시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엄선된 명품 문화유산 공개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문화유산은 9797건 2만1600여 점으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그 시대와 분야가 다양하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증품 중 엄선된 대표작 45건 77점이 특별 공개된다.

이번 전시는 고인이 생전에 보여준 문화유산에 대한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故 이건희 회장은 2004년 삼성미술관 리움 개관식 축사에서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지녔던 故 이건희 회장의 전통 문화유산 컬렉션은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나라 전 시기와 전 분야를 포괄한다"면서 "이번 전시에서는 청동기시대 · 초기철기시대 토기와 청동기, 삼국시대 금동불 · 토기, 고려시대 전적 · 사경 · 불교미술품 · 청자, 조선시대 전적 · 회화 · 도자 · 목가구 등 이건희 컬렉션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터피스' 성보들 단연 압권

특별 공개되는 45건의 故 이건희 기증 유물 중 20건이 불교 성보문화재 혹은 불교 관련 문화재들이다.

그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삼국시대 금동불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일광삼존상' (국보 제134호)과 빼어난 글씨와 그림이 담긴 고려 사경(寫經)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국보 제235호), 현존 유일의 고려불화 '천수관음보살도' (보물 제2015호) · '수월관음도' 등이다.

'일광삼존상' 은 삼국시대인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8.8cm의 작은 크기지만 세부 표현들이 매우 섬세하다. 함께 전시되는 6점의 불 · 보살상들은 모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성보문화재로 불상 변천을 확인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은 섬세한 금선으로 〈화엄경〉의 내용을 장엄하게 표현해 눈길을 끈다. 특히 도상에 대한 쉽고 친절한 해설도 담겨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함께 전시되는 〈묘법연화경〉 권1-7과 〈불공견삭신변진언경〉 권13도 모두 국보로 고려시대 사경의 빼어난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봉업사' 가 새겨진 향로(보물 제1414호), '경선사' 가 새겨진 청동북(보물 제2008호) 등 사찰명이 새겨진 고려시대 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노력과 결실을 보여주는 〈석보상절 권11〉(보물 제523-3호)과 〈월인석보 권11 · 12〉(보물 제935호), 〈월인석보 권17 · 18〉을 전시한다.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화관에 마련된 전시실 입구.

2만1600점 중 45점 선별해 공개
일광삼존상 등 성보20점 포함돼
고려불화, 적외선과 X-선 촬영
밑그림 등 터치스크린으로 확인
방역 지침따라 예약관람 가능해


이건희 기증전 전시실 내 마련된 불상 전시 부스.

현대 기술로 확인한 고려불화

故 이건희 회장은 국외 유출 문화재인 고려불화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이번 기증전에서는 고려불화 '천수관음보살도' 와 '수월관음도' 2점이 공개된다. 보물로 지정된 '천수관음보살도' 는 현존 고려불화 중 유일한 천수관음 도상으로 그 의미가 크다. 도상의 천수관음보살은 11면의 얼굴과 44개의 손을 지닌 모습으로 손에는 각각의 지물이 들려있다.

'수월관음도' 는 고려불화 특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수작이나 훼손돼 함께 있어야 할 선재동자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고려불화의 세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적외선과 X선 촬영 사진을 터치스크린 영상으로 제시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촬영을 통해 '천수관음보살도' 에서는 천수관음보살의 여러 손의 모양, 손바닥과 광배에 그려진 눈, 손의 지물들이 확인됐다. X-선 사진으로는 '천수관음보살도' 와 '수월관음도' 의 채색 방식 및 안료를 확인했으며, 우리나라 전통회화의 채색기법 중 하나인 배채법(背彩法, 종이의 뒷면에 색을 칠하여 은은한 느낌이 앞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화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녹색의 석록, 푸른색의 석청, 백색의 연백(鉛白)과 붉은색의 진사 등 광물성 안료도 확인됐다.

다양한 시대 · 분야 문화재도

이번 故 이건희 회장 기증전은 시대와 분야의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청동기시대 토기로 산화철을 발라서 붉은 광택이 아름다운 '붉은 간토기', 초기철기시대 청동기로 당시 권력을 상징하는 '청동 방울' (국보 제255호), 삼국시대 배 모양을 추측할 수 있는 '배 모양 토기', 삼국시대 뛰어난 금세공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는 '쌍용무늬 칼 손잡이 장식' (보물 제776호), 조선 백자로 넉넉한 기형과 문양이 조화로운 '백자 청화 산수무늬 병' (보물 제1390호)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디자인을 보여주는 명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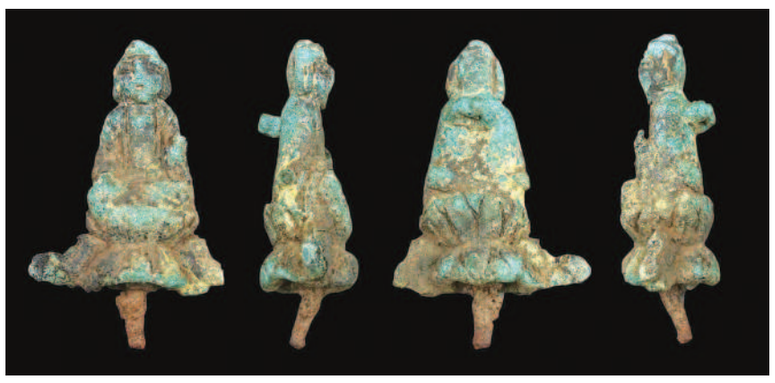
또한 기증품 중 독보적 가치를 지닌 '인왕제색도' (국보 제216호)는 76세의 노대가(老大家) 겸재 정선(1676~1759)이 눈길과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던 인왕산 구석구석을 자신감 있는 필치로 담아낸 최고의 역작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인왕제색도' 에 그려진 치마바위, 범바위, 수성동계곡 등 인왕산 명소와 평소 보기 힘든 비가 개는 인왕산 풍경을 담은 영상 '인왕산을 거닐다' 를 98인치 대형 화면으로 제공해 기증품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편, 이번 전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30분 단위로 관람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한다. 누리집에서 상설전시 예약과는 별도로 예약 후 입장할 수 있다. 전시 도록은 발간하지 않고 대신 전시품 이미지와 자료를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함안 강명리사지서 고려 금동불좌상 출토

불교문화재硏 폐사지 조사서
금동불 · 의곡사名 기와 발견
강명리사지 寺名 확인 성과
"추가 조사 · 복원 연계돼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문화재연구소가 함안 강명리사지서 발굴한 고려시대 금동불좌상의 세부 모습들. 강명리사지의 사찰이 고려시대까지 사세를 이어갔음을 알게 해준다.

경남 함안 광려산에 위치한 강명리사지에서 고려시대 금동불좌상과 당시 사찰명이 확인될 수 있는 명문기와가 출토됐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중요 폐사지 시 · 발굴조사'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경남 함안 강명리사지 일원 시 ·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 절터와 고려시대 금동불좌상, '의곡사(義谷寺)' 명 기와편 등이 확인됐다"고 7월 19일 밝혔다.

함안 강명리사지는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광려산에 위치한 절터이다. 광려산은 함안군과 창원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능선을 따라 곳곳에 석조불상, 절터, 석탑 등 많은 불교유적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불교문화 중심지로 평가받는다. 이 중 강명리사지는 광려산 남동쪽 사면 중단부에 위치해 있으며, 대형 석축들을 여러 단 쌓은 후 건물들을 조성한 산지가람이다.

하지만, 시 · 발굴조사 전 강명리사지는 공동묘지로 사용돼 왔으며, 그동안 지표조사 외 연구가 진행된 적 없이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 함안군(군수 조근제), (재)불교문화재연구소는 강명리사지의 보존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해 올해 4월 1차 추정 사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6월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시 · 발굴조사를 통해 함안 강명리사지는 통일신라시대 창건돼 고려시대까지 사세를 이어갔으며, 여러 번 중수과정이 확인될 정도로 전성기를 이루었던 사찰임이 확인됐다.

이는 출토된 유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의곡사' 명 기와편, '중희15년(重熙十五年)' 명문 기와편은 당시 강명리사지 위세와 사명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금동불좌상은 8cm 소형으로 연화대좌와 일체형으로 제작됐다. 현재 부식이 진행된 상태지만, 불상 육계와 통견가사, 수인, 광배를 거는 고리 등의 형태가 잘 관찰된다. 또한, 불상 좌 · 우측은 연결흔이 확인되고 연화대좌 바닥에는 촉(鏃)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제작 당시 삼존불 형태로 만들어져 불감 내부에 모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강명리사지 시 · 발굴조사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돼 온 사찰의 성격과 사명을 찾는 등 함안 지역 불교문화연구에 대한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향후 함안 강명리사지에 대한 추가조사, 문화재 지정, 정비, 복원 등이 연계된다면 광려산 '의곡사'는 함안지역의 또 다른 대표 유적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행선, 진리 나툼 위한 수행법"

안유숙 박사, 대행선연구원 제9회 계절발표회서

이 세계가 한마음 안에서 나온 것임을 여실하게 자각하는 주인공 관법의 2단계가 유식 5위 중 4위인 수습위와 맞닿아 있으며 각각 최종 구경열반을 위한 과정임을 밝힌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7월 17일 안양본원 3층 서 제 9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기열 동국대 교수의 '공의 나툼 체제와 원리에 관한 고찰' △안유숙 박사의 '나툼으로 향하는 수습위-유식의 관점에서 본 대행선의 2단계'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안유숙 박사는 '나툼으로 향하는 수습위-유식의 관점에서 본 대행선의 2단계'에서 대행 스님의 3단계 주인공 관법을 설명하며, 유식5위에서 각 단계별 접점을 설명했다.

안 박사는 "대행 스님의 주인공관법은 나를 보는 단계,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아는 단계, 나와 둘이 아닌 나툼의 구경경지를 이루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며 "주인공관법 3단계 중 나를 보는 주인공관법 1단계는 무분별의 마음인 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아는 주인공관법 2단계는 시공을 초월해 구경을 향하는 수습위, 보살도의 완성이자 나눔인 주인공관법 3단계는 나툼의 구경경지를 이루는 구경위와 대치된다"고 밝혔다.

안 박사는 주인공관법 2단계 수행은 '이심전심의 묘법'을 깨우치는 수행임을 밝히며 나툼 전 마음을 닦는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치되는 유식의 4위인 수습위는 보살의 단계로 번뇌를 단절하는 단계다.

안 박사는 "대행 선사께서는 이 과정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거기 놔라'고 하셨다. 각자가 깨어나는 수행뿐만 아니라 그 선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나아가는 것 또한 나툼을 위한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안 박사는 끝으로 "세 번째 단계인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 일체를 얻는 소식', 즉 나툼인 구경각지는 1단계, 마음을 관찰하는 의식, 2단계 마음을 닦는 수행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요즘 같은 시기 이같은 가르침은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궁극의 목적이 있다. 주인공 관법의 나툼 도리는 진여 성품을 받은 온전한 보살행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기열 교수는 〈한마음요전〉에서의 '나툼'에 대한 의의와 배경을 〈반야경〉 입장에서 '공의 나툼'과 비교해 다각도로 해석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공의 나툼'은 진리가 중생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현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이러한 설법이 법신불 사상과도 다름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의 나툼'은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자 모두에게 현현하는 붓다의 모습이란 것이다.

유식5위, 주인공관법 비교해
不二 관법 2단계는 수행단계
"관법수행, 보살행에 연결돼"

박 교수는 "'나툼'이라는 말은 '드러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가 현현한다'는 의미로 마음을 떠나 존재하지 않기에 진리 나툼의 주체는 마음, 나투는 곳도 마음이다"며 "그런 마음 작용을 〈반야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 삼매라고 한다. 특히 〈팔천송〉에서 반야바라밀다는 공성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로 설명되는데, 이중 공성 삼매는 오온이 공한 것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코로나 확산으로 위험한 시기에 망설임 없이 발표해주고 함께 자리한 교수, 학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불교를 바로 알리려는 분들이 있어 대행 선사의 사상이 새롭게 조명되는 기회가 만들어 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주일 ·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7월 17일 안양본원 3층서 제9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석주 스님 사상' 학술적 조명한다

만해학회, 8월 9일 세미나

만해학회는 8월 9일 오후 2시 인제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희망 극복의 시대, 석주 스님의 생애와 만해사상'을 주제로 제21차 만해축전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석주의 삶과 한용운'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석주의 생애와 포교사상'을,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석주 정일대종사의 교육활동과 중앙승가대'를,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석주 스님의 불교혁신 활동'을 각각 발표한다.

또한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석주 스님의 생애와 근현대 불교사 기록'을, 이선이 경희대 교수가 '한용운과 여운형의 민족독립에 대한 인식 비교'를, 한건택 내포관광진흥원장이 '만해 한용운 가문과 생가지에 대한 재고'를, 전기철 前 숭의대 교수가 '선시(禪詩)의 어법' 등의 연구논문을 대중에게 소개한다.

논문 발표 이후에는 만해한용운연구소 공모창작곡 연주 · 독창 등이 이어지며, 만해 스님의 시 낭송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칠곡 송림사 대웅전.


대구 동화사 극락전.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영남지역 조선시대 佛殿 '보물' 승격

문화재청, 송림사 대웅전 등 3건 지정공고

17~18세기 팔공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고찰들의 불전(佛殿)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문화재 '칠곡 송림사 대웅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대구 동화사 극락전',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등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칠곡 송림사 대웅전은 임진왜란의 전란을 겪은 후 1649년에 중수됐으며 이후 1755년, 1850년 두 차례의 중수를 거쳐 현재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건물이다.

평면 규모뿐 아니라 실내구성에서도 당대 흐름인 중앙에 대형 불단을 설치하고 후불벽을 두어 예불공간을 확장시키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옛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포의 짜임은 비교적 시기가 올라가는 교두형 공포로 짰는데 이런 유형의 공포는 팔공산 일대 사찰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특색이다.

대구 동화사 극락전은 1600년(선조 33년)에 중건을 시작했고, 그 중 금당(金堂)을 제일 먼저 건립했는데 지금의 극락전으로 판단된다. 이후 문헌기록을 통해 1622년에 중창되었음을 확인했다. 임진왜란 이후에 재건된 조선후기 불전 중에서는 건립 시기가 빠른 편에 속하며, 처마와 창호, 단청 등에서 일제강점기 이후의 변화가 확인되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의장은 건립 당시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은 극락전의 뒤쪽에 있으면서 고금당(古金堂)이라고 전한다. 1465년(세종 11년)에 건립되었고, 임진왜란 뒤 1702년(숙종 28년)에 중창됐다.

수마제전의 공포 의장도 극락전과 마찬가지로 교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포 의장 기법은 송림사 대웅전, 동화사 극락전 등과 함께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징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3건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17~18세기에 걸쳐 팔공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과 당시 이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던 같은 계보의 기술자 집단에 의해 조영된 건축물"이라면서 "시대적으로 앞서고 각각의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 역사, 학술적 조형예술적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1~7/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조선이여 법의 등불을 밝혀라	원행 스님	불교신문사	6	현실은 영원이다	지광	위로
2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7	부처님 건강법	현담 스님	선
3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 아내의 수기	변영희	바른법연구원	8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4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합본)	초펠	하늘호수	9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자식을 만드는 지식
5	술술 읽으며 깨쳐가는 금강경	하도겸/정호선 외	운주사	10	모든 발걸음마다 평화	틱낫한	불광

책세상

코로나 시대 건너는 영혼 백신, 생명동화



스님 바랑 속의 동화
정찬주 지음
다연 펴냄
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성철 · 법정 · 경봉 · 구산 큰스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큰스님들이다. 세속에 물든 일반인들이 범접하기 힘든 높은 경지에 올라 삶의 깊은 깨우침을 몸소 실천하고 설파한 선지식들이다. 당신들의 큰 사랑은 산중의 뭇 생명에게도 경계를 짓지 않았다. 산짐승과 스님 사이에 맺은 신비로운 인연은 신산한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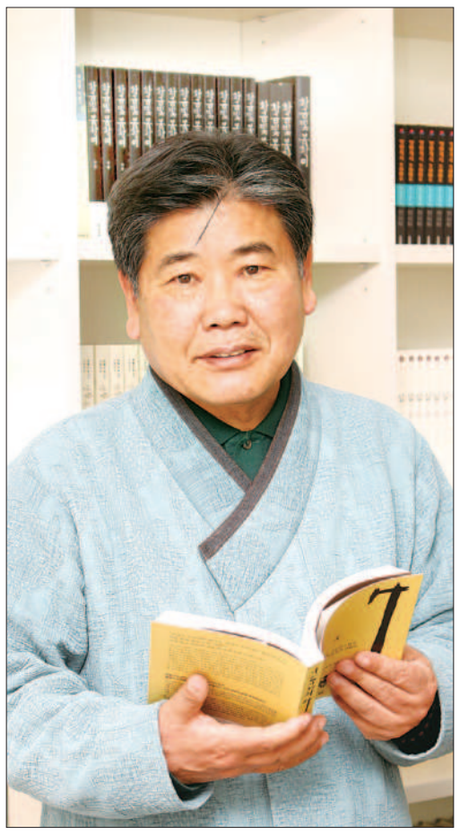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 정찬주 작가(오른쪽 사진)는 법정 스님에게서 '세속에 있되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무염(無染)이란 법명을 받은 각별한 재가제자다. 저자는 이번에 법정 스님서 수불 스님까지 큰스님 열네 분의 자비와 사랑,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엮어냈다. 모두 큰스님들이 직접 전해준 이야기이거나 큰스님을 모신 상좌 스님들에게 들은 주옥같은 감로법문 들이다. 상상력의 날개를 단 허구가 아니라 실제 스님들의 일화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더욱 각별하다.

책에 등장하는 열네 분 큰스님들은 산중서 산승으로 평생을 살면서 뭇 생명에 두루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다. 다람쥐, 토끼, 박새, 멧돼지 등을 도반이듯 살뜰하게 보살피고, 동물뿐만 아니라 억새나 개울가 바위에 낀 이끼나 오솔길을 불편하게 하는 나무 한 그루도 베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색감의 그림과 글을 읽

14명의 선지식들 깊은 통찰 조명
"산중 뭇생명조차 경계짓지 않아"
자비, 사랑, 지혜에 관한 이야기

다 보면 영혼이 정화되는 듯하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가는 사막 같은 시대'에 온 가족이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동화다.

갈수록 각박해가는 우리 사회가 주는 마음의 상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명을 경시하고 자비와 사랑에 인색한 풍조가 만연하다.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갈 것만 같다.



이 책은 동화 형식을 빌려 남녀노소 누구나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큰스님과 뭇 생명 사이의 순수한 이야기로 잊었던 사랑과 배려, 생명 존중을 되살린다. 법정 스님이 휘파람을 불면 오동나무 구멍서 나와 허공에서 묘기를 부리듯 공중제비를 돌던 호반새,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며 누더기 속의 이와 벼룩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던 구정 스님, 평소 밥 한 덩이를 내어 준 구산 스님에게 은혜를 갚은 산토끼 등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이야기들이 풍성하다.

동화 형식 빌려 생명존중 조명해
온가족 함께 있는 따뜻한 동화로
아름다운 일러스트 삽화 돋보여

정찬주 작가는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 동화를 함께 읽음으로써 자비와 사랑, 지혜의 싹이 자라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며 이 책을 쓴 계기를 밝혔다. '바랑'은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를 일컫는 말이다. 저자가 큰스님들의 바랑 속에서 직접 꺼내온 아름다운 동화를 통해 삭막해가는 세상 속에서 한줄기 청량한 위로를 받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보자.

이 책 1장 〈스님 바랑에서 꺼낸 자비〉는 법정 스님, 혜암 스님, 경봉 스님, 구산 스님, 혜국 스님의 뭇 생명에 대한 자비 이야기이고, 2장 〈스님 바랑에서 꺼낸 사랑〉은 성철 스님, 혜국 스님, 수월 스님, 경허 스님, 지장 스님의 뭇 생명에 대한 사랑 이야기이다. 이어 3장 〈스님 바랑에서 꺼낸 지혜〉는 청담 스님, 구정 스님, 혜통 스님, 수불 스님의 뭇 생명에 대한 지혜를 들려준다. 작가 정찬주는 1983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이래 지금까지 줄곧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정신세계를 탐구해왔다. 그런 그가 지금까지 직간접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큰스님들의 신비로운 일화들을 모아서 펴낸 가족이 함께 읽는 가슴 따뜻한 동화다. 그저 책장을 넘기다 보면 세상살이에 지쳐 점차 사그라들던 사랑과 자비, 연민의 감정이 되살아난다.

영국 킹스턴대학교서 일러스트를 공부한 일러스트레이터 정윤경의 아름다운 삽화들은 큰스님들이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의 아름다운 결을 부드러운 색채를 이용해 그대로 지면에 옮겨 놨다. 스님과 동물들을 따뜻하게 포착한 그림만 봐도 싱긋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절에서 찾은 자신의 '마음 서랍'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배종훈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 6천원

소란한 일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신없이 부대끼다 보면 고요하고 여유로운 공간과 시간이 절실해지는 때가 온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은 절에서의 하룻밤을 꿈꾼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는 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그 매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그곳에서 배종훈 저자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찰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찾았다.

이후 한 달에 한 번, 카메라와 그림 도구를 챙겨 사찰 구석구석의 모습을 기록하러 떠난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다. 약 30곳이 넘는 전국의 사찰을 다녀온 저자는 앞으로 100곳의 사찰을 방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자꾸만 그가 절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절에서 저자는 어떤 풍경들을 마주하고 어떤 생각들을 눈에 담았을까?

국어 선생님, 서양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여행작가, 그리고 중학교 국어교사. 저자를 가리키는 수식어는 다양하다. 안 그래도 번잡한 세상, 1인 다역을 소화하면서 일상의 어떤 '틈'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그는 느리게 흘러가는 사찰의 곳곳을 저자 특유의 그림체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어떤 것을 오래 바라보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계단 옆 돌수반에 핀 연꽃의 문양, 햇빛의 움직임에 의해 시시각각 바뀌는 마애불의 표정, 석탑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의 원을 전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표정까지. 낮에는 낮의 고요함이 깃들고 밤에는 까만 어둠을 덮은 정적이 가득한 사찰의 풍경에 집중하며 저자는 차차 자신의 소란한 마음과 번잡한 생각을 비워내는 연습을 한다.

저자가 바라보는 풍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절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또 하나는 꽉

저자, 2년전부터 전국의 사찰 답사
사찰 30곳 방문…"100곳 답사목표"
저자 특유의 그림체로 사찰들 기록
일상과는 다른 사찰만의 매력 소개

차 있는 자신의 마음 서랍이다. 이런저런 계산들과 소란함으로 잔뜩 채워져 틈이 없어진 좁은 마음은 특별한 것 하나 없이 그저 고요함과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둘 비워져간다.

1부 '부처님을 닮은 그곳'은 저자의 시선으로 보고 담은 절의 소박하고도 정감 있는 풍경을 성실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사찰을 향해 가는 길에서 느낄 수 있는 계절마다의 아름다움,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이나 오래된 석물과 빛이 바랜 탱화, 절 마당에 자리 잡은 무영탑 하나, 소박한 문구가 새겨진 돌기둥 등 절 곳곳에서 발견한 것들, 그리고 절이 자리 잡은 곳 주변의 자연풍광까지 "부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대한 애정 어린 기록들로 가득하다.

2부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에서는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그 모든 것들에 소란한 마음을 비춰보는 사색적인 글들을 모았다.

절에서 마주한 풍경들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은 결국 자신의 마음 안으로 향한다. 한구석에 자리한 불확실성, 불안감, 크고 작은 슬픔들, 휴식에 대한 갈망 등 다양한 모습들로 제각기 쌓인 마음을 풍경에 비춰보며 그는 점점 그 특별할 것 없는 풍경들에 마음의 온기를 느낀다. 자신이 일상에서 그토록 아파하고 조급해했던 문제들에서 잠시 떨어져 그것을 바라보며 잠시라도 '작은 나'가 아닌 '큰 나'가 되어보기도, 무너져도 다시 쌓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기도 한다.

이 책은 그가 바라보고 기록한 절의 풍광과 비슷하다. 특별할 것 없이 비슷비슷한 절의 모습들에서 특별함을 발견한 그처럼, 독자들은 그의 글과 그림을 감상하며 점점 일상의 시간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절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온통 소란한 것들로 가득차 있는 일상에 조금의 위안을 얻고 싶거나 작더라도 아주 조그만 틈이 필요한 모든 독자들에게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는 느린 듯 밀도 높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 철거 – 보관 – 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8

▶ 29회 예고
아쇼까 진압군은 웃자인 반란군 부대장의 협조로 무사히 입성하여 반란군을 소탕한다. 반란군수괴는 시프라강 강변에서 교수형을 당한다. 이로써 반란군은 괘멸한다. 아쇼까는 다음날 웃자인 성민들의 시프라강 축제에 참여한다.



아쇼까 군사, 적군 부대장을 생포하다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아쇼까 진압군은 즉시 꼬삼비를 떠나 서남쪽으로 행군했다. 목적지는 반란군 수중에 있는 아반띠국 수도 웃자인이었다. 진압군은 기마부대, 보병부대, 코끼리부대 순으로 대오를 유지하며 베스강까지 나아갔다. 아직 전투대형은 아니었다. 정찰조 조장은 수시로 선봉대장에게 적정을 보고해 왔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을 불러 묻곤 했다.

"대장, 행군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오?"

"정찰 조장 보고입니다. 베스강과 베트와강이 만나는 도시에 축제가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날이 무더운데 무슨 축제란 말이오?"

"가네샤신을 기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반란군이 위장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시오."

아쇼까는 방심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찰조 조장의 두 번째 보고도 축제하는 베디샤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보고해 왔다. 진압군은 경계심을 풀고 베디샤 쪽으로 향해서 갔다. 과연 도시는 축제 중이었다. 밀짚과 진흙으로 만든 커다란 가네샤신을 어깨에 멘 네댓 명의 브라흐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을 선도하고 있었다. 가네샤신의 얼굴은 코끼리이고 손은 세 개나 되었다. 사람들은 가네샤 신상(神像) 뒤를 따르며 미친 듯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렀다. 아쇼까 진압군은 거리를 우회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힘으로 해산시킨 뒤 통과하는 수밖에 없었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부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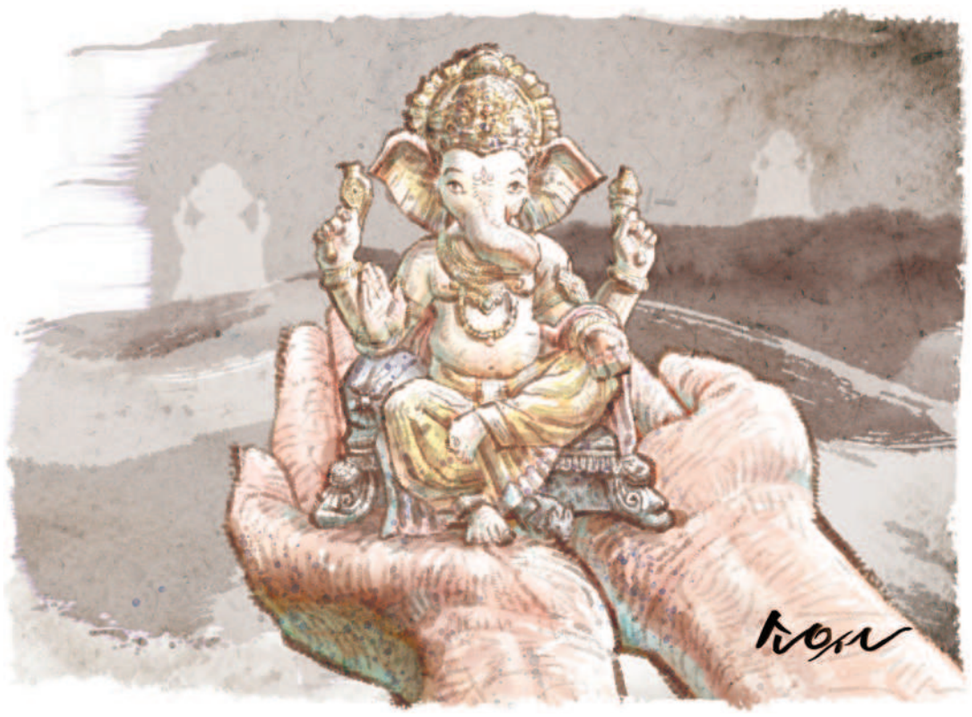
"브라흐마교의 축제이니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시오. 신에게 선택받은 브라흐민은 어느 때든 축제를 즐길 권리가 있소."

아쇼까 진압군은 길 양편의 숲으로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 숲속의 풀들은 이미 새벽이슬이 말라 축축하지 않았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깊숙이 들어와 비쳤다. 아쇼까는 제관 라다굽따에게 가네샤신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가네샤는 파괴의 신 시바와 히말라야의 딸 빠르바띠 사이에 생긴 아들이었다. 시바를 섬기는 가나(Gana)들 중에서 '우두머리 가나' 즉 군중을 지배하라는 뜻으로 가네샤란 이름이 붙었다. 제관 라다굽따는 아쇼까에게 가네샤가 태어난 인연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준 적도 있었다.

'빠르바띠가 목욕하던 중에 자기 다리에서 벗긴 때를 약초에 섞어서 사람 형상을 만들었다. 빠르바띠는 사람형상에 생명을 불어넣은 뒤 자신이 목욕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감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남편 시바가 오랜 만에 귀가해 보니 낯선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시바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가네샤가 막았다. 그러자 시바가 화를 내며 가네샤의 목을 잘라버렸다. 잠시 후, 시바는 빠르바띠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가네샤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았다. 시바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숲속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만나는 생명의 머리를 잘라 가져오게 했다. 부하들이 가져온 것은 코끼리 머리였다. 시바는 즉시 코끼리 머리를 가네샤의 어깨에 붙여 다시 생명을 찾게 해주었다.'

그래서 가네샤는 인간의 몸에 코끼리 머리를 가진 독특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사람들은 가네샤의 큰 코끼리 머리에는 영적인 지혜가 가득하고, 길고 굵은 코는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며, 불뚝 튀어나온 큰 배는 마음의 만족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또 가네샤 손에 든 밧줄은 쾌락에 집착하여 속박당하는 것을, 도끼는 그 속박을 끊는다는 것을, 달콤한 것은 자유를, 정면으로 편 손은 축복을 표시한다고 믿었다. 가네샤의 몸은 신들 중에서 무거운 편인데 흥미로운 것은 가네샤가 쥐를 타고 다닌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다른 신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가네샤 특유의 재주였다.



선봉대장과 진압군 일부 군사는 거리를 메운 사람들에게 욕을 했지만 아쇼까는 참고 견디었다. 베디샤 사람들은 아쇼까 진압군에게 우호적이었다. 술을 권했고, 진흙으로 빚은 작은 가네샤 신상을 선물했으며, 사탕수수의 단물과 짜파티를 건네주었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을 불러 지시했다.

"작전 중이니 우리 군사가 술을 마셔서는 안 되오."

"술의 유혹이 강할 것이지만 엄금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사는 슬그머니 빈 수통에 술을 담았다. 아쇼까는 술 냄새를 맡았지만 모른 체했다. 이윽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행진해 가자, 아쇼까는 신속하게 진압군을 이동시켰다. 도시가 가물가물 보이지 않을 때였다. 마침 옆에는 베트와강이 거울처럼 햇빛을 반사하며 흐르고 있었다. 군사들은 베디샤 사람들에게 받은 작은 가네샤 신상을 베트와강에 띄웠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모이는 바다로 가네샤신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아쇼까는 강물에 땀을 씻고 이동할 계획을 세웠다. 선봉대장을 불렀다.

"군사를 강변에 집합시키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점호를 하겠소."

진압군 군사들이 강변에 개인장비를 지낸 채 줄을 맞추어 섰다. 정찰조는 제외했다. 그제야 아쇼까가 선봉대장에게 말했다.

"군사들의 수통을 검사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쇼까는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를 점호했고, 선봉대장은 보병부대와 군수부대를 점호했다. 아쇼까의 예상대로 수통에 술을 담은 군사가 발각됐다. 아쇼까는 엄하게 소리쳤다.

"명을 어긴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

"군율을 어기지 않은 군사는 즉시 강물에 뛰어들어도 좋다!"

강변에 남은 군사는 열댓 명이나 되었다. 벌은 선봉대장에게 일임했다. 선봉대장은 명을 어긴 군사들에게 수통에 든 술을 모래밭에 쏟으라고 명했다. 술은 모래밭에 흔적도 없이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다. 선봉대장은 명을 어긴 군사들에게 수통을 입에 물게 하고서는 뜨거운 모래밭에 무릎을 꿇게 했다. 뜨거운 모래알에 군사들의 무릎이 벌겋게 익었다. 선봉대장이 소리쳤다.

"너희들은 부왕님의 명을 어겼다. 그러니 벌을 받는 것이다!"

"대장님, 한 번만 용서해주십시오."

"또 다시 명을 어길 것인가?"

그때 아쇼까가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대왕님의 명을 받든 마우리아국의 명예로운 군사다. 한시도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전이 끝나면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단 누구도 명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알겠는가!"

"예, 부왕님."

"좋다. 오늘은 여기서 용서해주겠다. 이제 저 군사들처럼 강물에 뛰어들어도 좋다."

벌을 받던 군사들이 일제히 환호를 질렀다.

"부왕님, 만세!"

아쇼까도 옷을 입은 채 절벽 위로 올라가 강물에 입수했다. 군사들이 아쇼까의 용감한 모습을 보고는 탄성을 질렀다. 강물 속에 들어간 아쇼까는 몇십 걸음의 강물 밖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숨이 찼던지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며 머리를 흔들었다. 어린 왕자시절부터 닦은 수영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낮의 더위를 식힌 군사들은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휴식을 취하면 이동속도는 그만큼 배가 되었다. 멀리서 정찰조 조장이 말을 타고 아쇼까에게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

"4요자나 밖의 거리에 웃자인 경계 군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들었는가?"

"웃자인에서 꼬삼비를 오가는 장사꾼들 이야기입니다."

"반란군이 경계를 서고 있군."

아쇼까는 반란군 군사로 의심했다. 선봉대장이 물었다.

"행군대오를 지금부터는 전투대형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아니오. 4요자나면 나흘 후쯤에나 도착하는 거리이니 그럴 필요는 없소. 다만 오늘부터 정찰을 강화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찰조 군사를 늘리고 반드시 반란군 경계병을 생포해 오시오."

"부왕이시여,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선봉대장은 기존의 정찰조에다 군사 10명을 더 늘려 별개의 정찰조를 만들었다. 밤낮으로 교대하면서 수색하듯 정찰하라는 강화조치였다. 정찰조를 강화시킨 효과는 이틀 만에 나타났다. 웃자인 부근까지 침투했던 정찰조가 반란군 간부 한 명을 생포해 왔다. 붙잡혀온 반란군 간부는 아쇼까를 보자마자 부들부들 떨었다. 아쇼까가 회유하듯 말했다.

"협조하면 살려주겠다. 너는 누구냐?"

"웃자인 왕의 군사입니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는 반란군 군사가 아닌가?"

"저는 마을을 수비하는 관군 군사입니다."

선봉대장이 소리쳤다.

"부왕님께서 네가 협조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셨다.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도 웃자인 군사는 실토하지 않았다. 할 수 없다는 듯 선봉대장이 부하에게 눈짓을 했다. 고문을 시작하겠다는 눈짓이었다. 선봉대장 부하가 웃자인 군사에게 발길질한 뒤 그의 손발을 밧줄로 묶었다. 선봉대장이 칼끝을 그의 얼굴에 대며 말했다.

"이래도 반란군이 아니라고 말하겠느냐!"

"살려만 주십시오. 다 말하겠습니다."

선봉대장이 또 다시 눈짓을 하자, 그가 땅바닥에서 이리 저리 짐승처럼 뒹굴며 말했다.

"손발만 풀어주십시오. 무엇이든 말하겠습니다."

밧줄을 풀어주자 그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웃자인은 왕을 죽인 반란군 대장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관군이었는데 성 밖으로 쫓겨나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웃자인 군사가 푸념하듯 말했다. 아쇼까는 그의 말을 믿었다. 이번에는 아쇼까가 말했다.

"왕을 죽인 반란군 대장은 누구냐?"

"원래는 왕궁을 지키는 경비부대 대장이었습니다. 그 자가 왕의 자리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째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냐?"

"성민들의 불만을 이용한 것입니다. 성민 중에서도 관리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왕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매관매직을 거침없이 했고, 장사꾼들은 진귀한 보석을 상납해야만 웃자인에 살 수 있을 정도로 왕이 탐욕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리와 장사꾼들의 불만은 없어진 것인가?"

"아닙니다. 왕이 된 경비대장은 난폭한 폭군으로 변해서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성민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고 반항하면 죽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신이 쌓여 공동묘지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너는 누구냐?"

"경비부대 대장 막하의 부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은 왕의 자리를 빼앗더니 저를 성 밖으로 내쫓고는 모든 권한을 혼자서 독차지해버렸습니다."

아쇼까는 몹시 만족했다. 가네샤신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생포한 부대장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첩보를 얻은 것 같아서였다. 하나의 첩보는 웃자인 성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팽배해 있으므로 공격해도 저항이 미미하리라는 것이고, 또 다른 첩보는 성에서 밀려난 부대장을 앞세우면 성 공격이 용이하리라는 점이었다. 〈계속〉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⑭ 5조 홍인, 동산법문을 설하다

▶ 한줄 요약
밖으로 여래를 찾지 말고 마음을 바로 보라.



청정심 깨치면 곧바로 부처

인도의 달마대사가 머나먼 동쪽으로 와서 마음을 바로 깨치는 선법을 전한 지 100여 년이 지나 4조 도신대사 대에 안정적인 선 도량이 마련되었고, 곧 5조가 나왔다. 5조 홍인은 홀어머니 밑에서 살다가 도신대사를 만나 마음을 깨치고 달마대사의 가사를 물려받아 5조가 되었다.

동산으로 가서 바로 부처되는 법문을 설하다

홍인(601~675) 대사는 스승이 있는 서쪽 쌍봉산에서 동쪽으로 옮겨가서 도량을 여니 이것이 저 유명한 전설이 된 동산법문(東山法門)의 시작이다. 4조 대에 이미 신라 법랑 스님을 비롯하여 500여 명이 넘는 구도자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룬 선문(禪門)은 5조 동산법문시대에는 1000여 명의 수행자들이 한 도량에서 정진하였으니 그 열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홍인대사가 법문하던 이 도량이 바로 조계 혜능이 출가하여 8개월 방앗간 행자 생활 중에 마음을 깨치고 6조로 부촉된 곳이다.

당시 동산법문의 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1300여 년이나 지난 2005년에 전국선원수좌회에서 고우 스님을 가이드로 무여, 혜국, 의정, 원각, 영진 등 전국 선원장 스님들이 선종 사찰 순례를 할 때 필자도 말석에 동참하여 오조사를 직접 가보니 산언덕배기에 있는 도량이라 좁아 보였다. 하지만, 도량은 고색창연하였고, 당시의 분위기를 느끼고 감동하기에 충분하였다.

오조사에는 사찰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전각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성모전(聖母殿)이다. 성모하면 예수교에서 예수를 낳은 동정녀 마리아를 부르는 말인데, 부처님 도량에 성모전이라니? 하며 들어가 보니 5조 홍인대사의 어머니를 모신 전각이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홍인대사를 낳은 어머니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 부모님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도 홍인을 잘 키웠고, 그는 훌륭하게 자라서 출가하여 마음을 깨치고 조사가 되었으니 그 어머니는 성인을 낳은 성모로 모셔진 것이다. 고난 속에서 홍인을 키웠던 어머님의 노고는 홍인이 출가하여 조사가 되어 성모로 보은하게 된 것이다. 5조 홍인대사는 지극히 인간적인 분이셨던 것 같다. 출가 후에 모친이 늙어 의지할 곳이 없자 오조사로 모시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하니 그 효성 또한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이다.

불교사에서 전설이 된 동산법문

중국 불교사에서는 이 동산법문은 하나의 전환점이자 전설이다. 동산법문은 4조와 5조가 주석한 중국 호북성 황매현 쌍봉산 동산 오조사에서 홍인대사가 설한 선 법문을 말한다. 7세기 초 중국은 수나라(581~619)가 10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패하여 무너지고 이(李)씨의 당나라(618~907)가 개국하여 중원 통일의 기반 위에 경제력과 사상 문화가 발전하여 송나라 - 원나라



동산법문이 설해진 5조 홍인대사의 오조사 전경. 6조 혜능선사가 부처되고자 찾아간 도량이기도 하다.

까지 이어지는 중국 역사에서 최전성기이자 동양이 서양 문화를 압도하던 황금시대였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안정기에 4조와 5조 홍인 대사의 동산법문(620~675)은 천하에 새로운 불교, 본래성불의 달마선을 전파하게 된 것이다. 통일 중국 당나라의 발전은 한반도의 삼국시대와 일본, 베트남까지 영향을 주었고, 사실상 한자(漢子) 중심의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때부터 4조 문하에서 신라 유학승 법랑이 수학하는 등 많은 신라의 구법승들도 선에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 전하고 있는 홍인대사의 동산법문은 〈수심요론(修心要論)〉, 〈최상승론(最上乘論)〉이 알려져 있다.

"무릇 성스러운 도에 나아가려면 참된 종지를 깨쳐야 한다.

대저 수도의 본체는 모름지기 자기 몸과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아 분별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성은 본래 원만하고 청정한 마음이다. 이 자성이야말로 본래 스승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다."

홍인대사는 우리가 부처님처럼 생사 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하려면 본래 청정한 마음을 깨쳐야 함을 강조한다. 깨달음의 수도는 자기 심신이 본래 청정하여 불생불멸함을 알아차리는 것이라 한다. 결국 홍인대사의 동산법문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 다만, 이전의 불교가 중생이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라 하지 않고, 중생이 본래 청정하고 불생불멸하니 따로 부처님을 구하고 믿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바로 깨치는 선을 말하고 있다.

〈금강경〉으로 부처되는 길
동산법문은 불교의 전환점
1천여 대중 상주하며 교화

홍인대사는 한 수행자가 "어째서 자기 마음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다고 말하십니까?"하는 물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생사의 윤회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본래 마음을 지킨다면 곧 피안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한다. 또한 〈금강경〉의 "만약, 형상을 통해서 여래를 보려하거나 소리를 통해서 여래를 찾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끝내 여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구절을 상기시켰다.

결국 동산법문은 〈금강경〉 가르침대로 밖으로 여래를 찾지 말고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하니 바로 깨치는 선을 알려준다. 당시에 성행한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천태종이나 〈화엄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화엄종 등 교학(敎學)이 중생이 부처되는 수행을 점점 닦아서 차차 부처가 되어 간다는 점오(漸悟)의 수행관을 제시하였고, 또 정토계의 염불(念佛)은 부처님을 지극 정성으로 생각하여 깨치는 수행관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생사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오직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하니 바로 깨치는 가장 빠른 최상승의 선을 제시하였다.

〈금강경〉으로 바로 부처되는 길

부처님이 깨치고 45년 동안 설법한 것이 팔만대장경이다. 부처님이 방대한 설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심오하여 인류의 그 어떤 종교나 철학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너무나 방대한 불교경전은 핵심인 중도를 알지 못하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아 변견에 집착하기가 쉽다. 실제 부파불교시대가 그러하였고, 이후 소승과 대승, 선과 교, 선과 염불, 화두선과 위빠사나 수행자 사이의 갈등들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이것이 불교 공부의 어려움이다. 이것이 우리 불자들이 안고 있는 크나큰 과제다.

그런데, 5조 홍인대사는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며 〈금강경〉 한 권으로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을 설하였다. 이것은 생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행자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한자를 익혀 많은 경전을 볼 필요도 없고, 오랫동안 염불하고 계율을 지키고 닦고 할 필요도 없이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하니 바로 깨치는 길을 말한 것이다. 당시 동산 오조사에는 1000여 대중이 상주했다고 하니 그 열기를 짐작할 수가 있다.

나뭇꾼이 부처가 되고자 출가하다

〈금강경〉 한 권으로 생사 윤회의 고통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게 한다는 동산법문은 삽시간에 세상에 전파되어 갔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름길로 가려 하는 법이다. 7세기 후반 즉 우리 한반도가 삼국 통일이 이루어질 무렵에 당나라 남해 광동성 신주라는 시골에 혜능이라는 나무꾼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님을 모시고 가난하여 시장에 나무를 팔아 먹고 살았다. 이 나뭇꾼의 이름은 혜능이고, 성은 범양 노(盧)씨인데 그가 바로 6조 조계혜능 대사이다. 나무꾼 노혜능의 아버지는 본래 북경 근처에 말단 관리를 하다가 어떤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남해 신주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일찍 죽고 말았다. 가장이 죽으니 홀어머니는 숱한 고생을 하며 아들을 키웠고, 가난하여 혜능에게 문자 공부를 시킬 수 없었다. 그렇지만 혜능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꾼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나무를 사서 여관으로 날라다 주고 나오는 길에 문득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應無所住而生其心)."

혜능은 문자를 모르는 무식한 나무꾼이었지만, 왠지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무심코 경 읽는 손님에게 다가가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손님은 이것은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불경 중에 〈금강경〉이라 답했다. 혜능은 〈금강경〉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저 양자강 위 황매 오조사에서 홍인대사가 〈금강경〉 한 권으로 부처되는 법을 설하고 있으니 그리 가면 된다"고 하였다. 혜능은 동산 오조사로 가서 부처되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양해야 할 홀어머니가 계시니 큰 고민이었다. 그때 마침 한 부유한 불자가 혜능의 곤란한 사정을 듣고는 어머님 봉양케 하라며 은 100냥을 보시하였다. 이리하여 혜능은 외가에 그 돈을 맡겨 어머니를 봉양케 하고는 오조사로 출가의 길을 나섰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이 어떤 분은 혜능대사가 여관에서 〈금강경〉의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구절을 듣고 바로 깨쳤다고 한다. 바로 견성성불하여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최상승의 선(禪)일지라도 또한 천하의 혜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자거리에서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경전인지도 모르는 한 구절을 듣고 확철대오할 수 있다는 말인지. 의문이다. 〈육조단경〉의 기록으로 보건데 이것은 초발심(初發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나도 부처가 되어 머무는 바 없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첫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혜능은 부처가 되고자 선지식이 있는 동산 오조사로 길을 나섰다.

〈불교인재원 교수〉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희망 찾아 한국 온 몽골 소년에
부처님 가피 닿길

스님이 아이 이름 지어줄 정도로 불심 깊은 몽골출신 다와씨
아들 척추암이지만 수술 불가능해 한국행…혈액암도 발병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⑭ 싯달타 태자, 출가 막전막후



▶ 한줄요약

싯달타 태자의 출가가 시작된다. 그의 출가를 막고자 정반왕은 성문을 막고, 태자에게 향락을 제공했다. 하지만 태자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출가를 시도하자 천신들은 가호를 내려 성 안 사람들을 잠재웠다.

태자 출가 시도에 천신 가호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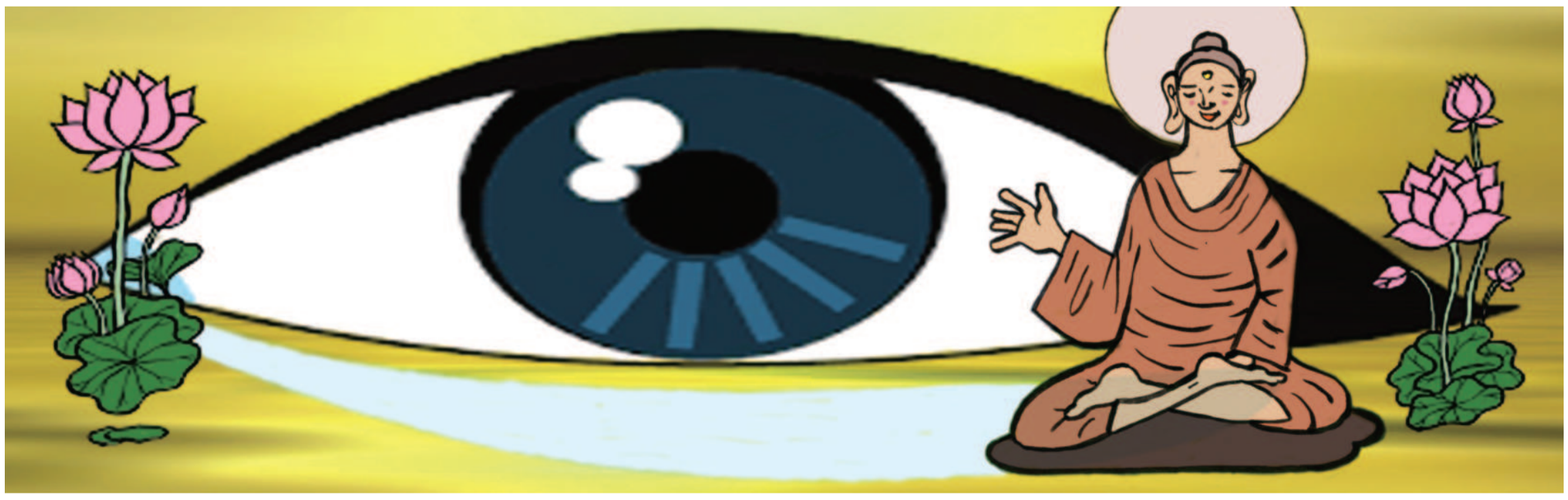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출가에 관련하여 세 번째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제 드디어 출가를 하는 날이 다가왔다. '출가(出家)'는 그야말로 '집을 떠나는 일'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출(家出)과도 비슷한데 불교에서는 '번뇌에 얽매인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수행생활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우바새, 우바이처럼 세간의 불자인 '재가(在家)'의 대립어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집을 떠난다. 필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출하고 싶었다. 화가인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숨도 못 쉬는 집안에서 자란 나는 정말 혼자이고 싶었다. 게다가 당시 집이 서울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일곱 식구만 살 일이 별로 없다는 것과 동의어였다. 지방에 사는 온 일가친척이 늘 일이 있거나 일을 하러 서울에 오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다. 다들 가난했지만 사람 사는 것 같고 정이 넘쳤다고 생각에 잠기지만 그땐 가출을 꿈꾸었다. 그러던 내가 정식으로 집을 나간 것은 동생들이 다 출가를 하고 난 뒤 남들보다 한 10년 늦게 결혼이라는 걸 하고서였다. 인생의 아이러니. 싯달타 태자와는 차원이 다른 나의 불발된 '집 나가는 일'의 추억이다.

싯달타 태자 출가 D-7

상사(相師)가 왕께 사뢰었다.

"이제까지 출가하지 않으셔서 이레가 지나면 전륜왕위로 자연히 오르실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시며 사병을 둘러 안팎으로 막으셨다.

관상가가 아버지 정반왕께 사뢰었다. 일주일만 지나면 전륜왕의 왕위에 오르십니다. 그날은 이월 초하루. 결사적으로 출가를 막은 보람이 있어 앞으로 이레 동안만 태자를 잘 지키면 되는 상황이다. 정반왕은 그 옛날 네 가지 군대인 사병(四兵) 곧 코끼리부대(象兵), 기마 부대(馬兵), 수레부대(車兵), 걷는 부대(步兵)를 시켜 성문을 안팎으로 겹겹이 굳게 막아 지키게 했다.

채녀들은 태자께 들어와 온갖 춤과 노래로 정재(呈才)를 하며 태자를 웃게 하며 갖가지 고운 모습을 지어 보이거늘 태자는 아무 욕심도 일으키지 않으셨다. 욕심은 탐욕의 마음이다, 한 채녀가 말리화만(末利花鬘)을 가지고 들어가 태자의 목에 매어드리니 태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보고 있으므로 그 각시가 도로 매듭을 풀어 밖에 내던졌다. 말리는 누른 빛이라 하는 뜻이다.

출가 일주일 전 곱고 아름다운 채녀들은 온갖 재능으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태자를 기쁘게 하려 애를 쓴다. 지금으로 치면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각 잡힌 칼 군무와 고운 노래로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걸그룹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출가 결심을 굳힌 태자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지도 즐겁지도 않은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한 채녀가 그런 태자에게 향기로운 말리화 꽃목걸이를 태자의 목에 매어주며 매력을 뽐내본다. '말리화만'의 '화만(華鬘)'은 '영락(瓔珞)'이라고도 하는데 꽃을 실에 꿰어 목에 걸거나 머리에 장식하는 것이다. 지금도 인도나 남방에 가면 환영의 인사로 걸어주기도 하고 아가씨들은 머리에 정성스레 장식하고 사원에 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태자가 그럼에도 미동도 하지 않자 화가 난 그 각시가 그 꽃다발을 다시 풀어 던져버렸다고 한다. 아마도 채녀들 중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녀가 매력을 뽐내면 어느 누구라도 매혹되지 않는 이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었을 태자에게 건넨 화만, 그것을 다시 내던진 그녀의 태도는 당차다 못해 목숨을 각오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내가 채녀였다면 어떠하였을까. 나는 나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였는데 보람은 커녕 무시를 당한 것이다. 종종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기곤 한다. 나로서는 정말 하느라고 했는데 시절인연이 맞지 않아서 너무 앞서거나 한 발 늦어서 어느 날 애써 만든 말리화만을 내던지고 싶은 때가 생기는 것이다. 대부분 용기가 없어 꾹 참고 살지만. 그러므로 나는 이 채녀 각시에게 흔쾌히 한 표.

사십구장

각시가 꾀려고 얼굴 곱게 꾸며 들어가 말리화만을 태자 몸에 매어드렸건만

태자의 덕(德)이 굳으시므로 눈깜짝하지 않고 바라보시니

채녀각시 말리화만을 도로 내다 버리니〈월천 18b〉

> **싯달타 태자 출가 막고자**
> **사병 통해 성문 철통봉쇄**
> **채녀들 온갖 향락도 제공**
>
> **결심 선 태자의 출가 결행**
> **천신 나서 사람들 잠 재워**

월인천강지곡은 위와 같이 노래한다.

채녀 각시 태자의 마음에 들려고 예쁘게 단장하고 고운 모습으로 말리꽃 화환을 걸어드려도 목석처럼 눈하나 깜짝이지 않고 그저 바라보시니 그 아가씨 말리화만 내다 버리네

싯달타 태자 출가의 날

2월 초이렛날 밤에 태자가 출가하실 시절이 다다르자 스스로 생각하셨다. 성문 밖에 나가 다니시던 해 2월이다.

'나라 이을 아들을 장차 배게 하여 아버님의 원을 이루었다' 하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게 방광을 놓아 사천왕과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비추시니 제천이 내려와 예경하옵고 사뢰었다.

"무량겁부터 하신 수행이 이제 와 익었습니다." 태자가 말씀하셨다.

"너희 말이야말로 옳타커니와, 성 안팎에서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노라." 제천의 힘으로 사람들이 모두 졸게 하였다.

싯달타 태자의 출가일은 2월 7일과 4월 7일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석보상절〉에서는 2월 7일설을 따르고 있다. 〈수행본기경〉에서는 태자가 19세가 되던 해 4월 7일에 출가하였다고 한다.

출가하는 날 후사를 이을 아들을 태어나게 하였음을 재차 확인하고 아버지 정반왕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다고 거듭 말한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방광을 하니 하늘의 여러 신들이 내려와 출가를 돕는다.

오십장

출가하려 하시니 하늘에 방광(放光)하시어 제천신(諸天神)이 내려옵니다

출가하실 때이므로 성(城) 안을 잠들게 재우려고 오소만(烏蘇慢)이 또 옵니다

〈월인천강지곡〉은 성 안의 사람들을 잠들게 하려고 '오소만'이라는 졸음의 신령이 등장한다. 구반다(鳩槃茶)라고 부르는데 가위눌리게 하는 신이라고 한다. 졸음의 신도 흥미롭지만 가위 눌리게 하는 신이라니 신선하다.

채녀들은 허공꽃 꼭두각시

변조리던 아름답게 꾸민 각시들이 다리를 드러내고 손발을 펴 버린 채 죽은 것같이 가로세로 누워있다. 콧구멍은 떼꾼하게 움푹 뚫린채 치켜져 있고 아랫도리를 감추지 못하고 자며 코와 침을 흘리고 오줌, 똥까지 싸며 코를 골고 빈 입을 씹는 시늉을 한다. 방귀를 뀌고 풍류하는 악기들을 부둥켜 안고 깔려 있거늘 그때까지 촛불이 죄듯이 밝게 비취고 있으니 태자가 보시고 이렇게 여기셨다.

'여자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로다. 분과 연지, 영락, 옷, 화만, 뒤꽂이, 팔찌로 꾸미고 있을 때는 보기 사나운 사람인 줄 모르고 속아 탐하는 마음을 내게 되니 지혜로운 사람이 정히 살펴 보면 여자의 몸이 꿈같으며 꼭두각시 같도다.'

인간의 실상을 목도하는 장면이다. '변조리다'는 고어사전에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앞뒤 문맥과 아름답게 단장한 채녀들임을 감안하여 해석하였다. '떼꾼하다'는 쑥 들어가고 생기가 없다는 뜻인데 보통 '눈이 떼꾼하다'고 쓰인다. 여기서 콧구멍이 떼꾼하다는 것은 누운 자세에서 콧구멍이 들린 채로 움푹하게 뚫린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았다. '오줌 똥'의 똥은 '찌'로 나와 있는데 '아끼다가 찌로 간다'는 속담의 '찌'로 해석하였다.

그밖에도 이제는 정확한 뜻을 모르게 된 우리 옛 표현들이 대방출된 이 단락을 나는 석보상절 3권의 백미로 꼽는다. 특히 '빈 입 씹다' 같은 표현은 잠꼬대하듯이 또는 아기들이 자면서 젖먹는 시늉을 하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는가. '뒤꽂이'로 번역한 것은 '곶'인데 꽂는 것을 의미한다. 비녀와 같은 꼬챙이로 머리를 장식하는 장신구로 보았다. 그리하여 비녀를 포함한 머리 여기저기를 장식하는 '뒤꽂이'라 번역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적나라한 추한 몰골을 형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쩌면 더욱 인간적이고 살아있는 표현이 많아 마음에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여인들의 허상을 깨고 본래 면목을 통찰하면서 꿈같고 꼭두각시같구나 라고 갈파한 구절은 두고두고 곱씹을만하다. 〈석보상절〉 원문에는 '곡도'라고 하였는데 이는 '환(幻), 허공꽃, 허깨비,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곡두'에 '각시'를 붙여 '꼭두각시'가 된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원효종

대한불교 원효종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

총 무 원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요산정사

요산 청암

종 정 성우 자윤 원로원장 혜륜 법진

종회의장 청산 태일 호법원장 영민 현응

종회의원 및 종도일동

법률고문 곽태철 (현 법무법인 대서양 대표 변호사 / 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TEL. (052) 238 8010

FAX. (052) 238 7010

※ 종도 등록 안내 : 분담금 및 등록비 없음. 등록 수 제한 있을 예정.

※ 2022년 1월 중 금강계단 수계 예정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⑧ 레이몬 교수



▶ 한줄 요약
레이몬 교수는 한국과 미얀마 사이의 보이지 않는 언어와 문화의 벽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양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 왔다.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이해도는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능력자다.

한국·미얀마어 통번역 기반한 문화적 가교



레이몬 교수는 한국과 미얀마 사이의 보이지 않는 언어와 문화의 벽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양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주한미얀마대사관 통역관으로 일하는 레이몬 교수.

미얀마 유학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미얀마어를 배우는 일이었다. 제2외국어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와는 다르게 미얀마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도 과외선생님도 교재를 찾는 일도 무척 어려웠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미얀마어를 잘 하는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편인데, 반대로 미얀마 사람들 중에서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간혹 한국인 비즈니스맨들과 미얀마 통역사 사이에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양측의 입장을 듣다 보면 결국 '문화 차이'에서 오는 서로에 관한 오해였다.

이러한 고충들을 직접 듣거나 마주하기 전까지는 '통역'이라는 일이 언어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통역을 정말 잘 하는 사람은 '언어'는 기본이고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사회 시스템과 대화법'까지 잘 아는 사람이며 이러한 폭 넓은 이해가 바탕이 된 통역이 될 때 의뢰인과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간혹 '한국어는 잘 하지만 한국 문화는 잘 모르는 미얀마 사람보다는 한국어는 좀 서툴러도 한국 문화를 잘 아는 통역사를 소개해 줄 수 있니?' 라고 요청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매우 난감했다. 왜냐하면 그런 통역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자신 있게 추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번 칼럼의 주인공인 레이몬 교수이다.

그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첫 미얀마어 교재 때문이었다. 많지 않은 미얀마 교재 속에서 그의 책은 초보자가 포기하지 않고 알기 쉽게 미얀마어를 배울 수 있게해 준 유일한 책이었다. 한 번 쯤 만나면 직접 미얀마어 수업을 요청하고 싶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주한미얀마대사관의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어 부탁을 해도 바쁜 업무로 인해 들어줄 수 없었다. 한 번은 그와 함께 미얀마어를 하는 한국인 채용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비로소 소문으로만 듣던 그의 진가를 몸소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만나고 일했던 미얀마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소소한 문화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와는 단 한 순간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12년 전 한국에 오기 전 코이카에서 미얀마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한국 드라마의 번역가로 1년 반 정도 일했다. 만약 그가 드라마의 번역가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미얀마 사람들 마음에 한국 드라마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할 정도였다. 2008년도에 한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 입국하여 석사과정을 마친 후 주한미얀마대사관에 한국어 통역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전액장학금을 받았다. 박사과정을 작년에 졸업한 후에 현재는 한국의 모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새롭게 시작했다.

한국에서 미얀마의 불교문화에 관해 발표할 기회가 생기면 발표자료를 만든 후에 꼭 그에게 감수를 부탁한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추가하면 좋을 내용을 말 해준적이 있다. '재희씨, 미얀마에서는 왜 일찍 점심 준비를 하는 줄 알아요?' 라는 질문에 '아침식사를 일찍 해서 그런가요?' 라고 대답했다.

"불단뿐만 아니라 스님들에게 점심 공양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점심 준비를 이르게 해요. 집마다 불단이 있고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집의 일상이 비슷해요. 주 2회마다 꽃을 사서 불단에 꽃 공양을 하는 것도 모두가 하는 일이며 사찰에 가지 않아도 대표적인 불경을 보지 않고 독송할 정도로 생활화되어 있어요. 매일 잠자기 전에 불단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도 부담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예요. 재희 씨에겐 당연한 미얀마 문화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빙그레 웃으며 이유를 설명해주는 그의 대답에 미얀마 일상생활은 '삼보(三寶)'를 예경하는 마음과 함께하는구나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미얀마 쿠데타가 터지면서 그와 대화를 나눌 일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쿠데타가 터지면서 제일 속상했던 점은 미얀마의 고승으로 유명했던 한 스님이 살생을 무자비하게 일삼는 군부의 편으로 돌아섰을 때다.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미얀마 문화 속 불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현대적 의의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 미얀마 불교문화가 현대사회를 이끄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양날의 검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불교적 가치관은 미얀마의 국민성을 느긋하게


한국서도 미얀마 민주화 위해 노력하는 레이몬 교수.

유학 준비중에 힘들게 찾은
미얀마어 학습 교재의 저자
언어와 문화적 이해 필수적
통번역계 손꼽히는 '능력자'

한국드라마 번역 담당으로
한류열풍에도 크게 기여해
"불교 강점은 마음의 평화"
일상에서 꾸준한 명상당부

하고 욕심을 덜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있어 국민의 열정과 노력이 한국에 비해 천천히 진행되는 면이 있어요. 한국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의 마음의 병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미얀마 사회에서 불교 사상은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데 반해, 진보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는 데 지장을 주는 면도 있어요. 두 나라의 장점을 서로가 배우면 단점이 상쇄될 것 같아요. 미얀마인들은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은 열정이 대단한 국민성을 갖고 있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대신 한 가지를 잃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균형' 입니다. 균형 또한 불교의 가치입니다. 때로는 '방하착(放下着)' 하는 마음을 수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서양의 유명한 기업인들도 명상을 이제서야 시작하는 걸 보면 경제성장과 마음성장을 균형있게 이루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어느 가치에 좀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미얀마 불교문화가 갖는 현대적 의의가 달라 질 수 있음을 그의 대화를 통해 생각할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불교문화 속에서 현재 미얀마 상황과 세계의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가치가 있다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바로 '평화'였다.

"불교가 주는 가치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패배속에서 나를 구하는 돌파구이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데 불교의 수용 정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미얀마 사람들은 패배해도 극단적인 방법을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불교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수용을 배우게 되고 순리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심적으로 의지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게 좋다면 좋은 건데 단점으로는 무조건적인 수용은 발전이 없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을 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존경하는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저는 파욱 스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재희 씨도 기회가 되면 멀르먀잉 파욱 명상센터에서 명상체험을 해보세요. 파욱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사람을 멀리하시고 과시를 싫어하세요. 그리고 유명세를 타지 않으시고 신념에 따라 평생 일관된 가르침을 보여주시고 욕심이 없으셔서 입니다. 제자에게 사찰을 맡기시고 권한을 주고 사찰 운영에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그리스 로마신화에는 신과 인간들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다. 레이몬 교수와 대화를 하면서 그가 한국과 미얀마 사이의 보이지 않는 언어와 문화의 벽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양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선사는 도심에 없고 사람이 드문 깊은 산골에서 수행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이해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미얀마 쿠데타 상황이 인과법에 따라 종식된 후 그가 추천해준 파욱 명상센터에 가서 명상을 하며 그와 나눈 대화를 추억하며 웃는 날이 오길 기원해 본다.

〈양곤대 박사과정〉





〈법화경〉공덕으로 천안통 천이통 얻어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㉘ 육근의 공덕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常精進) 보살마하살에게 이르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거나 외우며 해설하거나 쓴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눈의 800 공덕과 귀의 1200의 공덕과 코의 800 공덕과 혀의 1200 공덕과 몸의 800 공덕과 의근(意根)의 1200의 공덕을 얻게 되리니 이러한 공덕으로 육근을 모두 장엄하여 청정하게 하리라.

이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육안(肉眼)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안팎에 있는 모든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게 될 것이며, 아래로 아비지옥과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의 온갖 중생과 그들의 업연(業緣)과 과보로 태어나는 곳을 다 보고 알게 되리라.

또 상정진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며 해설하거나 쓴다면 귀의 1200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귀로 삼천대천세계의 아래로 아비지옥,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온갖 말과 소리를 들으리라.

요약해 말하건대 삼천대천세계의 안팎에 있는 모든 소리를, 천이통을 얻지 못하고도 부모가 낳아준 보통의 청정한 귀로써 모두 듣고 알 것이며, 이렇게 온갖 소리들을 분별하여도 귀가 상하지 않게 되리라."

'법사공걱품' 에는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서사 해설하는 인연으로 육근공덕(六根功德)이 완전하게 된다는 내용이 설해져 있다. 육근공덕은 〈능엄경〉에도 설해져 있는데 최극(最極)의 수준에서 발휘되는 각 근(根)의 기능을 말한다. 여기에 공덕의 수치를 800과 1200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눈의 800 공덕과 귀의 1200 공덕이 수치의 극점에 이르러, 천안통이나 천이통이 아닌 부모에게서 몸 받아 태어난 얼굴의 눈과 귀로도 천안통과 천이통 같은 보고 듣는 시청(視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초능력 이야기로 여겨지는 말인데 육체적 감각이 본래 특정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가령 사람마다 시력이 다르다. 시력뿐만 아니라 청력, 냄새를 맡는 능력 등이 제각기 다르고 동물이 사람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다. 또 사람의 시력이나 청력이 인종(人種)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수도 있다 한다. 경의 말씀은 이러한 정도의 차이가 아닌 육근의 본래 공덕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화경〉 전체의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말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승묘법(一乘妙法)이다. 일승묘법이란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우주의 통일적인 진리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조화통일을 이룬 하나의 이치다. 〈법화경〉은 이것을 설한 경전이다. 둘째 구원실성불(久遠實成佛)이다. 인격적 생명으로서의 부처님은 언제나 인간 현실의 생활환경을 뛰어넘어 초월적 존재로 계신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오온(五蘊)으로 화합된 육체적 생명이 아닌 법신의 생명으로 이 법신이 의인화된 인격이 부처님이다. 셋째 보살행(菩薩行)이다.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문이라고 경문에서 밝혔듯이 현실 속에서의 해야 하는 인간적 활동을 보살행으로 설명했다. 보살행이란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서로 이해하며 도우며 협동하여 살라는 말이다. 이 세 가지가 '법화사상'을 이루어 시대에 따라 연구되고 그 교설이 발전되어 왔다.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논서인 용수보살이 지은 〈대지도론〉과 견의보살(堅意菩薩)이 지은 〈입대승론〉 그리고 세친이 지은 〈법화론〉 등에 〈법화경〉을 인용 주석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이 논서들은 본래 인도에서 저술된 것들이지만 범본이 유실되고 한역본만 전해지고 있다.

법화사상은 중국에서 꽃을 피운다. 천태 지의(天台智顗, 538~597)가 법화사상을 완성하고 천태종이란 종파를 세운 이후 〈법화경〉이 크게 유통되었다. 대승경전의 삼대(三大) 경전인 〈화엄경〉은 불법(佛法)의 통일성, 〈법화경〉은 영원성, 〈열반경〉은 순수성을 설해 놓은 경전들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보살, 貪·瞋·癡에 물들지 않아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㉘ 재가 보살계

여러 대승 경론에서 보살계가 설해지지만, 대승 보살계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유가계(瑜伽戒)에 설해지는 삼취정계(三聚淨戒)를 꼽을 수 있다. 모든 보살을 대상으로 하는 보살계에는 3가지 구성요소인 율의계(律儀戒)·섭선법계(攝善法戒)·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보살은 불교교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깨달음을 위해 온갖 선을 적집(積集)해야 하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가 보살은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불가피하게 선교방편(善巧方便)을 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몸과 입으로 짓는 7가지 악행은 용납될 수 있지만, 악한 의지 또는 악한 마음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보살의 마음은 탐욕[貪]·성냄[瞋]·어리석음[癡]이라는 번뇌에 물들지 않아야만 한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면 중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섣불리 선교방편을 행해서는 안 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대승 보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재가 보살은 출가 보살과 달리 세속의 인연에 얽매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전이 바로 5세기에 담무참(曇無讖)에 의해 한역된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이다. 이 경전에서는 재가의 남성 신자인 우바새가 지켜야 할 계를 설하는데, 사위국(舍衛國)의 선생(善生)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에게 설해진 것이어서 '선생경(善生經)' 이라고도 한다.

언뜻 보면 이 경전은 초기불교 경전인 〈장아함경(長阿含經)〉 가운데 〈선생경(善生經)〉, 안세고(安世高)가 한역한 〈시가라월육방예경(尸迦羅越六方禮經)〉, 지법도(支法度)가 한역한 〈선생자경(善生子經)〉, 축법호(竺法護)가 한역한 〈대육향배경(大六向排經)〉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과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전에서는 재가 보살 중심의 보살계가 설해지지만, 〈보살선계경〉에서는 출가 보살 중심의 보살계가 설해지기 때문이다. 즉, 재가 보살은 6가지 중계[六重]를 지켜야 하지만, 출가 보살은 8가지 중계[八重]를 지켜야 한다고 설한다. 따라서 두 경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충하는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경전의 '수계품(受戒品)' 에는 재가 보살계의 수계작법이 보이는데, 여기에 재가 보살이 지켜야 할 계인 6가지 중법(重法)과 28가지 실의죄(失意罪)가 설해진다. 우선 재가 보살은 ①살생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②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며, ③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④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⑤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하며, ⑥술을 팔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경계(輕戒)에 해당하는 28가지 실의죄가 나열되는데, 여기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항목과 육재일(六齋日: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을 지키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요익유정계와 유사한 항목으로는 병든 이를 잘 보살피는 것, 구걸하는 이를 도와주는 것, 길 가다가 병든 이를 보거든 버리고 가지 말 것 등이 있다.

이 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분수(分受)라고 할 수 있는데, 재가 보살이 받아 지키는 계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즉, '만약 삼귀의(三歸依)를 받고서 1계를 받아 지킨다면 일분(一分)이며, 2계를 받아 지킨다면 소분(少分)이며, 3계나 4계를 받아 지킨다면 다분(多分)이며, 5계를 받아 지킨다면 만분(滿分)' 이라고 설한다. 이는 재가 보살에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지킬 수 있는 만큼의 계를 받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④ 괴로운 이 세상 어떻게 살까요?

괴로움 원인 버리는 실천해야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모두 다 괴로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苦海)라고 합니다. 3000년 전 석가모니부처님께서도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설산으로 출가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과 열반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아직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괴로움의 세상인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괴로움의 진리도 모르고 괴로움의 원인도 모르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괴로움의 진리와 열반(행복)의 진리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두 가지 진리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괴로움의 진리요 또 다른 하나는 해탈 열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윳따니까야〉에서, 괴로움의 진리를 벗어나 행복의 진리를 실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또한 "괴로움이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진리를 철저히 알고, 괴로움을 철저히 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괴로움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없는 상태', 즉 해탈과 열반의 행복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처님, 중생 苦 해결 위해 출가·수행·열반
괴로움의 진리 철저히 알고 철저히 소멸해야
중생은 부처님처럼 깨닫지 못해 苦 못 벗어나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운 고통의 삶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는 삶이기에 괴로움의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지어서 현재에 받는 과보임으로 연기법의 인과법칙에서 볼 때 괴로움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괴로움이 모두 소멸된 완전한 열반의 자리, 궁극적 열반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역시도 괴로움의 원인들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실상의 자리, 진리의 자리, 열반의 자리 그 자리도 역시 인과법칙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는 괴로움의 진리세계와 열반의 진리세계라는 두 가지의 진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영원한 행복세계인 열반의 진리세계는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괴로움의 진리세계만 겪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청정도론(淸淨道論)〉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알아야 할 바인 고성제(苦聖諦)를 알았고, 닦아야 할 바인 도성제(道聖諦)를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인 집성제(集聖諦)을 버렸기 때문에, 바라문이여, 나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괴로움의 진리를 완전히 아시고 또한 괴로움의 원인들을 철저히 버리는 올바른 수행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어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인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도 괴로움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버려야 할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리지 못하고, 괴로움의 원인들을 소멸하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지 못하고 중생이 되어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괴로움을 벗어나 참다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처럼 괴로움의 진리와 열반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괴로움의 원인들을 철저히 버리는 올바른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왜! 스타급 가수들의
전용 마이크가 일억이 넘을까요?....
그것은 저급한 시설에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가 매우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 마이크 하나만 바꿈으로 소리를 몇배의 성능으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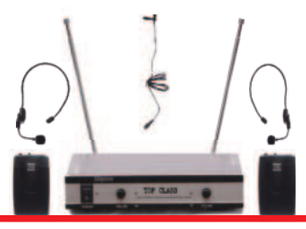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58만원

시중에 없음



마이크만 구입 가능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50호 | 13 | 전면광고

계행을 가지는 것 즐거움이니 몸으로 모든 고통 받지 않으며 잠을 잘 때 편안을 얻게 되고 깨고 나면 마음이 환희하나니.



부처님 말씀 읽기 - 《열반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속성 5개월 과정 •한문 몰라도 됨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불 교 용 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신문사 양도

• 등록된 ○○신문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종단, 연합회, 사암에서 신문사 운영하실 분
010-5412-8040

사주명리학·성명학 수강생 모집

❊ 3개월 완성 ❊
❊ 왕초보자 환영 ❊
1:1 특별과외도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2~3회 강의
강의 장소 : 부산시 또는 경주시
※ 카드결제가능
010-2523-777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검 색★
G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부전스님 모십니다.
팔공산 갓바위 근처
010-4766-3200

공양주 모심
숙식제공
포천 천주사
010-3220-2915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지
성취시키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易(역) 수강생 모집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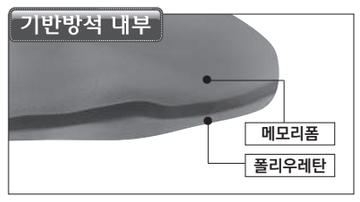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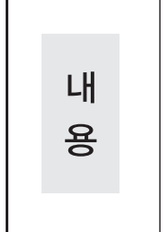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50호 | 14 | 전면광고

아름다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듣는 이로 하여금 목욕을 한 듯 상쾌하게 한다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매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올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대지 230 평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가액: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15년 기반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2층건물, 옥상 60평 사용
●보증금 1000만, 월세, 관리비 60만원
●일체 인수 가능하신 분

010-3452-11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가액 : 11억

010-4547-0023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인천 사찰안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합, 사찰연력 40여년)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기도 도량 안내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가액 : 4억(협의가능)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위치 : 대전 중구 보문산5거리 (당산나무옆 2층)
●시설 : 삼불전, 약사전, 요사채(2) 42평
●권리금 : 1천5백만원(바로 법회 가능)
●임대보증금 : 3백에 월 30만원, 절 이전으로 시설권리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음.
●서기가 있어 영험한 기도도량입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절 보문산 지장사

주지 무진 010-3049-5816

사찰(급)안내

●위치 : 부산 동래구
●부지 : 1천평(또는 4백평)
●가액 : 상담(방문)후 결정
●부산 최고 명당자리
●전시컨벤션 ●복지시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대지 : 350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가액 : 4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0-7710-8334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 안양시 관악산 (관악산 둘레길 참배객 많음)
●대지 : 360평 외 국유지 약 200평
●건물 : 6동 외 미륵전
●가액 : 18억

010-5330-8599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내
●대지:100평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전.월세가능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807-0509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불교용지760평, 대지800평, 전체 계획관리
●대웅전, 연못, 요사채, 산신각, 대형휴게실, 대형 찜질방3개, 종각, 전각8채, 감곡천척역10분, 대웅전 대형 잔디광장, 요사채별장, 대형정원, 전원주택별장은 신축, 540평 건물, 정원 연못, 생광석 찜질방 다양하고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양원하고 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상담 : 이미정

010-5883-2255,010-3564-6881

암자 안내

●위치 : 해인사초입고령
●조립식법당 약10평 요사채 약25평, 방사겸 창고2, 176평 밭40평, 주차5~6대가능
●1억4천 대출5천 안고 9천인수가능

010-4687-1483

사찰터 안내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구 산30-3
●임야 12,429㎡, 가액 1억 8천 8백이면 사찰 판넬로 건물 지어줄수 있음
●농림지역, 전기, 도로 포장되어있고 토굴, 암자터 최고, 두릅나무 심어져 있음

010-5454-8315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전망좋은 사찰
●대지 : 280평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
●많은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가액 : 10억 5천만원

010-3269-1023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2층 독채 40평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
●시설금 1천3백만원
●시설완비

010-8567-3667

포 교 원 안 내

●부산 수영구 광남로(50평 이상)
●3층 건물/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약사부처님 3자반/일광월광/호신불 약사 관음 108불/영단/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보증금 1천만원/월세 70만원 (시설비 3천만원)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사찰 안내

●위치 : 창원시 진해구 탑산 밑(중앙시장 300미터) ●대지 : 220평-법당15평, 요사채 20평, 텃밭 80평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 에어컨 5대, 냉장고 3대, 신도 약 200명, 공기좋고 조용함, 즉시 법회 가능 ●가액 : 전세 5백만, 월세 30만 시설비 2천만(절충가능) (스님이 산청군으로 이사를 감)

010-5229-8445

포 교 원 안 내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1층 : 93.3725㎡(방음시공)
●법당, 방1, 공양실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권리금 20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炎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이 시대 진정한 행복과 수행

물질은 풍부하지만 마음은 가난하고 사찰은 아름답지만 수행은 부족합니다. 몸은 겉으로 보기엔 튼튼하게 보이지만 속은 기운이 없고,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지만 다들 행복하지 못해요. 배운 것은 많지만 지혜가 없고 머리는 좋지만 가슴은 아파요. 가까이 살지만 마음은 멀고 함께 있지만 외로워요.

많이 먹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 없이 살지만 꼭 행복하지만은 못해요. 더 편안할수록 더 까다롭고, 선택할 것이 많을수록 맘에 드는 게 없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요.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 명예, 쾌락만을 좇고 있어요.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 무수한 이 시대는 행복도 수행도 뒷받침을 못해 줍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하는 기술이 결국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사람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더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자발적인 가난, 선택하는 불편함, 자연과 함께하는 간소한 생활이 행복한 삶을 가르쳐줍니다. 기술만능주의로부터의 휴식과 도파민의 단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공부가 답이며 이것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복잡한 수행을 못합니다. 핵심적이고 간결한 수행이 적합합니다.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⑭ 여름의 차 백차

1년이면 차, 3년이면 약, 7년이면 보물

중국 역사에서 수많은 황제들이 차를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 차를 가장 귀하게 여긴 애차인을 꼽으라면 송나라 휘종과 청나라 건륭제입니다. 황제의 자리에서 온갖 명차를 다 음미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애호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건륭제가 가장 좋아한 차는 보이차였습니다. 그럼 휘종이 가장 좋아한 차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차였습니다. 송나라 휘종은 차에 관한 전문서적 〈차론(茶論)〉을 썼는데 휘종이 마신 백차는 이러했습니다. "백차는 독특한 품종이다. 다른 차와 전혀 다르다. 잎이 보석처럼 얇고 투명하고 깊은 산 절벽에 한두 그루 우연히 자랄 뿐 사람이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백차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차나무도 몇 그루 안 되고, 찻잎의 수확량도 너무 적은데다가, 한 번 실수하면 찻잎이 망가지니, 귀하디 귀하기가 보물같은 차이다."



더운 여름에 마시기 좋은 백차.

백차(白茶)는 흰 백에 차 차를 써서 백차, 화이트 티라고 합니다. 불을 거치지 않았다 해서 백차라고도 하고, 흰 솜털이 찻잎에 가득 덮여있다 해서 백차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차를 만들 때 찻잎을 비벼서 향기분자를 터트리기도 하고 또 불에 여러 번 덖어서 불맛을 입혀서 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백차는 찻잎을 비비거나 불에 덖는 과정이 없는 차입니다. 찻잎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펼쳐 말리고 70~80도의 은근한 불로 건조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맑고 산뜻합니다. 여름에 가장 마시기 좋은 차입니다.

"백차는 1년이면 차로 마시고, 3년이면 약이고, 7년이면 보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차로 마셔도 좋고 오래 익혀서 마셔도 좋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백차를 오래 보관할 때는 보이차처럼 증기를 쐬고 맷돌로 눌러서 병차(둥글게 압착한 차)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 된 백차를 노백차라고 하는데, 간혹 마시는 분의 몸과 맞으면 오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백차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카테킨 함량이 가장 높은 차이며 몸의 체열을 내려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 피부를 좋게 해줍니다. 백차는 누구나 마셔도 좋고,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분, 수험생, 몸에 열이 많은 분, 또 명상과 채식 등 수행하는 분들이 드시기에도 좋은 차입니다.

백차는 크게 4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최상급이 백호은침인데 일아(一芽), 싹으로만 만듭니다. 백모단은 일아이엽(一芽二葉), 하나의 싹에 두 잎으로 만들고, 공미는 잎이 3엽 4엽까지 포함된 원료로 만들고, 수미는 잎과 줄기부분이 섞인 원료로 만듭니다. 모든 차가 다 그렇지만 백차는 더욱 더 원료가 중요합니다. 찻잎이 크고 토실하고 표면에 솜털이 많은 품종으로 백차를 만듭니다.

백차의 양대 산지는 복건성 정화와 복건성 복정입니다. 복건성 정화(政和, 정허)는 송나라 때에 어차원(御茶園)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당시 관예현 산 정상에 야생 백차나무가 있어서 백차를 공차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원 1115년 봄날에 관예현에서 찻싹으로 '백호은침' 차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휘종에게 바쳤습니다. 휘종이 차를 음미하고는 너무 기뻐서 용안이 활짝 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휘종은 백호은침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당시의 연호인 정화(政和,1111~1118)를 관예현의 이름으로 하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복건성 복정(福鼎, 푸딩)이 백차 산지로 가장 유명합니다. 복정 태노산(太姥山, 타이무산)에는 차를 만들다가 날개가 달려 하늘로 올라간 여신의 전설이 있습니다. 차의 여신(茶姥)이 만들었다는 차는 '녹설아(綠雪芽)' 입니다. 녹색 찻싹에 눈이 내린 듯 하얀 백호가 빼곡히 덮였다는 이름을 보면 백호은침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태노산 홍설동에 가면 녹설아 모차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녹설아는 복정 백차의 기원입니다. 태노산의 노(姥)는 여신, 할매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타이무산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태노산으로 불러보는 까닭은, 지리산 노고단처럼 여신설화가 남아있는 많지 않은 산이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노고단의 마고여신 또는 삼신할매도 지리산 찻잎으로 차를 만들어 사람을 살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오늘날에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백차를 구해서 마셔볼 수 있지만, 십수 년 전만 해도 백차는 차교과서에는 있지만 실제 마셔본 사람은 별로 없는 귀한 차였습니다. 중국에서 1980년대~1990년대 이후에 출생한 빠링허우, 지우링허우의 신흥부자들이 좋아하는 차로도 알려진 백차, 그래서 여유롭고 낭만적인 나날을 보낼 때를 특별히 '백차를 즐기는 여유로운 시절(白茶清欢无别事)' 이라고 부르는 관용구가 유행했습니다.

백차는 햇차일때는 꽃향기가 폴폴 날립니다. 진한 꽃향기가 아니라 풀내음을 머금은 야생화 들꽃향기입니다. 신선하고 청초합니다. 수색은 옅은 미색입니다. 3년이 된 백차는 약초향기가 납니다. 여러 가지 약초에 쑥향, 계피향, 대추향이 섞여 향긋하고 달큰하고 편안합니다. 수색은 좀 더 짙어진 황금색입니다. 노백차는 한약향기가 진합니다. 이름 모를 약초들이 잘 숙성되어 보약처럼 발효된 향기입니다. 수색은 윤기품은 황갈색입니다. 노백차를 마시면 몸에 열기가 후끈 돌면서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여름의 차 백차는 냉차로도 마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차는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더위로 지치는 여름에는 차가운 백차도 일품이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 듯이 백차를 진하게 우려서 얼음 컵에 따릅니다. 얼음 위에 뜨거운 찻물이 닿으면서 드라이아이스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담긴 차가운 백차 한 잔이면 삼복더위도 문제없습니다. 갈증도 한방에 날려 보냅니다.

〈잇다it茶 대표〉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굿바이, 분노

▶ 한줄 요약
미워할수록 '사랑'하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용서의 첫 걸음은 '찬탄'



찬탄이라는 선물

용서는 분노와 원망을 해결할 때 가능해집니다. 용서의 힘이 큰 사람에게 이미 일어난 분노는 해결하기 쉽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노는 예방됩니다. 용서의 힘이 크다는 것은 열린 마음인 보리심에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이는 무수한 존재들을 마음에 담고 사랑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큰마음을 지닌 존재에게 매력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가 좋은 점을 갖고 있어서
남들이 칭찬하고 기뻐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함께 칭찬하며 기뻐해야 하리라.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이 기쁨은
나무랄 데 없는 행복의 원천이므로
공덕을 가지신 부처님께서 증명하시는
남들을 끄는 최고의 방법이라네. [6:76-6:77]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원한으로 묶이면 두려움을 증폭시켜 열린 마음조차 닫히게 하지만, 은혜로운 인연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두려움의 벽을 녹입니다. 부처님의 열린 마음을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은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인복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수많은 존재를 포용하는 수행법으로 사섭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애어섭(愛語攝)이라는 수행은 주로 누구나 듣기를 원하는 찬탄을 활용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상대에게 선물해야 한다.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이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찬탄이라는 선물을 어머니 중생들에게 건네줄 필요가 있습니다. 찬탄은 그들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북돋아 주는데, 이는 불안과 불만을 줄여줘서 분노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이 찬탄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 어떤 비싼 약보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잘 치유하여 중생의 고통을 덜어 줍니다. 또한 중생의 닫힌 마음까지도 열어주니 그 자체만으로도 주고받는 모두에게 행복을 전해줍니다. 보살의 마음을 배우는 이들은 중생을 찬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훌륭한 찬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열리지 않은 인색한 마음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칭찬을 받는 순간,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질투하고 화를 냅니다. 조금만 연습이 되어 있어도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번뇌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행복에 관심이 없으며
그들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금생에도 내생에도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네.
자신의 좋은 점이 칭찬받을 때는 남들이 기뻐해 주기를 바라면서
남들의 좋은 점이 칭찬받을 때는 기뻐하는 데에 인색하다.
그대는 중생의 행복을 위해 보리심을 일으켰으면서
중생이 스스로 행복을 구하는데
어찌하여 기뻐하지 않는가. [6:78-6:80]

분노를 다스려서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다짐한 우리는 이미 일대사인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광대한 모든 중생을 최고의 행복으로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켜서 다른 이들에게 칭찬받고 있다면, 내가 할 일을 그들 스스로 해낸 것이니 기쁜 일 아닌가요? 중생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서 보살의 일을 도와줬기에 그들을 질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칭찬을 받더라도 보살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번뇌와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지혜를 활용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지닌 원한은 원한이고, 장점은 장점이니 여전히 원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찬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사람이 가해자라는 착각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도 그저 분노에 피해를 본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고통의 원인을 단 한 곳에 묻는 습관을 지녀보세요. 행복을 파괴하는 범인은 오직 분노입니다.

> 미워할수록 '선물'하라
> 내마음의 평안이 중요
> 행복의 파괴범은 '질투'

원수에게 선물하는 용기

마음에 불이 날 때 그 불을 원수에게 옮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복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불을 끄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선물하면 됩니다.

만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삼계에서 예경받는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다른 사람이 존경과 보살핌, 혹은 보시하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그대는 그렇게 괴로워하는가. [6:81]

2005년을 시작으로 한 '자비도량 만일정진' 모임이 있습니다. 100일마다 정진 주제를 바꿔 수행하고 있는데 때때로 참회의 힘을 키우는 수행인 〈자비도량참법〉을 텍스트로 수행을 하곤 합니다. 한번은 함께 수행하는 스님들과 법우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싫어하는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줘보세요."

이것이 바로 가장 쉽게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조차 원수에게 선물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관념입니다.

'그 사람이 선물을 받아 주겠어?', '선물을 하면 정말 원한이 사라질까?'

그리고 선물을 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고르고 전달하기까지 내내 끝없는 저항들이 올라옵니다.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선물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선물하는 행위에는 '내 편인 상대방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원한 때문에 자기모순에 의해 마음이 혼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저항을 극복하고 선물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싫어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대가 양육해야 할 누군가가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될 때
그대는 기뻐하지는 못할망정,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중생들을 위해 이것조차 바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랄 수 있으며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화를 낸다면
보리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6:82-6:83]

사실 어떤 물건을 선물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원수가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만큼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 그것은 빠르게 원한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그 난이도가 지극히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리심을 지닌 보살이 방법을 묻는다면 원수에게 진심어린 찬탄을 선물해보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보살은 일체중생을 책임지고 깨달음을 증득하겠다는 목표를 지녔기 때문에 이 조언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깊고 광대한 보살은 좁고 어려운 길을 배우면서 높은 저항감을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보살은 마음이 분노의 불에 타고 있을 때 원인이라고 우기고 싶은 가해자를 찬탄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일체중생을 구하겠다는 다짐은 뜬구름 잡는 말이 될 뿐입니다. 원수를 칭찬하지 못하면 비난받아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원수라는 중생을 마음에 품는 보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살의 위대한 선택과 어울리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잘하지 못하더라도 보살은 반드시 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하는 마음이 충분해지면 보살의 난행을 시도할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남의 것까지 집착한다면,

분노의 한 축인 불만은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착이 심해지면 심지어는 남의 것에도 집착하고 불만을 품는데, 이것은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착각하는 인지적 오류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그 보시를 받았거나
보시하려던 사람의 집에 공양물이 남아 있어도
그것은 그대의 것이 아닌데
그걸 주든 안 주든 무슨 상관있는가. [6:84]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물건보다 공덕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물건은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지만, 공덕은 우리가 오랜 시간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공용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남에게 선물 받는 장면을 목격할 때 우리는 이상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실수는 내 것도 아닌 남의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대한 집착과 분노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얻은 소중한 공덕조차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생긴 번뇌의 흐름을 용서하고, 질투와 분노의 감옥에서 자신을 풀어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보살'이니까요.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목청관 소장 한국 근현대 불교 자료1



한글대장경의 역사는 운허 큰스님을 기억한다

운허 큰스님의 한산시와 남은돌 모둠

운허 큰스님의 '한글 역주 한산시 선집'과 '남은돌 모둠 자료집' 이 한 재가불자의 노력 끝에 한 권의 책으로 엮여졌습니다.
한산 시의 원문과 풀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운허스님의 육필 원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허 큰스님은 화가 전혀 없으시고 이해가 전부더라. 큰스님의 곁에선 수행의 가치가 덕화로 피어나 그향기 그윽했다. **현해스님** (전 동국대학교 이사장)

참으로 진솔한 스님이셨다. 한결같이 맑고 겸손하고 상대를 존경하는 스님의 모델이셨다.
혜총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운허 큰스님은 한국근세불교의 3대 대강백(운허, 관응, 탄허)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명성스님 (전 운문사 승가대학장)

목청거사가 운허스님의 한산시 유고를 찾아내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근대 한국불교 교학의 기둥이셨던 운허 큰스님의 자취를 되새기는 경사라고 생각됩니다. **지안스님** (전 조계종 승가고시 위원장)

나라사랑 · 한글사랑 · 불교사랑의 운허 큰스님 일평생! 더 말할 것이 있습니까? **정우스님** (전 군종교구장)

엮은이. **김연호** | 펴낸곳 **맑은소리맑은나라** | 344면 | 값22,000 원

월간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본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22 동방빌딩B/D 전화 : **051-255-0263(244-0263)** **www.puremind-ms.com** **지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9 고려에이트리움 1613호



대행 스님

이왕 죽을 거라면 아예 죽든지 말든지 오로지 다 그냥 버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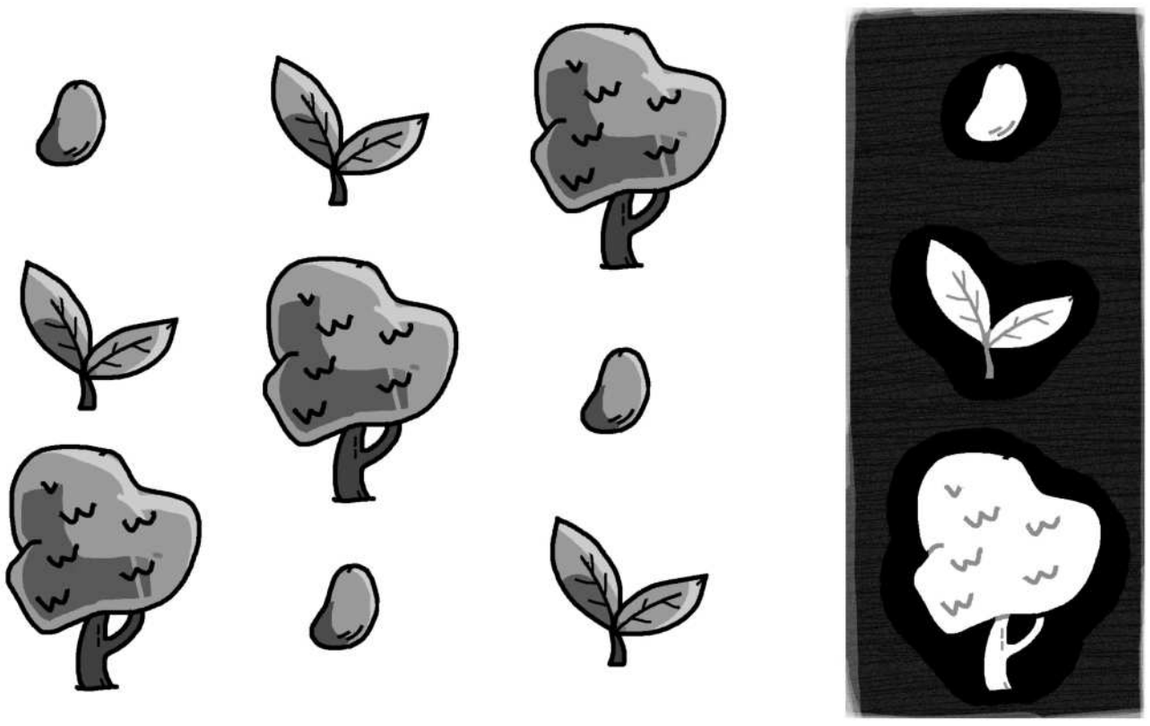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허공 에너지 끌어 쓰려면

질문 생활 속의 병고, 애고를 재료 삼아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주인공 자리는 전력, 자력, 광력, 통신력 다 갖추어진 에너지 창고이니 끌어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허공 에너지를 맘대로 끌어 쓸 수 있을까요?

답변 내가 예전에 산으로 다닐때 말이에요,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를 그냥 한발 디디라는 거예요. 그냥 평지처럼 디뎌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딛겠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그냥 그거 죽는 거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죽는 건데 이렇게 죽으면 어떠랴.' 하곤 그냥 한 다리를 떼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 그냥 한 다리 떼어 놓는 데로 떨어지면 그 돌에 부딪쳐서 그냥 죽을 텐데, 한 다릴 떼어 놓을 때 한 다리가, 이 발이 착 붙어요. 붙어서 두 번 떼는데 공중으로 그냥 떨어져요. 그런데 이만치 가서 떨어지니까, 어디 가 떨어졌느냐 하면 예전에 저, 나무 베어서 묶어서 쌓아 놓은 자리, 그 자리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에 무척 추웠거든요, 또.

아, 내려가서 보니까, 눈 쓱쓱 비비고 보니까 이런 나무 둥구리를 묶어서 이렇게 쌓아 놓은 거에요. 둥구리 하나를 싹 빼니까 거기 구녁이 뚫리잖아요. 아, 그래서 뒤로부터 들어갔죠. 뒤로부터 들어가고 앞에 그걸 이렇게 기대서 잡아당겨 놓으니까 얼마나 뜨듯하고 좋았던지 말이에요. 그때요,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떼어 놓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좋은 방도 못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떼어 놓고는 떨어졌으면 돌 이렇게 나온 그 저기에 이렇게 부딪쳐서 그냥 죽었을 거에요. 근데 한 발 떼어 놓으니까 그냥 딱 붙어요, 땅처럼. 그러고 두 발 이렇게 떼어 놓으니까 그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 나무 둥구리에 떨어진 거죠.

이 우리가 사는 게, 이것이 영화 하면서 막을 내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탤런트들이 영화 하고서 딱 물러나면은 그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다 하죠. 빠져 죽는 시늉까지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우리 삶도 영화인데 이렇게 살다 죽게 되면 죽는 거를 아주 원통하게 생각해서, 아프면 아픈 거를 원통하게 생각해서 그냥 착을 떼지 못하니까, 식구들이 떼질 못하니까 내던질 수가 없거든요. 내던지면 살 텐데 내던지질 못해요.

한 철 사는 거, 여러분들이 이래도 한 철 저래도 한 철 살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한 번은. 그런데 이왕 죽을 거라면 아예 죽든 말든 다 그냥 오로지 버리는 게 좋지 않아요? 버리고 버리지 않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냥 공했어요. 그냥 찰나찰나 우리가 여기 발 디뎌 놓고 떼어 놓는 거와 같아요. 하나 떼면 하나 없어지고 하나 떼면 하나 없어지고, 이거 보면 이거 없어지고 저거 보면 저거 없어지고, 이 사람 만나면 이거 없어지고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없어지고, 이거 먹으면 저거 없어지고 이렇게 모두가 되없어지는데 그거 없어지는 거를 왜 붙들고 늘어지느냐고요. 하루살이로 살지.

그렇듯이 이 세상이 다 공한 건데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공도 버렸을 때, 공한 것도 버렸을 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허공에서도 에너지를 끌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가 귀하다 이럴 땐 전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만들고, 용도에 따라서 뭐든지 그대로 그냥 보고 하고 그러는 거죠.

내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오신통을 다 알고 자기를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 왜냐. 목마른 사람이 죽게 됐는데 물이 여기 있는 줄만 알고 갖다 먹일 줄을 모른다면 그건 허탕이지 그게 무슨 도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고 후년에는 어떻고, 네 팔자가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이런 거를 다 안다 하더라도 그러지 못한다면 허탕이죠.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목마른 사람 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그거는 도가 아니니 도니 하는 그 난설은 다 필요 없고, 그것이 실천하는 바로 부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착을 놓는 것과 관하는 것

질문 착을 놓는 거와 관한다 하는 것이 같은 것인지요. 놓는다 놓는다 하면서도 착이 잘 놓아지지 않아서 답답해서 제가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싶습니다.

답변 관한다 이런 거는 놓으면서 믿음으로써 들어가는 겁니다. 놓는 거는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고요, 한군데다가 일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재료를 맷돌에 넣어서 갈려서 나와야 먹을 게 아닙니까? 그와 같이 관한다는 것은 자동적인 맷돌에 물건을 넣고 갈려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일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법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실 때에 걸어오셨죠? 한 발짝 한 발짝, 예? 걸어오실 때에 그 발자취를 걸머쥐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착이 됩니까? 이 세상살이는 만사가 다 찰나찰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정돼서 요건 요렇다 하고 집어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칙은요, 착도 없고 관도 없어요. 관도 놓고 착도 놓고 모든 것을 여여한 그대로…. 그것은 바로 물리가 터져야 됩니다. 이 세상살이가 그냥 본래 놓고 가는데 또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체가 돌아가는 자체, 공(空)해서 돌아가는 이치에서 그것을 주시하고 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관하고 돌아가니까 그것이 참선이 되는 거죠. 행선이나 좌선이나 입선이나 와선이 전부 한데 합쳐져서 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참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게.

그런데 왜 착이 거기 붙습니까? 아니, 답답한 것마저도 거기 붙지 않습니다. "공했다는 말 자체도 공했으니…." 이렇게 말이 들어가는 건데, 공했다는 자체, 공해서 없다는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없다는 자체도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착이 어째서 들어갑니까, 거기?

그래서 '앞도 뒤도 없다' 이러는데 이 뜻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싹이 돼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그 씨는 없어지죠. 씨는 싹이 돼 버렸죠, 벌써. 그 씨가 또 되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연방 과거는 없다는 얘깁니다. 과거는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은 공(空)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없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을 것이 없어요. 마음에 붙을 것이 있습니까? 모두 여러분이 지어 가지고 창살을 만들어 놓고 나오지 못해 애를 쓰고 그러는 거지, 그 마음에 뭐가 붙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 나오면서 관습에 의해서, 이사를 가면 뭐 동쪽으로 가야 되느니 서쪽으로 가야 되느니, 손이 달렸느니 발이 달렸느니, 하하, 또 삼재가 들었느니 온통 자기네들끼리 그 관습을 그냥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매달려 가지고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무것도 붙을 게 없는데…. 다들 안 그렇습니까? 참 이상스러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왜 그렇게 그 관습을 따라야 하는지. 마음에는 붙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지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떼지 못하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걸음을 걸어오거나 말을 하거나, 만나거나 먹거나 모든 것을 하면서 가정에서 살아도 그게 어디 붙을 게 있

☞ A18면으로 계속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관한다는 것은 놓으면서 믿음으로써 들어가는 것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습니까? 금방 "아버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돼 가지고 그냥 하고, 또 "여보!" 그러면 그냥 남편이 돼 가지고 금방 돌아가고, "얘,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이 돼 가지고 돌아가고, "아무개!" 그러면 친구로 돼서 돌아가고, 그냥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 그냥. 붙을 게 없이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힘이 부족하니까 마음으로 '아이구! 저 친구가 저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걸린단 말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는 게 걸리면 거기다 놓고 '둘이 아닌 까닭에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놓고 유하게 부드럽게 생각을 하면 내 마음 편안하고, 그쪽으로 이심전심으로 돌아가고, 사실이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놓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묘한 도리라는 게 뭐냐 하면 저쪽 사람이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쪽 사람이 '아유! 그러는 거 그저 주인공만이 풀 수 있어.' 하고 놓고 미워하질 않고 부드럽게 말해 주니까 아, 금방 그쪽에서 오므라졌던 게 펴져 가지고는 선물도 하고, 그냥 좋아지더랍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모르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 얘깁니다, 이렇게 쉬운 법을.

부처님께서 생활 속에서 바로, 과학이 따라갈 수 없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왜 자꾸 모른다고 합니까? 그리고 놓지 못하는 겁니까? 놓고 돌아가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걸리는 거예요. 다리 많은 돈벌레가 잘 가다가도 누가 말을 하면 꼭 걸리는 거예요. 하하하…. 여러분이 잘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고삐를 쥐고 소가 남의 파밭에 들어가거나 남의 농사지어 놓은 데를 들어가거나 이런다면, 고삐를 잡아당겨서 다스려 가면서 끌고 가야 되니까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라 이 소립니다. 잘못 나가걸랑은 다스리고, 잘 나가걸랑 감사하게 생각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봅니다. 그게 그대로 놓고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누가 붙들고 오셨습니까? 발자취를 지금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차가 굴러오는 거 지금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하하하…. 하여튼 자기가 자기를 발견해서 자꾸 계발을 해야 됩니다.

죽을병 걸렸을 때 어떻게…

질문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해서 늘 몸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끔씩 죽음에 대한 망상이 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죽을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처님 법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전에 여기 어느 거사님이 사흘을 못 넘긴다고 의사 셋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몸에 꽂은 거 다 빼고 죽든지 살든지 나갑시다." 하니까 말도 못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더군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무조건! 무조건 말입니다, 이유는 불문에 부치고 무조건 이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왜 그랬느냐. 상원사를 지을 때에도 그랬었지만 뭐든지 무조건이지 거기는 이유가 붙는 자리가 아니다 이 소립니다. 무슨 '어려워서 못살겠네, 죽겠네, 이것이 잘못됐네, 저것이 잘됐네' 이런 게 붙으면 그건 진짜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란, 여러분의 법이란, 그 묘하고 슬기롭고 진짜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눈은 샛별같이 떠지고 한생각은 불끈 솟는 그 무조건적인 생각! 예, 이런 것이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꼭 하겠노라!' 하고 주먹을 불끈 쥘 때, 마음속에서 정말 절절한 눈물을 흘리지마는 눈은 생동생동하게 더 똥그랗게 떠지고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는 이러한 그 '무조건'의 생각, 그겁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주인공이 해 주겠지.'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주인공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습니까? 그것도 관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 물리가 터져야 알 겁니다, 아마.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하는 거지.' 그게 관(觀)입니다. 또 지금 내가 무조건이라고 그런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꼭 해야만 되겠다 할 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거기에는 아무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망상은 끊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는 수련 재료이자 바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을 끊지 않고 여여하게 그대로 넘어가는 무조건! 망상을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니까 망상이지, 아니, 누가 망상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는지, 그것도 사람이 지어 놨지 누가 망상이라고 지어 놨겠습니까? 그것에 왜 흔들립니까?

줄창 말하지만, 이 세상에 누구나가 다 수억겁에 걸쳐서 엄청난 그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쓸리고 저기에 쓸리면서 진짜 부처님의 골수를 모르게끔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부처는 너무 가까워서 위 속눈썹하고 아래 속눈썹하고 똑같이 작용을 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기와 아주 가깝게 있으니, 멀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요새 암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암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만 끄달려 포기를 해 버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백혈병이라고 해서 포기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이 포기를 하니까 포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골수에 전부 병이 들어서 썩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벌레가 뼈를 긁어 먹는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럽니다. 병원을 여섯 군데를 다니면서 진찰을 해 봐도 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뼛속을 긁어 먹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면은 좋은데 모르니까, "그거는 긁어 먹는 병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감기 조금 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한 거니까 무조건, 이건 절대로 이런 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아주 작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어서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집을 팔고 땅 있는 걸 다 팔았습니다. 나중엔 정말이지 남의 행랑채에 들어 있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공부를 모르기 때문에 방편상 그렇게 한 거죠. 이 부처님 법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가 약입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야, 감자 한 관 살 돈은 있느냐?" 그러니까 있대요. 감자 한 관에 2천 원이래요. 그래 2천 원어치를 사 가지고 가서, 갈아서 즙을 내서 거기에 미숫가루를 멀겋게 타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맛있게 해 먹으려면 누런 설탕 사다가 가미해서 그냥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글쎄.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로 믿었던 겁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거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었죠. 자식들은 칠 형제나 되고, 쉰 살에 또 늦게 아들을 낳아 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살고 계시고, 쉰 살에, 늦게 낳은 그 아들의 덕을 보고 지금까지도 살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리송한 게 부처님 법입니다. 아주 정말이지 이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가끔 한 거사님한테도 그랬지만, 이렇게 해 본 예가 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보이는 세계에 나오는 모든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딱 진을 쳐 놓고선 '안 돼!' 하면 아예 그냥 못을 콱 쳐 놓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 예가 더러더러 있죠. 왜?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그 사람이 죽고 살고, 또는 '여기 믿으러 다녔는데 안 고쳐져서 어떡하나?'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말입니다. 이렇게 정립이 되고, 그 못을 박는, 정말이지 굵은 불바퀴를 그냥 콱 박는 그 마음은, 아마도 이 세상 다 없어진대도 그건 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참다웁게 아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법신(法身)이요, 불부처요, 산 부처요, 여러분이 화신(化身)이요, 법신입니다.

> **마음에 불을 것이 있습니까?**
> **모두 여러분이 지어 가지고 창살을 만들어 놓고**
> **나오지 못해 애를 쓰고 그러는 거지**
> **그 마음에 뭐가 불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글자도 붙지 않고, 이론도 붙지 않고, 더한다 덜한다, 이게 옳다 그르다도 붙지 않고, 가난하다 부자다도 붙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다도 붙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 뼈저린, 아주 진한, 바닷물을 다 모아서 한 방울이 되는 그 피 한 방울이 말해 줍니다.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계발해서 천체를 앉아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 스스로, 근본으로부터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절실한 일입니다.

칠층탑을 올리신 뜻

질문 선원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한마음선원은 다른 사찰과는 좀 색다르게 지붕 위에 둥근 원으로 된 칠층탑이 올려져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칠 탑도 여러분들의 몸과 같은 겁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을 깔죠. 허허허. 육 속에 진짜 주장자가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세우고, 그래서 칠성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 칠 탑이라고 그러는 것도 여기다 대도 맞고 저기다 대도 맞습니다만 칠 탑도 없고, 칠 탑이 한 탑이요, 한 탑이 칠 탑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에 그 모두를 질서를 정연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쓰는 것이지, 이 마음의 도리로서는 칠 탑도 없고 한 탑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탑이 많아서 '칠 탑이 있다, 한 탑이 있다' 이러지 않습니다. '삼 탑이 있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둥근 탑으로다가 이렇게 칠 탑으로 올린 것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요만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성취하라고 방편으로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방편 아닌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시에 거기 같이, 모두 응신으로서 거기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응신이 되고 보현신이 되고 법신이 되시고 부처님이 되시고 가만히 있으면, 그 탑도요, 가만히 있으면 칠 탑도 따로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내면 칠 탑이 있고, 또 둘 아닌 마음으로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부 보현신도 거기 계실 거고, 부처님도 계실 거고, 또 법신도 거기 계실 거고 다 그냥 이 허공에 다 계신 분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기 다 운집해서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그저 때에 따라선 거기에 계시고, 때에 따라선 여기에 계시고, 때에 따라선 부처님한테 계시고 그런 겁니다.

우리 이 몸뚱이 하나 속에도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공체죠. 그리고 또 공체로서 움죽거린다면 공용이지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나가 움죽거리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기 때문에 공용이죠. 그리고 공식이고요. 그래서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뚱이도 공체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보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먹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로구나. 그러니 나라고 세울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봤다고 할 게 뭐 있겠나. 혼자 들었다고 할 게 뭐 있나. 내가 산다고 할 것도 없다.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이 모두 공해서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붕에 칠 탑을 해 놓은 것도 여러분들의 바로 몸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체인 몸, 마루 공심인 마음, 공생인 생명, 공식으로서의 모두가 같이,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같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현불 논단 |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신라末 서라벌 사치 극에 달해
金입택만 35채… 30년뒤 멸망

서울 · 경기 전체 富 · 소비집중
화려함 뒤엔 상대적 궁핍 존재
現소비 용납하나 미래는 '외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 걸까
'서울=서라벌'이어서는 안 된다

신라 49대 헌강왕 대, 서라벌의 화려함은 극에 달했던 것 같다.

"제49대 헌강대왕(憲康大王) 때는 경사(京師)에서 해내(海內)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연이어져 있었으며,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풍악과 노래 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철마다 순조로웠다."

〈삼국유사〉 기이(紀異)편 '처용랑망해사' 조의 기록이다. 경주의 중심부에서 해내(海內) 곧 울산 앞바다까지 지붕과 지붕이 이어지고, 그 중에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니 그 삶의 풍요로움은 짐작할 만하다.

또 〈삼국사기〉 헌강왕 6년에는 "내가 듣건대, 지금 민간에서 집을 기와로 덮고 띠풀로 지붕을 이지 않는다 하고, 밥을 숯으로 짓고 땔나무를 쓰지 않는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왕의 말도 기록되어 있다. 기와집이 줄을 잇고, 땔나무 대신에 숯을 사용하였다. 신라 말기 서라벌의 번성과 사치스러움을 묘사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익숙한 구절이다. 사치하고 번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그 시기가 880년 무렵, 신라의 운명이 막바지를 향해 치달릴 때다. "서울의 호수가 178,936호(戶), 1360방(坊)에, 주위가 55리(里)였고, 35개의 금입택(金入宅)이 있었다"고 기록된 시점이다. 대략 80~100만의 인구가 모인 도시에, 귀족들의 사치스런 저택인 금입택이 35채나 되는 도시가 서라벌이었다. 그 소비량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왕은 그 번성함을 떠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던 그 도시는 불과 30여 년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다.

굳이 길게 신라 말기 서라벌 이야기를 거론한 것은,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반성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어서이다. 서라벌, 경주의 그 옛 이름을 오늘날에는 '서울'이 이어받았다. 그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재물(富)의 대부분이 몰려있다. 소비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서라벌이 서른다섯의 금입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쇠망의 길을 걸었다면, 오늘날의 서울은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의 아파트 단지와 주거비용에 허덕이는 사람들로 대부분을 채운다.

오늘날의 서울은 한껏 화려하다. 서울의 삶은 더욱 화려할 것이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화려함을 뛰어넘는 궁핍함이 가득하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의 끝자락에서 사치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신라의 서라벌이 헌강왕 대의 화려함을 끝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듯이, 우리의 서울도 그 화려함의 극치를 내닫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불과 50여 년의 산업화 과정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들의 번영을 만들어내었다. 그 끝이 어디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여주는 소비가 과도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소비하고, 화려한 소비습관의 뒤에 숨겨진 궁핍함은 외면한다. 우리는 각기 자신이 속한 세대가 얻은 성취는 응당한 것으로 치부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비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우리'의 소비하는 일상은 마땅하고 용납되어야 할 것이지만, '너희'의 일상은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치부한다.

북위(北魏)시대, 낙양의 사찰과 불상은 거대하고 화려했다. 크고 화려한 불상과 사찰이 궁핍한 백성들의 피와 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던 양현지는 "비록 경전과 불상을 만들었다고 하나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라고 지적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우리 다음 세대가 사용해야 할 것들을 당겨서 내 것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세대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세대의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서울이 서라벌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하여 말할 수 있을까.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이주노동자와 자살

코로나로 인해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러 사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자살은 가슴 아픈 사연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주민들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여러 사건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 법당 소식들에 의하면 교통사고, 근로재해, 자살 등으로 태국 50명, 스리랑카 30명, 캄보디아 40명, 베트남 50명 등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국에 와서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중 대부분이 20~30대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는 이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이민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었다면 이 목숨들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사망한 스리랑카 이주민들 중 10명 이상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살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없어지거나 본국 공항 폐쇄로 인해서 일어난 심리적 부담감, 우울증 등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마하위하라는 작년부터 몇 차례 자살예방교육, 안전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시작했습니다. 또 스리랑카 대사관, 정신과 의사 이성동 씨, 안성경찰서 외사계의 협조를 받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점을 깊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지역 대표들과 온라인 토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하위하라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주민들의 심적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포살 법회와 걷기, 명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템플스테이가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하위하라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자살은 악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생으로 해석하여, 무조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하위하라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이런 법문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스리랑카 법당 스님들과 이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살은 사실 한국 내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한국 같은 이국 땅에서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가야 하는 고충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여러 교육을 받고 있지만 정신적 고통 해결 문제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게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망한 30명의 스리랑카 영가를 마하위하라 사원 법당 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원에서 보시, 계, 수행으로 쌓이는 공덕을 회향하오니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월주 대종사의 유지 계승해야

현대 한국불교사의 산증인으로 종단과 우리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태공 월주 대종사가 적멸에 들었다. 한평생 남기신 수많은 업적과 활동성과들이 월주 대종사의 큰 그림자를 짐작케 하고 있다. 불교계 내부로는 정화운동과 종단개혁에 매진하며 종단의 역량 강화를 이끌었고, 외부로는 사회 속 종교적 역할을 직접 실천하며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각계각층에서 월주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단체들이 큰 족적과 가르침을 기리며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다짐으로 그리움을 전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진 개개인의 인연 고리에 따른 애도는 수도 없다.

월주 대종사는 세속을 벗어나 깨달음을 구한 구도자였지만 세간에도, 출세간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격동의 시기 혼연히 떨쳐 일어나 흔들리던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한 축이 됐고 그 원력과 깨달음은 세간으로 향해 고통받는 중생을 위한 보살도 실현에 매진했다.

종단과 우리사회 곳곳에 스님의 큰 족적을 느낄 수 있는 이유다. 스님은 회고록에서 "삭발염의하고 수행자로 살아온 지난 60여년 세월이 마치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갔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술회했다. "불교와 세상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수행 역시 산에만 머물지 말고 저잣거리에서 구현돼야 한다"며 "수행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보현행원은 지금의 한국불교에 필요한 가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 원력의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기에, 월주 대종사가 남긴 임종게가 전하는 울림은 너무나 크다.

조계종 도반HC 변화 기대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자회사 인수합병을 통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도반HC는 1995년 설립된 조계종출판사를 모태로 한 영리법인이다. 불교경제생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산하에 ㈜조계종출판사와 ㈜도반미디어, ㈜도반기획, ㈜도반유통 4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명 또한 분명하다. 종단과 교구사찰, 단체의 재정확충을 지원하고 모아진 역량을 토대로 종단 목적사업에 대한 기여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영리법인이지만, 사실 그동안 도반HC 행보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수익 창출을 통한 종단 기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도반HC의 실적 또한 어려움을 면치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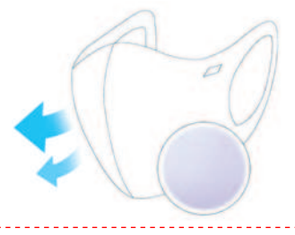
이번 인수합병이 도반HC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우선 도반유통과 도반미디어가 흡수통합되면서 4부 체제로 개편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달력사업부와 승소사업부, 디자인사업부, 영업부 4부서가 유동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중첩되는 업무 및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컨설팅을 통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했다는 점도 기대를 높인다. 주먹구구식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질개선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거듭날 도반HC가 향후 본연의 목적인 종단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재적 확충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조계종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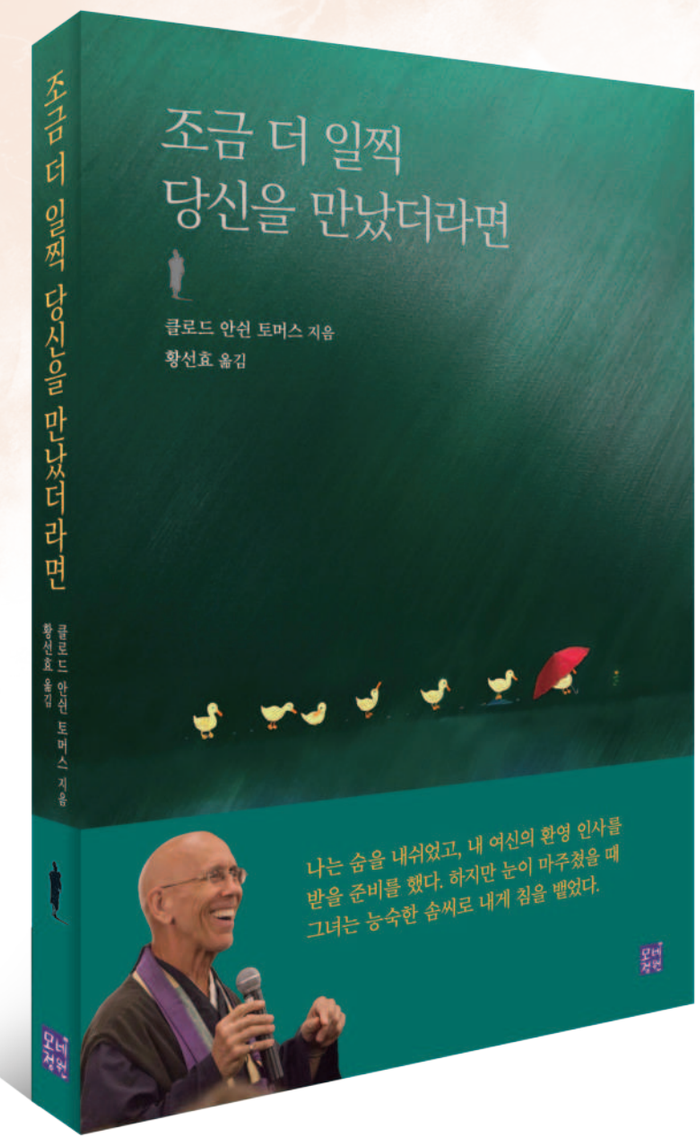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출시!!
FDA 등록
자외선 차단 및 빠른 건조기능으로 야외활동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된
여름용 기능성 비말차단 쿨~ 마스크
기존제품과 다른점
❶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
❷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음
❸ 냉감(시원함 정도)이 우수하여 무더운 날씨에 적합
※ 색상별로 5개 1셋트 27,500원 (개당 5,500원) / 배송비별도
※ 색상별로100개 주문시 350,000원 (개당 3,500원)
※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주문제작상품으로 5~7일정도 소요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청량한 색상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연회색, 블랙
5색에 연꽃문양이 아름답게 인쇄된 여름용 Cool~ 마스크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상처난 이 시대를 통절하게 그려낸 한 영혼의 순례기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화제의 신간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누구나 고통은 피하려 하고, 기쁨은 즐기려 한다. 기쁨이 우군이라면 고통은 적인 셈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젊은 시절 전쟁 영웅이 되어 수많은 훈장을 가슴에 매단 채 금의환향했던 저자는 그러나 고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환영 나온 줄 알았던 여인이 다가와 얼굴에 침을 뱉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전쟁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격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저자는 마침내 평화의 수행자인 틱낫한 스님을 찾아 플럼빌리지까지 가지만, 베트남인인 스님들을 믿지 못해 텐트 주변에 부비트랩을 설치해 놓고 잠을 잔다.
삶의 막장에서 방황하던 저자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지옥의 문을 벗어나는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책장을 넘기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지거나 가슴 먹먹해지는 감동을 느낀다. 좋은 책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탄성을 토하며 읽고 난 뒤의 여운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 **김재진** (시인 /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저자)

두려움과 접촉할 때마다 나는 먼저 두려움과 열린 관계를 맺고, 두려움에 집착하지도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아야 하며
그다음은 두려움 이면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건 돌을 뒤집는 것과도 같다.
나는 죽는 날까지 계속 돌을 뒤집으며 항상 더 깊이 보아야 한다.

치유란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치유란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챙김 속에서 현재에 사는 것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圓寂

태공당 월주대종사

(1935~2021)

臨終偈(임종게)

天地本太空(천지본태공)
一切亦如來(일체역여래)
唯我全生涯(유아전생애)
卽是臨終偈(즉시임종게)
喝!(할)

하늘과 땅이 본래 크게 비어있으니
일체가 또한 부처이구나.
오직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바로 임종게가 아닌가.
할!

동체대비 보현행 실천한 선지식

태공당 월주 대종사 행장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생애는 대한민국과 한국불교의 근·현대사 그 자체셨습니다. 세간의 학문을 익히고 출가하여 수행정진하며, 한국불교의 초석을 놓은 것은 물론 국가와 겨레의 고통을 해결하고, 세계인류의 공생(共生)을 실현하고자 한 순간도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산외초등학교, 서울 중동중학교, 정읍농고를 졸업하고, 한국전쟁의 격동기 속에서 종교적 실천수행을 통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고자 염원하셨습니다.

큰스님의 삶이 지금 우리 시대에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산사(山寺)에 머물러 갇혀 있지 않고, 동체대비의 보현행원(普賢行願)을 일생 동안 한결같이 견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가 사문으로서 참선수행과 병행하여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더해주는 자비행도 더 없이 소중하다는 가르침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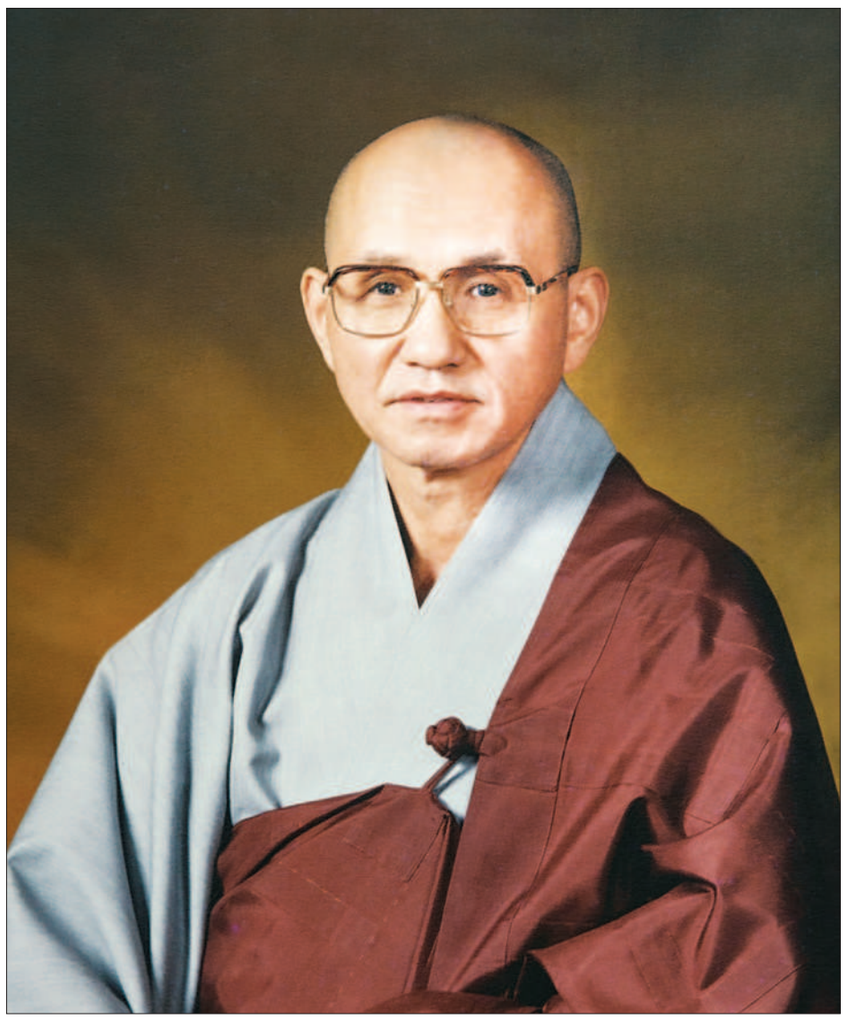
1966년 제2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의장 등 종단의 공직을 맡아 대한불교조계종의 튼튼한 초석을 다져놓으셨습니다. 불교정화운동의 여진으로 종단이 직면하고 있던 현실적인 과제를 직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예지(叡智)를 여실히 보여주셨고, 나아가 미래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떠나 오로지 공심(公心)을 앞세웠기에 사부대중의 신망을 받아 1980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제17대 총무원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40대 중반에 총무원장이라는 대임을 맡은 큰스님은 일본식 왜색불교의 청산과 청정비구의 정화정신을 바탕으로 종단 내부의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의 시대정신을 선양하셨습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당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제도개혁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이 한국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도록 기여하셨습니다.

12·12사태와 5·17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정권의 지지성명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는 광주를 방문하여 부상당한 시민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봉행하셨습니다.

이러한 큰스님의 족적은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는 육조혜능(六祖慧能) 선사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佛法在世間(불법재세간)
不離世間覺(불리세간각)
離世覓菩提(이세멱보리)
恰如求兎角(흡여구토각)
불법은 세간 가운데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깨닫지 못한다네.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에게서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1980년 신군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장군인들을 동원하여 군홧발로 신성한 사찰을 짓밟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10·27법난을 일으켜 종권을 찬탈하고 불교를 탄압하였습니다. 그 이후 큰스님께서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고, LA반야사에서 참선수행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갖게 되셨습니다.

지혜를 증장시키는 지증보살(智增菩薩)도 훌륭하지만 자비를 폭넓게 펼치는 비증보살(悲增菩薩)의 공덕이 수승하다는 〈화엄경〉의 가르침대로 큰스님은 일상에서 자비행을 초지일관 실천하셨습니다.

산중(山中)의 수행일변도에 집착하지 않고,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과 동고동락하는 역동적인 보살행을 실천하였습니다.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 공동의장(198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1989), 공명선거실천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1990),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1992)을 역임하면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공헌하셨습니다.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 취임한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겸 이사장(1996),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겸 이사장(1996), 대통령국토통일고문회의 고문(1998), 실업극복국민공동위원회 위원장(1998),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장(1998) 으로 활동하면서 사회고(社會苦)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량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종교계의 지도자로서 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1994년 희망찬 개혁종단의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큰스님은 승가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원과 포교전법을 전담하는 포교원을 설립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주창하여 수행과 교화가 둘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1998년 제28대 총무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사바세계에서 연꽃을 피우기 위해 시민사회운동과 비정부기구(NGO)를 통하여 많은 구제활동에 정진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와 안위를 위해 국가와 국민을 대신하여 나눔의 집을 설립하였고, 낙후된 환경에서 고통 받는 인류 구원을 위한 지구촌공생회를 창립하여 자비의 연꽃을 피워냈습니다.

큰스님은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에서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내게는 '제2의 출가'였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우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80이 넘은 노령에도 불구하고, 29년 동안 무보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장시간 비행기에 고령의 몸을 싣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달려가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편하게 쉬시면서 여생을 보내시면 좋겠다"는 주위의 간곡한 만류에도 중생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 항상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정신적 괴로움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원근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큰스님께는 수행처이자 도량(道場)이었습니다.

天地與我同根(천지여아동근)
萬物與我一體(만물여아일체)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

큰스님의 자비행에 감동한 정부와 교계 안팎에서도 나름대로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2000), 국민훈장 무궁화장(2011), 캄보디아 국왕 훈장(2010), 미얀마 최고 작위 '사따마 조디까다자'(2013), 조계종포교대상(2005), 만해대상(2012), 제1회 민세상(2010), 대원상(2013) 등을 수훈 또는 수상하셨습니다.

큰스님은 회고록에서 여생의 소망을 "몸담고 있는 종단, 민족과 사회, 지구촌의 인류를 위해 대중과 함께하는 자세로 심부름하는 자세로 사는 것일 뿐"이라며, "소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출가자로서의 한결같은 소망이자 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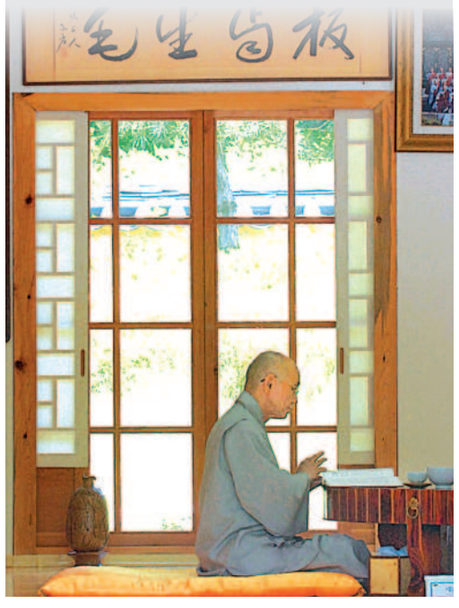
오직 수행정진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한 길을 걸어오신 큰스님은 2021년 7월 22일 세수 87세, 법납 68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비록 세연을 다하셨지만, 큰스님의 삶 그 자체는 무명의 세계를 밝히는 밝은 등불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원효 스님의 말씀을 빌려 큰스님의 가르침과 자비행을 요약하겠습니다.

歸一心源(귀일심원)
饒益衆生(요익중생)
일심(한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라

〈월주 대종사 종단장 장의위원회 공식 행장〉

걸어온 길

1935년 전북 정읍 출생
1947년 산외초등학교 졸업
1950년 서울 중동중학교 졸업
1951년 법주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55년 정읍농림고등학교 졸업
1956년 화엄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1년~1974년 금산사 주지
전북 종무원장, 불교전북교원 이사장, 금산상업중·고등학교 이사장
1965년~1967년 학교법인 대승학원 이사장
1966년~1981년 조계종 제2~7대 중앙종회의원
1968년~1974년 학교법인 동국학원(동국대) 이사
1969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1970년~1973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1971년 한국종교인협의회 총무
1973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1978년 조계종 제5대 중앙종회의장
1980년 4월~11월 조계종 제17대 총무원장
1980년~2012년 금산사 회주
1981년~2012년 영화사 회주
1982년~1985년 LA 반야사 회주
1988년 10.27 법난진상규명추진위원회 대표
1988년~1990년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장
1989년~199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0년~1995년 공명선거실천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1994년~1998년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
1995년~1998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1995년~1998년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1996년 원광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학위 취득
1996년~2006년 우리민족서로돕기 이사장
1996년~1998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1998년 중동고등학교 명예졸업 (47회)
1998년~2000년 대통령국토통일고문회의 고문
1998년~2003년 실업극복국민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1998년~현재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장
2000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03년~2007년 함께일하는사회 이사장
2004년~현재 (사)지구촌공생회 이사장
2005년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종정상)
2008년~현재 (재)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2010년 캄보디아 국왕 훈장 수훈
2009년 대통령 자문 국민원로회의 위원
2010년 제1회 민세(안세홍 선생)상 수상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2012년 만해대상(평화 부문) 수상
2012년~현재 금산사, 영화사, 실상사 조실
2013년 미얀마 최고 작위 사따마 조디까다자(성자)' 수훈
2013년 대한불교진흥원 제11회 대원상 포교 부문 대상 수상
2016년 중앙승가대학교 명예문학박사 취득
2016년 여의대상 길봉사상 수상
2017년 (사)우리민족교류협회 한반도 평화의 메달수상
2017년 (사)한국지도종교지도자협의회 공로패 수상
2017년 조계종 원로의원
2018년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고문
2018년 조계종 대종사법계 품서



성승 태공 월주 큰스님 원적을 애도합니다

〈聖僧〉

추 모 사

큰스님께서 열반하셨다는 부음을 듣고 저희 부부는 가슴이 철껑 내려앉는 충격을 받고 오열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올해 세배는 내년으로 미루자고 하셨습니다. 뵈올 때마다 워낙 강건하시고 말씀도 잘 하셔서 백세를 함께 사실 줄 알았는데, 이리 홀연히 저희들 곁을 떠나시니 이제 저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천하 영웅도 세월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불교의 가장 큰 별인 태공당 송월주 큰스님께서 87세의 세연을 거두시었습니다. 부처님의 수복(壽福)인 불세(佛歲)보다도 7세를 더한 천수를 누리셨지만 저희 불자들은 아쉽고 애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스님을 국가의 원로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시고, 군사독재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수행자의 의연함을 지킨 참 스님이라고 말합니다. 17대, 28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면서 뛰어난 영도력과 지혜를 통하여 종단 개혁회의의 선봉에 서서 종단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급할 때 반석 위에 일으키셨습니다. 큰스님의 화두는 오직 조계종의 중흥과 발전이었습니다. 그 때 주창하신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고 우리 불자들이 나아갈 신행의 지표와 불교가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003년 창립한 지구촌공생회의 활동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깨달음이다"는 기치를 걸고 국경을 넘어 동남아 5개국 현지 구호사업을 전개한 업적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한 최고의 중생구제의 실천행입니다. 국제적인 NGO단체로 성장하여 급기야 2014년에는 캄보디아에 생명의 우물을 2091기를 파주는 대업을 이루고, 수많은 학교를 세워줘서 한국불교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드러냈습니다. 이를 인정하여 정부에서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고, 캄보디아와 미얀마정부는 국왕이 직접 최고성승(聖僧)의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뜻있는 불자와 국민들은 큰스님이 하시는 이 일에 흔연히 동참하여 공업(共業)의 아름다운 불사를 이루었습니다. 제자도 매월 1만 원씩 후원하여 빈곤국가에서 오염된 물을 먹고 사는 아이들에게 급수공덕(汲水功德)을 짓는 것이 한없이 행복합니다.

제자가 큰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1981년 9월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전두환 군부세력에 의하여 총무원장에서 물러나 개운사에 계셨고, 저는 개운사 옆에 있는 동국대학교 기숙사인 기원학사 사생장을 할 때입니다. 매년 명절마다 기숙사 학생들에게 과일을 두 상자씩 보내준 은혜의 보답으로 생신날을 맞춰서 찾아뵈었지요. 그 때 조계종에서 전두환 군부정권 찬양법회를 거절한다고 10·27불교법난을 자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가 지난 정권의 허수아비가 되는 허약한 모습에서 파탈하여 의연한 종단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스님께서 명령만 내리면 우리 기숙사 학생을 몰고 가서 전두환을 척살하겠다"고 호기를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제자는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동국학원 명성여중(동대부여중)의 교법사로 부임하여 구의동 영화사에서 자주 뵈었고 40여 년을 모시는 유발제자가 되었지요. 특히나 1989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하실 때부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경불련 창립위원, 공해추방불교인모임(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창립위원 및 사무처장을 하면서 오늘까지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자의 젊은 시절을 큰스님께서 하신 불교시민운동을 따라서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그 때 시민운동을 했던 저희들은 "공해추방운동(환경). 불교인권위원회(인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불련, 공명선거실천시민연합, 지역감정해소 국민운동협의회, 남북협력 우리민족서로돕기,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나눔의 집(위안부 돕기) 등 불교시민운동은 월주 스님 한 사람이 모두 한 것이네. 앞으로 한국현대불교사를 쓰게 되면 월주 스님뿐이네"라고 말했습니다. 큰스님의 원력은 참으로 대단했고 칭찬을 받을 만 합니다.

시민단체마다 지원금을 달라고 영화사에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단체가 큰스님이 창립한 단체입니다. 그때는 고승서화전이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젊은 스님이 돈이 없으면 서예글씨라도 써주면 그것을 팔아서 운영비에 보태겠다고 실제로 붓과 벼루, 종이를 준비해 간 일화와 '전법도생(傳法渡生)'이라고 쓴 작품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스님께서 서예를 하게 된 연원입니다.

제자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교장에 취임하자 큰스님께서 "귀일심원(歸一心源 요익중생(饒益衆生)"의 축하휘호를 써주셨습니다. 큰스님께서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신 "환경운동을 해야 한다. 김법사가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를 없애지 말고 잘 유지해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님의 명에 따라 영화사 거사회 법회를 10여 년을 담당하는 지도법사를 하였습니다. 큰스님은 저를 단련시키고 키운 스승이시고,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앉아서만 성불할 수 없다. 진리는 세간 속에 있다"고 하시면서 불교의 전통 수행인 참선과 보현행을 함께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큰스님께서는 중도와 균형을 실천하셨습니다. 불교인의 수양은 심성 수양을 위한 참선, 경전 공부, 보살행 실천을 균형 있게 함께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도 균형감(6:4론)을 잃지 않았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지혜와 복덕을 잘 갖추시고 우리 불교종단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내신 원력보살이십니다. 국가의 원로로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통하여 역대 대통령의 자문과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상좌들도 모두 훌륭하여 기라성처럼 빛나는 한국불교의 대들보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정말 복이 많으신 분으로 저희들에게 복을 나누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스님을 못 잊고 그리워하는 불자들의 마음속에 하얀 연꽃으로 피어나십시오. 부처님의 밝은 미소를 닮은 가을밤에 둥근달로 떠오르십시오.

불초 제자 김형중은 곡배(哭拜)하며 추도의 글을 올립니다.



김형중 / 前 동대부여고 교장



“佛法은 세간에 있다”

생전 법문으로 본 월주 대종사 가르침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7월 22일 원적에 든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생전 조계종 총무원장, 금산사와 영화사 조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나눔의집 이사장 등 종단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래서 월주 대종사는 불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많은 법문과 메시지를 남겼다. 대종사의 법문에는 평소 대종사의 수행, 포교 원력과 사회 갈등 화합에 대한 메시지들이 담겼고, 이는 현재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歸一心願 饒益衆生’

월주 대종사가 생전 법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願 饒益衆生,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서 중생을 이익케 하라)’이다. 대종사는 이를 ‘부처님의 본원’임을 강조하고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고 부처님처럼 행하는 것이야말로 조계종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종사는 깨달아 자기 본성자리로 돌아가는 ‘귀일심원’과 세상의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요익중생’은 둘이 아님을 강조했다.

“참선이든 염불이든 진언이든 수행을 통해 연기법을 깨닫고 동체대비심이 우러나와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와 세상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하나로 융합할 때, 아니 이미 하나로 연결돼 있는 한 몸임을 알아차릴 때 불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귀일심원 요익중생’ 법문을 통해 월주 대종사는 대중들에게 연기법과 자비심을 강조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당부했다. 나와 너, 자연과 세상은 홀로 존재할 수 없이 연결돼 있으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서로에게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체대비, 우리 모두가 같은 몸임을 깨달을 때 큰 자비심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자비심을 내고 자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자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비행으로써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자 불교의 사회적 존재 이유입니다.”

> “수행과 보살도 실천은 둘이 아니다
> 세간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 거북이에게서 털을 구하는 것과 같다”

〈육조단경〉의 ‘佛法在世間’

월주 대종사는 육조 혜능 대사의 〈육조단경〉에 나오는 ‘불법재세간 불리세간각 이세멱보리 흡여구토각(佛法在世間 不離世間覺 離世覓菩提 恰如求兎角, 불법은 세간에 있으며 세간을 떠나서 깨닫지 못하네.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그것은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을 평소 법문에 자주 인용·강조했다.

2009년 금산사 1410주년 개산대재 법회에서 법석에 오른 월주 대종사는 “자비는 보살도의 근본이며 수행과 보살도의 실천은 둘이 아니다”라며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간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거북이에게서 털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설했다. 또한 세상을 향한 자비심을 갖기를 대중에게 당부했다.

“구도의 본질은 자비행에 있습니다. 보현행을 통해 보리를 얻고 해탈할 수 있다는 신심을 확고히 갖고 실천 수행을 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수행하면서 헐벗고 병든 이웃이 빈곤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못 배운 사람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우물을 파서 기갈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전쟁을 반대하며, 지구촌의 생명이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생명평화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비가 이 시대의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은 월주 대종사가 평소 법문과 대외 메시지를 통해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던진 ‘화두’다. 대종사가 강조한 ‘이 시대의 보살행’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는 눈높이 자비행이다. 이는 2004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하며 남긴 소감에서 잘 나타난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 사람,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본래 생사가 없으니 마음을 갈고 닦아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심오하고 고차원적인 설법은 그저 귓전을 스쳐지나가는 바람이 되기 쉽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야말로 진정한 전법도생입니다. 불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에 기여해야 하고, 그 영역의 확대를 통해 자비와 이타의 종교임을 확실히 각인시켜 줘야 합니다.”

이타·상생의 삶을 살아가라

월주 대종사는 미래의 동냥인 대학생들에게 법어를 내리기도 했다. 대종사는 공부함에 있어서 출세가 아닌 사회 환원과 회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와 사회에 회향하고 환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 욕망 충족과 출세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이의 기본자세입니다. 나의 이웃이 질병과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하고 못 배운 사람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줘야 하며, 자연과 환경을 살리고 전쟁을 방지해 지구촌의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대종사는 다양한 자리에서 이 시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법을 설했다. 정치지도자들에게는 절제된 언어와 신중한 행동을 주문했으며, 노사에게는 상생의 지혜를 요구했다. 또한 극좌·극우의 극단적 이념 대립을 벗어날 것도 당부했다. 결국 소통과 상생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는 2007년 1월 ‘화해와 상생’ 모임에서의 격려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론 분열의 큰 골인 극좌·극우의 극단적 대립을 지양하고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접점이 우리 사회 이념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돼야 합니다. 화합과 중도를 지향하는 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지도력과 사회통합력으로 확대될 때 우리 사회가 다소 혼란과 진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국민통합과 국가의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월주 대종사 생전 어록

“동체대비 실천은 글로벌 시대 의무”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등 불교계 종무행정 뿐만 아니라 종교화합, 경제, 해외구호, 통일, 환경 등 다양한 사회단체 수장으로 활동했다. 그 만큼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했다. 대종사가 생전에 남긴 대외 메시지와 언론 인터뷰 어록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대사회적인 자비실천도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영역을 지구촌 전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10년, 20년 아니 그 이후까지 내다보며, 보살행(보현행원)에 입각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불교계는 밖으로 눈을 돌려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 2004년 제17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소감

“정부는 10.27법난의 배경, 입안, 지시, 집행과정과 결정 등 정부 차원의 조사와 진상 규명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구체적이고 확연히 밝히고, 당시 피해자는 물론 불교계와 국민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제반 대책을 마련해 역사의 이정표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 〈10.27법난의 진실과 증언 Ⅰ·Ⅱ〉 축사

“불교계는 수행에 중점을 두다 보니 타 종교에 비해 바깥 세상에 눈을 돌리는 노력을 등한시했습니다. 자비행(慈悲行)과 이타행(利他行)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포교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이 있거든 사회를 위해 그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신동아〉, 2008년 인터뷰**

“지구촌 12억의 인구가 하루 1달러 이하로 연명하고 10억 명은 안전하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우리나 빈곤국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빈곤과 질병 퇴치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당장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한 생명을 살려내는 자비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 〈문화일보〉, 2010년 인터뷰

“이제 ‘잘 살아보세’ 대신 ‘올바르게 살아보세’ 같은 정신운동이 필요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고 법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향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평택시사신문〉, 2013년 인터뷰**

“〈벽암록(碧巖錄)〉에 ‘천지여아동근(天地與我同根) 만물여아동체(萬物與我同體)’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고 모든 존재 역시 나와 더불어 하나라는 뜻이지요.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에 기반을 두어 자비의 종교라고 불리는 불교계가 이웃 종교보다 국제구호 운동에 뒤처진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가와 민족, 인종과 언어, 종교와 문화, 이념과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돕는 것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 〈연합뉴스〉 2014년 송년 인터뷰

“자기 하는 일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비교하지 않고, ‘이 정도하면 낫지 않는가’라고 만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헤럴드 경제〉, 2016년 인터뷰



“세상과 함께 한 대종사 가르침 따르겠다”

정치·시민사회, 월주 대종사 애도 메시지 잇달아
이낙연·정세균 등 SNS 추모
이재명 메시지엔 ‘불편’ 심경도
5.18 관련 단체 등 추모메시지

태공 월주 대종사가 7월 22일 오전 9시 45분 원적에 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정세균 前 국무총리는 스님의 입적 소식이 전해진 후 오후 12시경 금산사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어 SNS를 통해 추모글을 게재하고 “월주 스님은 속세에서 화엄세계의 구현을 실천하며 평생을 정진해오셨다”며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으로 우리사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인으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셨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안식처인 ‘나눔의집’을 세우셨고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다”고 기렸다.

이낙연 前 국무총리는 SNS에 ‘밥이 필요한 사람에겐 밥을- 월주 스님의 가르침 따르겠습니다’ 제하의 추모글을 게재했다. 이 前 총리는 “스님은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함께 ‘종교지도자 삼총사’로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시는 등 종교의 경계도 넘나드셨다”며 “‘밥이 필요한 사람에겐 밥을, 약이 필요한 사람에겐 약을 주어야 한다’며 세상과 함께 호흡하신 스님의 생은 저희에게 죽비와 같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를 통해 스님과의 인연을 밝히며 애도했다. 오 시장은 “월주 스님께서는 평소 불교계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세상의 아픔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불교계에서 처음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도 월주 스님의 공이 컸고 대형 재난으로 힘든 이웃을 위한 긴급구호사업이라면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발 벗고 나섰던 분이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차별, 냉대,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던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라며 재차 애도를 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SNS에 ‘태공당 월주 대종사님의 원적을 기리며’ 제하의 추모글을 공개했다. 그는 “진흙탕 세상으로 나아가 길을 내고, 길을 밝히고, 직접 길을 걸어가신 월주 스님의 원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눔의집과 관련해 과도한 행정조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스님을 추도하는 글을 게재한 데 따른 불편한 시각이 적지 않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이사장인 월주 스님과 이사 스님들에 대해 언론 경·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해임을 강행하는 등 과도한 조치로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졌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7월 22일 발표한 추모메시지를 통해 “전두환 군부정권 지시를 거부한 월주 스님을 추모한다”고 밝혔다.

신성민·송지희 기자

“이웃과 중생을 위하여 더불어 함께 살고



2018년 금산사 연등장엄 아래에서 활짝 웃는 월주 대종사.



1998년 실업극복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한 월주 대종사(사진 오른쪽),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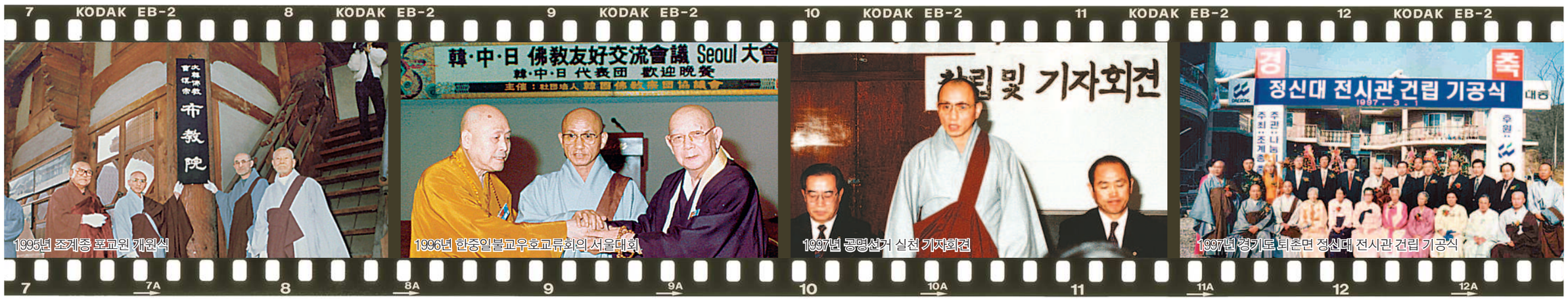
1970년대 부여 백마강에서 배를 타고 고란사 옆 조룡대를 지나는 월주 대종사.

한 시대의 선지식을 보내며

이 시대가 힘겹고 위태로운 것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느 시절이나 한 시대가 어려운 것은 ‘오늘’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말 한 마디가 없을 때, 대중은 힘겨운 것이다.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나온 시절이 한 시절이라도 있었을까. 서로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오늘보다도 더 어렵고 위태로웠던 시절도 분명 있었음이다. 그래도 한 시절 한 시절을 살아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일러주고 다독거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대나 앞서 대중을 생각을 하는 이가 있고, 앞서 힘겨움을 짊어지는 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그렇게 오랜 세월 앞서 살았던 선지식을 보낸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원적으로 슬픈 하루를 맞는다.

오늘, 한 시대를 위로할 수 있는 말 한 마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우리는 또 한 번 한 시대를 걱정했던 선지식을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시대를 걱정하던 선지식과의 인연이 다했다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슬픔이다. 한 평생, 말도 안 통하는 저 먼 곳까지 두루 살폈던 한 시대의 선지식이자 보살이었던 그를 이제 먼 곳으로 보내야 한다. 한 시대가 그 시대의 선지식을 보내는 일이야말로 백신 없는 난세를 맞는 일과 같은 것이리라. 그리고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선지식을 또 다시 기대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일 것이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남긴 지난날을 모아 그를 기억한다.

박재완 기자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실천하라”



2011년 광복절을 앞두고 나눔의집을 방문해 할머니들 흉상에 예를 표하는 월주 대종사.



2012년 국회 초청으로 방한한 스웨덴 국회 부의장 등을 반기는 월주 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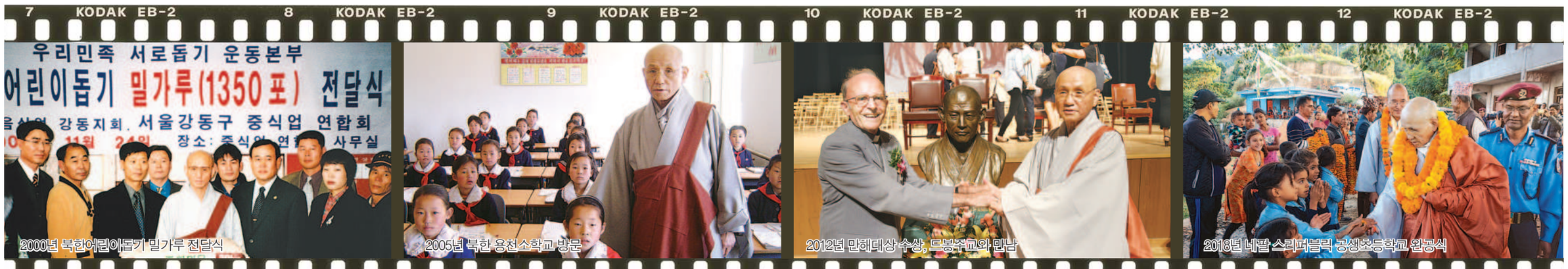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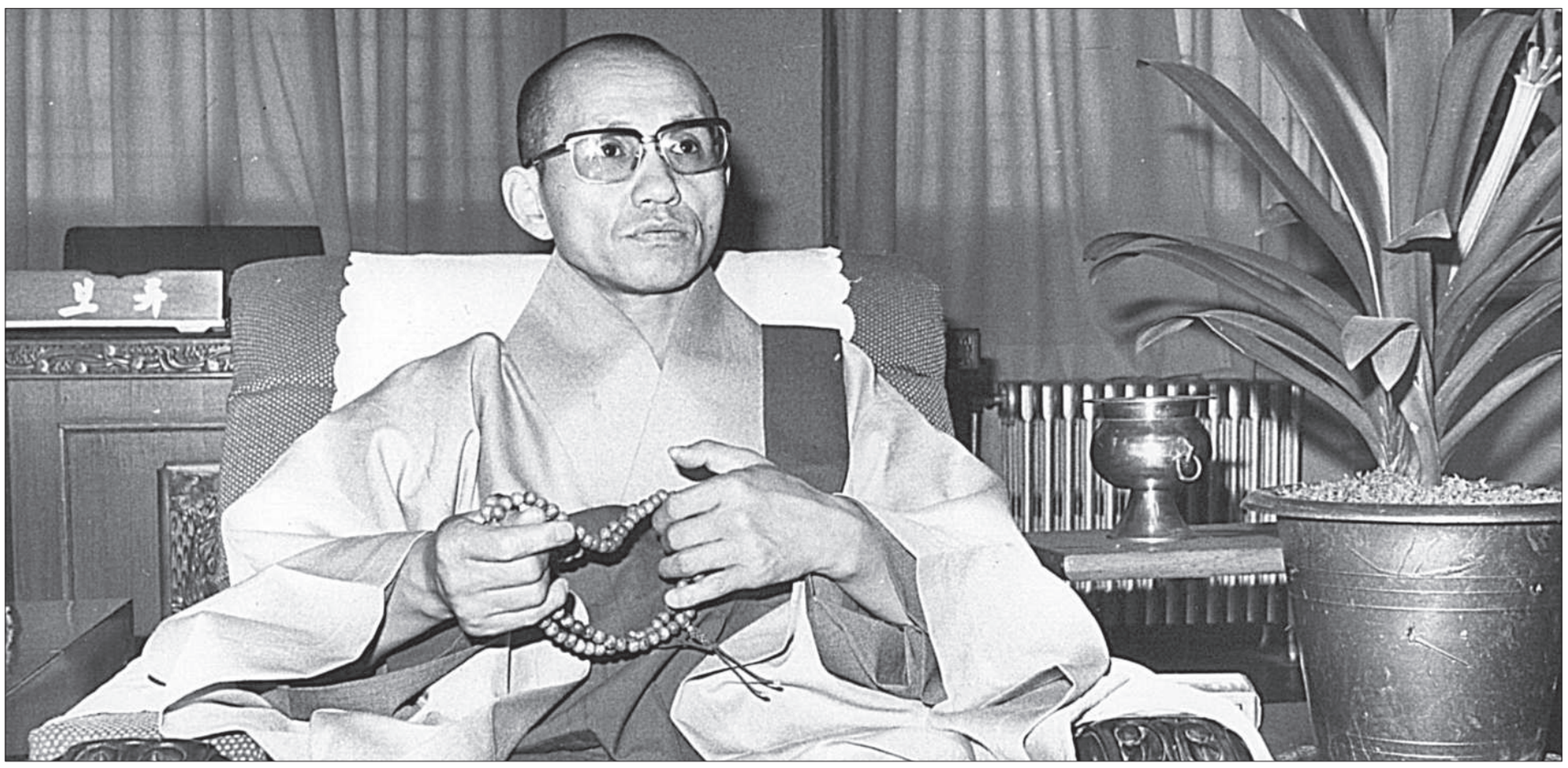
2013년 아프리카 케냐 농장 시찰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운력을 하는 월주 대종사.



월주 대종사가 지구촌공생회 ‘생명의 우물’ 완공 후 첫 물을 길어올려 손을 씻고 있다. 해당 우물은 이명박 前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기증했다.







1980년 조계종 제17대 총무원장 시절의 태공 월주 대종사.

월주 대종사의 종단사적 업적

격변하는 시대 속 종단 이끈 불교지도자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현대불교사 관통한 산증인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한국불교현대사를 관통한 산증인이다. 격동의 시기 조계종 수장으로 한국불교 발전의 토대를 일궜던 입지전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특히 조계종 정화 불사와 통합종단 출범, 종단 개혁 등 격동하던 시대적 흐름을 이끈 장본인으로, 종단 개혁 이후 조계종 행정 체계 및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적지 않은 족적을 남겼다.

월주 스님이 종단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첫 행보는 금산사 주지 서리로 임명된 1961년, 정화불사가 한창이던 시점이다. 당시 종단 차원에서 불교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었다. 비구승들은 1954년 6월 불교정화운동발기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금오 스님을 추대했다. 금오 스님은 월주 스님의 은사다. 스님이 정화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의 결과였다.

불교 정화운동에도 적극 매진

당시 금산사는 비구측이 소송에서 패해 대처측이 장악해 있던 시기였다. 총무원장 경산 스님은 27세였던 월주 스님을 주지서리로 임명하며 정화를 위한 행보를 당부했다. 금산사는 130여 사찰을 관할하는 교구본사였기에, 주지는 재단법인 전북불교교원 이사장과 전북종무원장을 겸하는 자리였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까지 떠안은 채 주지소임을 맡게 된 스님은, 사찰 정화와 운영을 위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로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살이 급격히 빠지고 약이 없이는 버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점점 나빠졌다. 그러나 시련은 곧 불교지도자로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수행으로 이를 극복한 것은 물론, 한평생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금강경〉의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등 모든 것이 허망하고 무상해 실체가 없다는 게송이 그 자체로 확신이 됐다. 월주 스님은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조계종출판사)〉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편견과 선입견, 감정에 끄달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는 견해가 생겼다"며 "젊은 시절 이 같은 공부는 이후 종단 안팎의 여러 가지 소임을 보면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흔들이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힘에 됐다"고 술회했다.

종회의원 · 총무원 요직 두루 거쳐

1966년 제2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스님은 종단의 중심축에서 역량을 드러냈다. 총무원 교무부장과 총무부장, 조계종 중앙상임기획위원 등 주요 소임을 맡으며 통합종단 출범 이후 종단행정 기틀을 확립하는 데 골몰했다. 2대 종회의원을 시작으로 6대까지 활동했고 제5대 중앙종회의장 소임까지 맡으며 종헌종법의 기본틀을 구축했다.

이 같은 활약상은 1980년 월주 스님이 제17대 총무원장에 취임하는 동력이 됐다. 총무원장이 된 스님은 본격적으로 불교 자주화와 종단 운영의 자율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1979년 10.26사태 등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 민주화 열망이 급격하게 높아졌고, 종단 역시 이로 인한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신군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한 학살로 짓밟았고, 불교계를 향해 지지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월주 스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대가가 바로 10.27법난이다.

개운사에서 총무원으로 향하던 스님은 보안사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 돼, 20일 넘게 고초를 겪었다. 향후 2년간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난 스님은 타의에 의해 총무원장직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다. 불과 7개월 만의 일이었다. 10.27법난은 불교계가 정치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근현대 불교역사상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다.

10.27법난 아픔 직접 겪기도

불교계가 군홧발에 유린당하는 모습을 목도하는 아픔을 겪은 월주 스님은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 LA반야사에서 칩거하며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과 종교의 역할을 고심했다. 한국불교는 급변하고 있었다. 종단개혁이 다시금 스님을 종단으로 불러들였다.

10.27법난의 아픔 이후 14년의 세월이 지난 1994년, 월주 스님은 제28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대중선거를 통해 선출된 첫 총무원장이었다.

14년만에 총무원장에 취임한 월주 스님은 '개혁종단'의 수장으로, 무엇보다 종단을 둘러싼 안팎의 문제들을 타파하는 데 공력을 기울였다. 종단 개혁의 완성은 물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굳건한 확신이 토대가 됐다. 종단과 정권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쓴 것은 물론, 종단 운영체계를 다지고 승가교육의 기본틀을 정비했으며, 제도 개혁을 토대로 한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성과들은 종단 발전의 기틀이자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월주 스님은 "1994년은 종단사에서 기념비적인 해였다"고 평가했다. 1962년 정화운동을 통해 통합종단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자생적인 힘에 의한 종단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제28대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이끈 1994년은 종단사에서 '개혁종단'으로 일컬어진다. 스님은 종단의 새로운 체제 마련에 주력했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으로 만들어 현재의 삼원체제로 확립한 것도 이 시기다.

종단 스님들의 승적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승가고시 제도를 도입해 일정 자격을 갖춘 스님에게만 법계를 부여토록했다. 승가교육체제를 정비한 것도 큰 성과다.

회고록에 따르면 4년간 재임시절 종단에서 집행한 총예산 439억 원 중 승가교육 및 역경기관에 지원한 예산이 136억 원에 달했다. 스님은 "전체 예산의 31%을 투입한 것은 한국불교의 희망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통합종단 출범 후 변변한 체계와 계획이 없었던 승가교육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초(행자교육), 기본, 전문, 재교육으로 승가교육체계를 정립하고 7개 교육기관을 새로 설립해 승가 교육의 질적 변화를 추구했다"고 술회했다. 선원 안거와 전문 교육, 재교육은 현재까지 구족계 수지와 법계, 종무직 취임과 연계한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았으며, 스님들에 대한 연수교육 정례화도 정착됐다. 중앙승가대 학사 이전이 추진된 시기도 월주 스님 총무원장 시기다.

종단 행정 · 운영체계 대대적 정비

월주 스님은 또 사찰운영위원회와 중앙신도회 구성, 교구종회와 산중총회를 제도화했다. 사설사암과 법인 관리 등 3년간 무려 45개의 종법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었다. 총무원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까지 본말사 주지를 총무원장이 임명하던 체계에서, 본말사 소속 스님들이 교구본사 주지를 선출하고 총무원장을 이를 임명토록 제도를 개선한 것도 큰 변화였다.

종무행정의 전산화도 일궈냈다. 내외부 혼란으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던 당시 종단의 종무행정은 황무지에 다름없었다. 스님은 당시 재가종무원들의 건의를 수용해 전산정보화 구축 작업을 추진했다. 전산정보화 사업은 불교종합정보망인 달마넷 구축으로 결실을 맺었다. 중앙종무기관과 각 교구 본말사 등 사찰 종무행정 자료에 대한 전산화도 동시에 추진됐다.

이는 가톨릭과 개신교보다 앞선 교단차원의 전산화 성과였으며, 종무행정 체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종단 이끌며 종단 쇄신 일궈

1998년 월주 스님의 총무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종단은 다시 소용돌이에 빠졌다. 월하 스님과 월주 스님의 양강구도였다. 정화개혁회의의 지지를 받았던 월주 스님은 종단 혼란이 거세지자 후보 사퇴 결단을 내린다. 기자회견을 열고 "덕이 출중하고 지혜가 뛰어났다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며 "나의 사퇴로 종단이 안정되길 바란다.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총무원장 중심제를 골자로 한 개혁종단의 종헌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월주 대종사가 종단사에 남긴 업적은 명확하다. 회고록 출간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역임 당시 미비한 종무행정체계와 법령을 정비하신 공적은 종단이 미래를 내다보고 현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 뜻깊은 성취"라며 "일제강점기와 불교정화운동이라는 격동의 세월을 거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스님의 혜안과 추진력으로 종단은 단단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스님의 족적은 총무원장 당시 주창했던 '깨달음의 사회화' 그 자체였다. 대사회적인 광폭행보는 종단을 넘어 사회를 이끄는 나침반이 됐기 때문이다. 출가 후 40년을 종단 바로세우기에 매진했고, 깨달음의 사회화를 직접 실현하며 우리사회에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던 월주 대종사.

"하늘과 땅이 본래 크게 비어있으니 일체가 또한 부처이구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바로 임종게가 아닌가./ 할"

스님의 임종게가 불교계 안팎을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하는 이유다.



만나고 헤어지는 마음들을 한데 모아
세세생생 저희들 가슴속에 항상 하시길 발원합니다.
큰 나무처럼 버팀목이 돼주신 태공 월주 큰스님,
큰스님 영전에 머리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무주 안국사 주지 보륭 스님 및 사부대중 일동

월주 대종사의 대사회적 업적

세상은 한뿌리… ‘공생의 삶’ 울림 남아



월주 대종사가 상좌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2013년 11월 생명의 우물 2000기 완공식에 참석해 현지 어린이에게 물을 건네는 모습.

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기자

시민운동, 종교화합으로 이어지다

종교화합 태공 월주 대종사는 ‘깨달음의 사회화’를 기치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했다. 월주 대종사의 사회운동은 1988년 6월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본격화 됐다.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지길 목사와 함께였다. 1987년 대통령 선거로 당시 촉발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것이었고, 민주화의 열망도 함께 반영됐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 1989년 월주 대종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인철 변호사 등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로 취임했고 8년간 대표로 임했다.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놓은 월주 대종사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다. 공명선거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1990~199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1996~2006),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1998~2003) 등을 맡으며 다양한 사회 문제에 귀를 기울였다.

이러한 활동은 불교계로도 이어져 불교도 시민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인권위원회 결성 등으로 이어졌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나눔의집’ 건립으로 이어진다.

사회운동 과정에서 이웃종교인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종교간 화합의 바탕이 됐다. 1996년 월주 대종사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를 창립해 2년간 공동대표의장 겸 이사장을 지냈다.

특히 월주 대종사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있었던 1997년 말 IMF 사태는 종교가 국민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월주 대종사는 평소 교분이 있었던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함께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게 된다. 1998년 전경련, 교총, 변협 등 18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민간 주도 최대 실업대책기구인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월주 대종사는 공동위원장을 맡고 일자리 대책을 수립했다. 당시 435개 사업을 전개해 230만 명에게 직간접 혜택을 주었고, 이 본부는 함께일하는재단으로 바뀌어 430만 명에게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했다.

종교인이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대종사의 가르침이 울림으로 전해진다.

5.18 아픔 함께한 시민의 아버지

민주화 운동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월주 대종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후원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월주 대종사의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에 따르면 총무원장 취임 20여 일만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계엄이 재갈을 물린 언론은 불순세력의 폭동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월주 스님은 광주로 가기로 결심하고 5월 24일 선발대 격으로 ‘소요사태 진상조사 선무단’을 보냈다.

전두환 신군부의 철권통치가 이뤄지는 시기에 월주 스님의 이 같은 행동은 정권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소식을 들은 종로경찰서장은 월주 대종사를 찾아와 “위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며 광주행을 막았다.

하지만 월주 대종사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도리어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시민 희생자와 군인 등 모두를 위로하기 위해 가겠다”면서 광주행을 강행했다.

월주 대종사는 5월 30일 광주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민돕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상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광주시민을 돕는 데 앞장서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 본말사와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연금 모금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계종의 광주 방문은 6월 3일 이뤄졌다. 월주 대종사를 비롯한 6명의 광주 방문 조계종 대표단은 서울에서 전남 장성으로 기차로 내려간 뒤 다시 차량으로 광주에 갔다. 종교계 중앙 교단 책임자로서는 첫 방문이었다.

불교계는 이날 오전 11시 관음사에서 ‘광주 사태 희생자 영가’라는 위패를 모시고 천도재 입재를 봉행했으며, 이후 정시채 전남도 부지사를 찾아가 “사태 수습과 위로금으로 사용하라”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5개월이 지나고 ‘10.27법난’이라는 1700년 한국불교 역사상 최악의 법난이 벌어진다. 월주 대종사도 당시 연행돼 23일 간의 불법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고,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월주 대종사는 회고록에 훗날 ‘권력이 내민 손을 잡았다면 법난이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수 차례 자문했지만 자신의 답은 ‘아니다’였다고 술회했다. 그리고 광주행을 후회하지 않음을 이 같이 밝혔다. “1980년 외로운 광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불교, 나아가 종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소외된 위안부 문제 수면위로 올려

위안부 피해치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안식처인 나눔의집은 우리사회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불교계 원력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다. 첫 시작은 1992년 6월 ‘나눔의집건립추진위원회’ 출범이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식은 무관심과 편견으로 점철돼 있었다. 사회적 관심이 저조한 까닭에 할머니들의 처우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시 불교인권위원장이었던 월주 대종사는 나눔의집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활동을 주도했다. 종단 차원의 ‘깨달음의 사회화 기금’을 비롯해 종단 예비비를 더해 19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나눔의집을 개원했다. 덕분에 흩어져 살고 있던 할머니들을 안정된 주거공간에 모실 수 있게 됐다.

월주 대종사는 나눔의집과 이곳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을 위해 1995년 12월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 부지에 나눔의집을 이전했다. 정부 지원금 없이 운영되던 상황에서 재정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운영상 어려움에 고충을 겪던 나눔의집이 지금까지 이어져올 수 있었던 데에는, 월주 대종사의 관심과 이로 인해 모인 불교계 후원이 큰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나눔의집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다. 할머니들의 기억을 기록화하고 각계 인사, 관련 단체들과 연대했다. 이를 토대로 진상규명을 통한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제적으로 위안부 문제의 실태를 알렸고 일본을 향해 과거사 참회를 촉구했다.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개관한 것도 그 일환이다.

월주 대종사는 생전 회고록에서 나눔의집을 꾸준하게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이 깊은 마음으로 티끌같은 많은 중생을 받들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 은혜를 갚은 것”이란 〈화엄경〉의 경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나눔의집 사태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월주 대종사의 남다른 원력과 그간의 공적마저 흔들리는 아픔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세계일화정신, 불교해외구호 문열다

해외구호 월주 대종사의 ‘깨달음의 사회화’는 국내에서만 발현된 것이 아니었다. 월주 대종사는 2003년 10월 국제구호단체(NGO)인 지구촌공생회를 창립했다. 한끼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 지구촌 현실에서 월주 대종사의 회향은 보다 어려운 세계인들을 보살피는 것으로 점철됐다.

월주 대종사는 해외 여러 국가들을 살폈는데, 특히 불교국가인 동남아 국가들의 상황이 열악했다. 학교와 수도, 전기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조차 부족한 곳들이었다. 월주 대종사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을 직접 답사한 뒤 지구촌공생회 설립에 나섰다. 월주 대종사의 회고록 출간을 위해 상좌들이 모은 1억 원과 〈인도성지 순례기〉 출판을 위한 2억 원 등이 지구촌공생회의 종자돈이 됐고, 공생회는 불교계 인사들이 함께 만든 첫 국제개발구호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지구촌공생회가 처음 설립된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 이제 막 해외원조국으로 입장이 변화할 때였다. 공생회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몽골과 미얀마, 네팔과 케냐에 지부를 개설해 활동가를 파견하고 식수지원과 교육, 지역개발에 나섰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월주 대종사의 캄보디아 등 동남아 우물파기 운동은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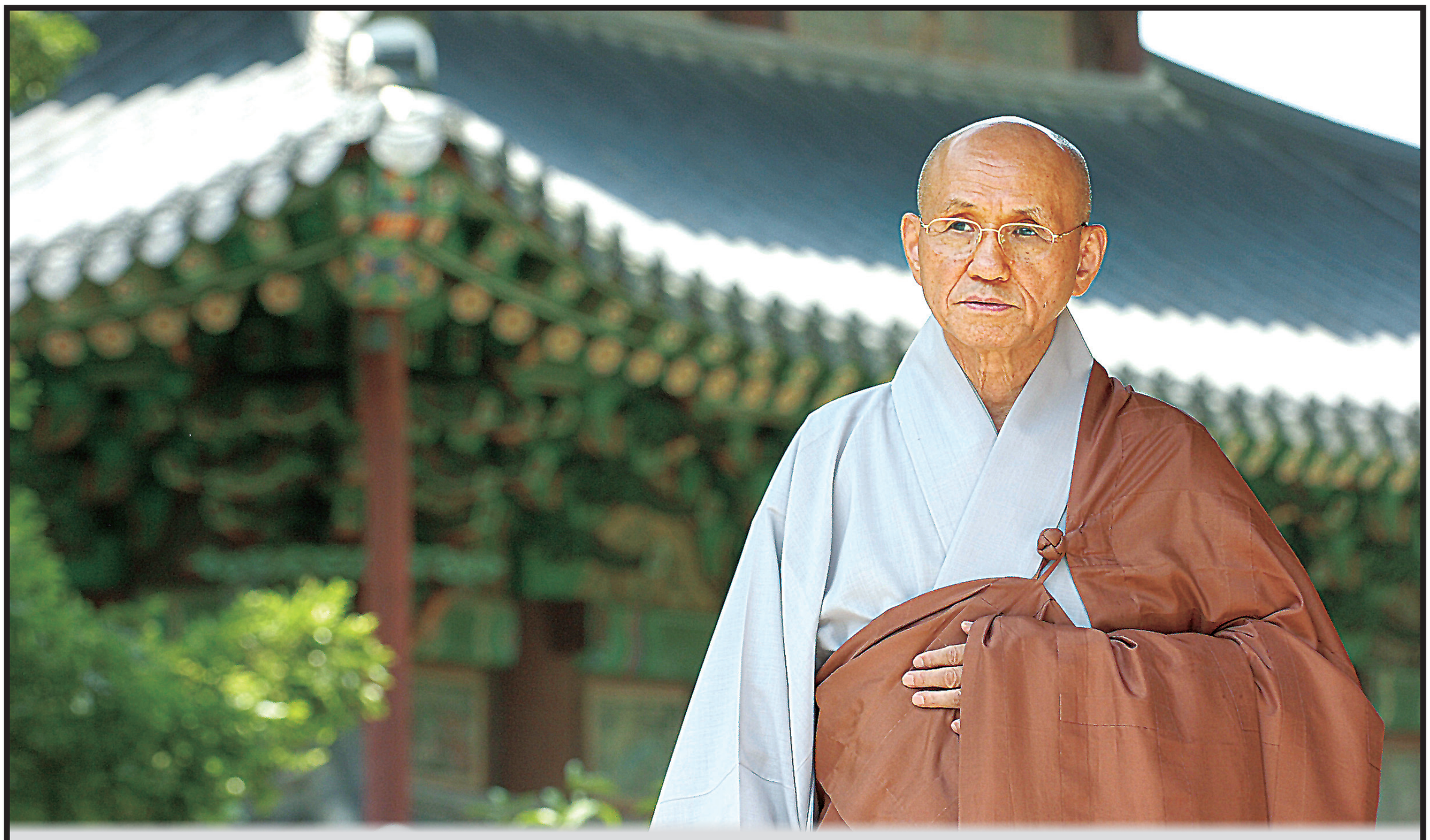
월주 대종사는 생전 “굶는 이에겐 법(法 · 진리)보다 밥이 먼저”라고 말했다. 월주 대종사의 원력 하에 2010년 1000번째 생명의 우물이 완공됐고, 2013년에는 2000번째 생명의 우물이 세워졌다. 미얀마에는 물탱크, 몽골과 케냐에는 핸드펌프와 모터펌프 등 급수공덕은 쌓여만 갔다. 월주 대종사는 총 2550개가 넘는 우물을 보시했다.

캄보디아와 네팔에서는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찾아나서는 아이들을 문맹에서 벗어나는 공생의 삶으로 이끌었다. 케냐에 만해초등학교와 태공초등학교를 세웠고, 라오스와 몽골 등지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건립했다. 월주 대종사는 생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구촌공생회 설립 취지문을 살펴본다고 했다. 인류의 삶이 서로 다르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참 수행이라고 말이다.

우리 사회와 이 세상 곳곳에 큰 스님이 계시지 않은 곳 없습니다.
모두 큰 스님 자리 아닌 곳 없기에, 그 빈자리 크기만큼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남기신
유훈에 따라 항상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 신도회 이근재 회장 및 신도회 일동





月珠生衆益饒源心一歸

歸一心源

饒益衆生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라

월주 대종사 49재 일정

초재	7월 28일	금산사
2재	8월 4일	금산사
3재	8월 11일	금산사
4재	8월 18일	금산사
5재	8월 25일	금산사
6재	9월 1일	금산사
막재	9월 8일	금산사

요익중생을 실천하신 태공 월주 대종사의 삶은 우리 곁에 큰 등불로 남을 것입니다.

월주 대종사의 원적을 추모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